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중산층 경력단절 여성의
모성역할 학습에 관한 연구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정 지 연

중산층 경력단절 여성의 모성 역할 학습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한 승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정 지 연

정지연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1월

위 원 장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엄마 되기’는 여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성이 출산을 통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로서 일종의 학습을 통해 획득되는 정체성 형성의 과정이다. 본 연구는 ‘엄마’들이 ‘모성역할’을 수행할 때 경험하는 다양한 층위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엄마’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고, ‘엄마’로서 자신의 존재의미를 재규정하며, ‘좋은 엄마 상’을 수립하는 과정을 여성주의적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출산 후 여성들은 ‘엄마’로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그런 경험들 중에서 ‘모성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엄마’들은 어떤 경험을 새롭게 체화하는가?

둘째, ‘모성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엄마’가 직면하는 갈등은 무엇이며, 갈등의 양상은 어떠한가? 이 갈등은 ‘모성역할’ 학습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셋째,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출산을 하고 ‘엄마’들은 급격한 일상의 변화를 경험한다. 하루 종일 모유수유를 하고, 밤중수유로 수면부족을 경험하며, 아기를 달래고 재워야 하는 돌봄의 노동은 육체적 피로를 야기한다. 출산 후 호르몬의 변화와 비일상적인 활동으로 채워지는 일상 때문에 ‘엄마’들은 우울감을 느끼기도 한다. ‘엄마’들은 전통적인 성 역할을 암묵적으로 요구받으면서 남편, 시어머니, 친정어머니와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엄마’라는 역할이 ‘나’보다 우선 되는 상황과 육아에 대한 모든 책임이 ‘엄마’에게만 부여되는 상황에 부당함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엄마’들은 육아 스트레스에 분노와 화로 반응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죄책감을 갖기도 한다. 이런 비일상적인 생활이 ‘엄마’들의 일상이 되면서 개별적 주체인 ‘내’가 부정되는 경험을 한다. 이런 존재부정의 경험은 학습 동기로 작용하며, ‘엄마’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종의 학습을 하게 된다.

‘엄마’들은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느끼는 혼란스러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아를 성찰하게 된다. 성찰을 통해서 성격이나 습관의 변화가 필요함을 인지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모성애가 발현되면서 ‘엄마’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한다. 익숙하지 않은 ‘모성역할’을 수행하면서 ‘엄마’들은 만족감과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 ‘내 새끼’, ‘내 피붙이’로 자녀를 분신화한다. 자녀와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자녀가 표현하는 사랑과 관심으로 ‘엄마’들은 행복과 기쁨을 느낀다. 이렇게 자녀와 소통하면서 ‘엄마’들은 자녀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보조적이고 주변적인 존재로 자신을 수용하면서 ‘전업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엄마’들은 모성이데올로기와 한국 사회의 가족주의에 의해 형성된 특정한 ‘모성역할’을 주변 사람들에 의해 강요받으면서 갈등을 경험한다. 출산 전과 다르게 전통적인 아내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을 남편이나 친정어머니 또는 시어머니에게 요구받기도 한다. 반대로, 전업주부로 살고 싶지만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주의, 신자유주의, 능력주의가 얽혀있는 한국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자녀 교육의 전적인 책임이 ‘엄마’에게 부여되면서 ‘엄마’들은 비정상적으로 확대된 ‘슈퍼맘’ 이데올로기와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런 갈등의 발생 원인을 찾으려고 ‘엄마’들은 자신의 성장과정을 되돌아본다. 성장과정의 경험과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결합하여 재구성

하면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반성하고 평가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엄마’인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가를 발견한다. ‘엄마’들은 모성역할을 수행하면서 직면하는 갈등을 경험하면서 모종의 학습을 하고, 그 학습의 결과로 ‘전업 어머니’ 정체성의 하위범주에 해당하는 ‘훈육자 정체성’, ‘돌봄이 정체성’, ‘교육 기획자 정체성’, ‘안내자 정체성’을 모성역할의 변화와 갈등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형성한다.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자신의 성장과정의 경험과 현재 사회의 모습을 통찰하면서 ‘좋은 엄마 상’을 수립한다. ‘엄마’들이 수립하는 ‘좋은 엄마’의 모습은 모성 이데올로기를 역순환적으로 내면화한 양상을 띤다. 이들이 생각하는 ‘좋은 엄마’는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의 생활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녀에게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도 진로 선택을 위한 조언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하고, 성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녀를 중심으로 자신의 생활이 구성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자녀의 성장과 교육을 위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자아성취 욕구를 미래로 유보하는 선택을 함으로 갈등을 통해 모성이데올로기를 모순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모성역할 학습의 특징은 다양한 형태의 학습이 중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엄마’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장과정의 경험을 연상하게 된다. 연상된 기억들을 재구성하면서 ‘엄마’들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어머니의 양육방식을 평가한다. 평가한 어머니의 양육방식을 폐기하기도 하고, 자신의 양육

방식에 접목하여 모방하기도 한다. 즉, ‘모성역할’ 학습은 경험학습과 성찰학습의 이중구조적인 학습양식을 보여주며, 모방학습과 폐기학습의 모습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성역할’ 학습은 변증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엄마’들이 수행해야 하는 ‘모성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영·유아의 자녀를 위한 모성역할은 주로 신체적인 돌봄이지만 청소년기의 자녀를 위한 모성역할은 진로에 대한 조언자의 역할, 자녀의 정서적 발달을 도와주는 역할 등 어린이를 키울 때와는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엄마’들은 자녀의 성장에 맞추어 새로운 모성역할을 계속적으로 학습해야 하고, 그것을 자녀 양육에 실천한다. ‘엄마’들의 이전까지의 모성역할의 경험은 새로운 모성역할 학습의 배경이 되면서, 학습자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엄마되기’ 과정은 학습의 순환적인 특징과 모성역할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새로운 모성역할 학습이 추동되는 변증법적인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경력단절을 경험한 중산층 엄마들이 모성역할 학습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녀의 성장발달에 따라 정체성이 변증법적으로 변하며, 역순환적으로 모성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면서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것을 발견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런 발견점을 적용하여 여성주의 학습의 관점에서 중산층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모성, 모성역할,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정체성, 여성주의 학습, 육아, 엄마되기, 모성역할 학습

학 번 : 2006-217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 목적 및 문제	4
3. 연구방법	5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3
1. 시대에 따라 변하는 모성역할	13
2. 한국의 가족주의와 모성 이데올로기	15
3. 여성주의와 평생교육	17
1) ‘여성의 갈등경험’과 평생학습	18
2)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와 평생학습	20
III. ‘엄마’로 성장하기	23
1. 신체적 변화를 겪으며 ‘나’에서 ‘엄마 되기’	23
1) ‘임산부 생활은 행복했었어요’	23
2) ‘정보만 수집했어요’	25
3) ‘석 달은 고생했던 거 같아요’	30
4) ‘신기하고 낯설고’	31
2. 학습 상황, ‘일상이 아닌 일상’	33
1) ‘모유수유가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34
2) ‘잠 못 자는 게 힘들었어요’	40
3) ‘우울증을 겪은 거 같아요’	41

4) ‘왜 나만 고생을 해야 하지?’	42
5) ‘화를 막 폭발적으로 냈어요’	45
3. ‘모성역할’과 ‘나의 욕구’	47
1) ‘직장 맘, 이중으로 더 힘들 것 같아요’	47
2) ‘애기를 낳고 나서는 안되는게 있어요’	54
3) ‘아줌마가 되는 건가’	55
4. ‘엄마’로서의 삶에 의미 찾기	57
1) ‘만족감’, ‘뿌듯함’, ‘성취감’	57
2) ‘내 새끼, 내 피 붙이’	59
3) ‘날 찾는 거, 좋은 느낌’	61
4) ‘제일 엄마다운 모습이 제일 여자다운 모습’	62
5) ‘제 2의 인생을 살거야’	64
5. 소결	66

IV. ‘엄마’에서 ‘좋은 엄마’ 되기 68

1. ‘엄마한테 없던 모습을 더 주고 싶어요’	68
1) ‘어려운 일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심력(心力)과 사회성’ ..	68
2) ‘애들 학교에 열심히 다녀요’	73
3)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요’	76
4) ‘마음이 통할 수 있게 키우고 싶어요’	80
2. ‘우리 엄마처럼만 애를 키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84
1)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요’	84
2) ‘엄마의 교육적 지원은 본받을 거예요’	87
3) ‘제일 친한 친구는 엄마예요’	88
4) ‘신앙 교육을 먼저 할 거예요’	89

3. ‘내 안에 있는 틀을 깬 거지’	91
1) ‘내 성격과 습관 바꾸는 것’	91
2) ‘엄마 감정에 따라 혼내요’	96
3) ‘바이프로덕트(by-product)같은 육아’	97
4) ‘엄마가 된다는 것, 인간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것’ ...	98
4. 소결	100
V. ‘엄마 되기’의 사회·문화적 맥락	102
1. ‘역할 기대감’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102
1) ‘남편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102
2) ‘친구 같은 아빠’	106
3) ‘애기 엄마가 하고 싶은 거를 다하려고 하니’	107
2. ‘모성 이데올로기’와의 갈등	110
1) ‘자녀 교육은 엄마가 관리해야 하는 일’	110
2) “슈퍼 맘”을 원하는게 아닌가?	113
3. 소결	116
VI. 논의	117
1. ‘모성역할’ 학습으로 형성된 정체성	118
2. 모성이데올로기를 강화한 ‘좋은 엄마 상’	122
3. 중산층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평생교육	126
VII. 요약 및 결론	132
1. 요약	132
2. 결론	134

참고문헌 141

Abstract 148

<표 차례>

<표 I -1> 연구 참여자 정보 7
<표 I -2> 구술생애사 인터뷰 질문(윤택림, 2013) 8
<표 I -3> ‘엄마 되기’ 경험에 관한 질문 9
<표 I -4> 생애사 교차분석 틀 11
<표 I -5> ‘엄마되기’ 경험 교차분석 틀 12

I. 서론

1. 문제 제기

우리 사회는 한 여성이 결혼을 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당연히 ‘모성애’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엄마’ 역할을 할 것이라고 통념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엄마가 되는 것을 ‘난장판’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Warner, 2005). 백소영(2009)은 현대 여성들의 ‘모성 경험’에 대해서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제도’가 삶에 공존하는 ‘분열적’인 경험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신과의사인 정우열(2015)은 수많은 엄마들과의 상담 그리고 9개월간의 전업육아의 경험을 통해 ‘엄마 되기’에는 직접 육아를 경험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힘든 정서적 어려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김혜경(2001)은 ‘모성이란 매우 갈등적인 개념이며, 개인으로서의 욕구와 양육적 관계 속의 위치 사이에는 매순간의 선택을 요구하는 경계혼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모성’이라는 개념 안에는 분열적인 속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모성역할은 아이 양육을 위한 기술적인 지식과 더불어 생물학적으로 여성에게 내재된 모성이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노영주(1996)는 ‘엄마 되기’의 경험에 대해 타자의 관점이 아닌 실제 이를 경험한 엄마들의 목소리를 모아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엄마 되기”의 경험은 뚜렷한 조력자가 없는 핵가족 구조에서, 자신을 위한 투자와 기회가 차단된 채로, 일차적 양육자로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인격적 주체로서 최소한의 운신의 폭도 허용하지 않는 지옥 같은 일상이며 동시에 자신이 부정되는 경험’이라는 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엄마 되기’의 과정은 단지 아이를 돌보는 기술적인 측면을 습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회에서 규정하는 성역할로부터 자신의 개별성과 주체성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엄마’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사회 규범으로 내면화된 성 역할과 그 성 역할 이면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손’인 이

데올로기이다(Badinter, 2009; Warner, 2005; 백소영, 2009). ‘엄마’들은 육아를 시작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다. 그 이유는 신생아 돌봄으로 엄마들의 일상생활이 급격하게 변하고, 사회가 엄마들에게 전통적인 성 역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출산 전 직장생활을 하면서 남편과 가사를 분담하고, 가정 경제를 책임졌지만, 출산으로 ‘집안’에만 머무르며, 가족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황에 처한다.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엄마들은 개별적이고 주체적인 생활의 부재를 경험하고 혼란스러워하게 된다. 이런 삶의 맥락적 변화는 사회적 역할 규정의 토대가 되는 모성이데올로기가 엄마의 삶을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차적 양육자가 된 여성들은 ‘엄마’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면서,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엄마’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찾아본다. 엄마들은 서적이거나 미디어, 또는 주변 엄마들을 통해서 ‘엄마’ 역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런 정보나 지식을 통해 자신이 생각했던 ‘엄마’의 이미지와 역할 사이의 간극을 깨닫고 불편함을 느낀다(나윤경, 태희원, 장인자, 2007). 또한, 엄마들은 사교육 시장에서 제공하는 자녀 교육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접하면서 자신의 교육관과 사회에서 엄마들에게 원하는 교육의 간극을 발견하고, 불편함뿐만 아니라 좌절감과 죄책감도 느낀다(정우열, 2015, 파이낸셜뉴스, 2015). 엄마들이 느끼는 이런 불편한 감정들은 사회에서 규정하는 모성역할이 엄마가 된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 그 경험을 구체화하여 형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의 재생산을 위해서 성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김인지, 이숙현, 2005; 나윤경, 2007; 백소영, 2009; 이연정, 1995; Lee,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이 출산한 후 엄마가 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에게 내재되어 있는 본성의 발현이 아니라 모성역할이라는 일종의 사회적 역할을 학습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엄마’로서의 정체성은 사회적 역할인 모성역할을 학습하면서 형성된다. 이때 엄마들은 사회에서 규정하는 모성역할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모종의 학습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규정한 모성역할을 수행한다. 그 학습의 과정은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기술적 내용이나 자녀 양육으로 얻게 되는 뿌듯함 혹은 만족감 같은 긍정적인 요소 외에도 ‘나’의 개별성과 모성역할 사이의 갈등, 주변인과의 관계변화, 사회·문화적으로 제시되는 이상적인 ‘엄마 상(像)’과 ‘나’의 갈등 등으로 구성된다. 엄마들은 다층적으로 경험하는 갈등으로 혼란을 느끼며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본 연구는 엄마들이 모성역할을 학습하면서 경험하는 갈등으로 인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학습의 관점으로 포착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엄마들 삶에 모성이데올로기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모성역할 학습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양상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중산층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승희(2006)가 제시한 ‘학습생활(learning life)’은 학습활동들의 관계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개념으로 학습자가 학습할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고, 가공, 습득, 활용하여 자신의 존재적, 사회적 의미를 재생산하는지 그 과정을 담고자 하는 개념이다. ‘엄마 되기’는 모성역할을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엄마’로서 ‘나’의 존재적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출산 후 경험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종의 기준을 가지고 ‘엄마’역할에 도움이 될 만한 자신의 삶의 경험을 선별할 것이고, 선별된 경험들을 가공, 활용하여 재구성함으로써 ‘엄마’라는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할 것이다. 그리고 엄마들은 사회·문화와 상호작용하며 자신들의 관점에서 모성역할을 재규정하기 때문에 사회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에서 규정한 모성역할을 수행하면서 엄마들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에게 맞는 모성역할을 재규정할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엄마 되기’는 학습생활의 양상을 보여주는 학습과정으로 탐구할 수 있다.

또한,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학습의 연속들로

이루어져있으며,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학습의 관점으로 재구조화하여 이론화하는 작업이 평생교육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중요하다(강대중, 2009; 한승희, 2006). 따라서 여성의 생애 주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의 ‘엄마 되기’는 새로운 정체성 형성과 역할 학습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학습의 관점으로 재조명 할 수 있고, 이는 평생 학습의 모습을 담고 있다.

2. 연구 목적 및 문제

엄마가 된 후 경험하는 일련의 사건이나 에피소드를 통해 ‘엄마’이기 이전의 ‘나’의 존재에 대한 규정을 다시하게 되는데, 이때 과거 나의 경험을 돌아보게 된다. 과거에 내가 받았던 교육, 부모와 나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태도, 성인이 된 이후 경험했던 성역할과 같은 경험들을 재구성함으로써 모성역할의 수행 방식이나 태도를 결정하고(Lee, 2008),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또한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엄마, 바람직한 엄마의 모습과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엄마의 모습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때 겪게 되는 갈등을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수행할 ‘모성역할’을 새롭게 규정하면서, 스스로 ‘좋은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을 탐구하게 된다. 다시 말해 ‘엄마 되기’의 과정은 일종의 새로운 ‘나’를 형성해가는 과정으로서 그 과정 안에는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경험한 ‘엄마’의 이미지 및 사회·문화적으로 담론화 된 ‘엄마 상(像)’과 실제 엄마들이 의미화 하는 ‘좋은 엄마 상(像)’ 간의 갈등, 모성 이데올로기와 ‘나’의 주체적 개별성 간의 간극과 같은 요소들이 얽혀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일련의 갈등 해소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험의 성장과정을 ‘학습’의 프레임으로 포착함으로써 ‘엄마 되기’는 사회적 역할을 답습하는 과정이 아니라 엄마가 주체적으로 역할을 탐구하는 과정이며,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적 의미를 재구성하는 엄마의 ‘학습생활(learning life)’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갈등을 경험하면서 형성된 연구 참여자들의 정체성 형성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것을 여성주의 학습 및 여성 성인교육과 관련지어 논의함으로써 중산층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평생교육에 대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출산 후 여성들은 ‘엄마’로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그런 경험들 중에서 ‘모성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엄마’들은 어떤 경험을 새롭게 체화하는가?

둘째, ‘모성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엄마’가 직면하는 갈등은 무엇이며, 갈등의 양상은 어떠한가? 이 갈등은 ‘모성역할’ 학습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셋째,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3. 연구방법

평생교육에서 논의되고 있는 학습은 학습자의 경험을 맥락 의존적으로 재구성하는 주체적 과정이다(한승희, 1999). 맥락 의존적이라는 것은 거시적인 의미에서는 전경에 들어난 학습자 삶의 경험 뒤에 깔려있는 사회·문화적 전제들로 이해할 수 있으며, 미시적인 의미에서는 학습자가 해석하지 않았던 자신의 삶,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엄마 되기’의 과정인 모성역할을 평생학습의 관점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된 학습자의 삶 전체와 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인 전제들을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여성이 결혼하여 출산을 하고 아기를 낳아 기르는 ‘엄마 되기’

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산 후의 삶을 분절적으로 잘라서 들여다보기 보다는 엄마 삶의 어떤 경험들이 선별되어 재구성되고, 해석되어 ‘엄마’라는 정체성 확립에 영향을 주는지 밝히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엄마가 되는 과정은 한 여성의 인생의 활동, 사건, 이야기들을 등에 업고 시작한다. 자신이 받았던 제도권의 교육, 가정교육, 부모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사회생활의 경험, 연애의 경험 등 삶의 단계를 만드는 생활들이 엮여 ‘엄마’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드는 것이다. 연구자가 학습자의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엄마 되기’의 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엄마 되기’의 과정을 경험한 여성들의 생애사를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애사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의 한 분야로서, 제보자 삶의 공간적인 전 영역과 시간적인 성장발달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방법이다. 따라서 생애사 연구방법은 평생교육학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학습자 경험의 선 순환적 재구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강대중, 2009). 연구자는 엄마들이 모성역할을 학습할 때 자신의 성장과정의 경험들 중에서 어떤 경험을 선별하고 의미화 하여 모성역할 학습에 어떤 방식으로 접목시켰는지 알기 위해 생애사적인 관점에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총 8명이며, 각 사람당 최소 2시간씩 1회에서 2회 면담을 하였다. 면담기간은 2014년 7월 2일부터 2014년 10월 8일까지 진행되었다. 심층면담의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집이나 집 근처 커피숍에서 이루어졌다. 심층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김진희, 장은정과 함께 카페에서 사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사전 인터뷰로 연구 참여자들의 성장과정 이야기와 현재 ‘엄마’로서의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체화해야 하는 질문영역을 발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가 잘 알고 있는 지인이나 연구자 자녀의 친구 엄마들 위주로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최소 1년 이상 연구자와 친분이 있어 라포가 이미 형성된 사람들로 구성하였다. ‘엄마

되기'의 과정은 엄마가 된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사회적 계층이나 연령, 자녀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신의 생애사를 연구자에게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제보자를 선택하였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게 1970년대에서 80년대 태생의 엄마들이었고, 자녀들도 두 명의 연구 참여자를 제외하고는 미취학 아동들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특징은 출산 전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출산 후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퇴사하거나 장기간의 육아휴직을 갖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점이다. 이들이 이렇게 직장인으로서의 위치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외벌이 수입으로도 가정이 유지될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경제적 자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름 (가명)	인터뷰날짜	나이	학력	자녀 (나이)	현직업 (전직업)	남편 직업
김진희	2014년 9월24일	33세	대졸	딸(4세)	주부 (음악가)	은행원
박선영	2014년 7월2일 2014년 7월9일	30세	대졸	아들 (3세, 1세)	주부 (회사원)	은행원
서민정	2014년 9월29일	38세	초대졸	아들(14세) 딸(11세)	서비스업 파트타임 (회사원)	공무원
조희주	2014년 9월26일	36세	대학원졸	딸(6세) 아들(3세,1세)	대학원생 (대학원생)	대기업
장은정	2014년 10월2일	43세	대졸	아들(3세)	주부 (사업/셰프)	대기업
최현선	2014년 10월3일	34세	대학원졸	딸 (5세, 3세)	군무원휴직 (군무원)	셰프
이주선	2014년 10월8일	38세	대학원졸	아들(11세) 딸(9세)	주부 (연구원)	의사
서수현	2014년 7월5일	36세	대졸	딸(6세)	대기업	사업

	2014년 7월10일			아들(4세)	사무직 파트타임 (카피라이터)	
--	-------------	--	--	--------	------------------------	--

<표 I -1> 연구 참여자 정보

질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한 부분은 생애사를 알기 위한 질문이고, 다른 한 부분은 ‘엄마 되기’ 경험에 관한 질문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생애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윤택림(2013)이 구술생애사의 인터뷰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시한 질문의 틀을 따랐다. 질문은 총 7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출생 시의 상황, 가정교육과 제도권 교육을 알고자 하는 사회화 과정, 최초의 직업과 직업의 변천사를 알고자 하는 직업 영역, 연애부터 결혼 과정 그리고 임신과 출산의 내용을 질문하는 결혼 영역, 부모-자식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육아, 취미 및 레저에 관한 가족생활 영역이다. 마지막의 두 가지 영역은 연구자가 본 연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수정하여 질문하였다.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의 ‘엄마’들의 미래에 관한 계획을 알기 위한 미래계획 영역과 자신의 성장과정을 요약해 달라는 질문을 하였다.

	항목	세부질문
1	출생 시의 상황	출생년도, 거주기, 가족관계
2	사회화 과정	유년기, 청소년기의 가정교육 및 제도권교육, 지역사회교육, 학교교육
3	직업	최초의 직업과 직장에서 시작하여 직업 변화과정
4	결혼	연애, 중매여부, 결혼동기, 절차, 결혼생활 내용, 임신과 출산
5	가족생활	부모-자식관계, 친족관계, 육아와 자녀교육, 가사노동, 레저, 취미

6	미래계획	윤택림의 질문에는 중년, 노년의 삶에 대한 질문이지만 연구자가 임의로 미래 계획에 대한 질문으로 대체함
7	구술자의 자신의 성장과정에 대한 요약(연구자가 수정)	

<표 I -2> 구술생애사 인터뷰 질문(윤택림, 2013)

그리고 ‘엄마 되기’ 경험에 관한 질문은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엄마가 된 나’의 영역으로, 되고자 했던 엄마의 모습, 자신이 생각하는 ‘엄마’로서 ‘나’의 모습, 주변사람들이 바라보는 엄마인 ‘나’의 모습과 같이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엄마인 나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영역은 ‘역할’ 수행에 관한 영역으로 ‘나’, ‘엄마’, ‘아내’의 세 역할 수행에 관한 질문들을 하였다. 세 번째 영역은 사회와 엄마의 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사회에서 제시하는 ‘모성’의 이미지와 실제로 엄마들이 경험하는 ‘모성’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엄마로서의 경험을 몇 문장으로 요약해 달라는 질문을 하였다.

	항목	세부질문
1	‘엄마’가 된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이 되고자 했던 엄마는 어떤 모습인가 -현재 자신이 생각하는 ‘엄마’로서 자신의 모습 -엄마로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엄마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육아를 하면서 행복할 때 -육아를 하면서 힘들 때

2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엄마역할, 아내역할은 무엇인가 -엄마, 아내, 나 의 우선순위는 그리고 이유 -전업주부를 선택한 이유 -직장을 계속 다니는 이유 -역할 갈등에 관한 경험 - '나'의 욕구와 '엄마'역할이 상충될 때
3	사회와 엄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가 원하는 엄마의 모습 -사회가 원하는 엄마의 모습에 대한 의견 -사회가 원하는 인재 상 -사회가 원하는 인재 상에 대한 의견
4	자신의 엄마 경험을 간단하게 요약	

<표 I -3> '엄마 되기' 경험에 관한 질문

심층면담을 한 이후 전사를 하고, 전사한 내용을 읽으면서 우선적으로 연구 참여자의 생애시기별로 묶어 연역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별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와 같이 생애시기별로 자료를 분류하고, 분류된 각각의 생애시기에서 개념어를 선택하고, 개념어들을 모아 하위범주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모아 제목을 달았다. 이 과정에서 연구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따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생애시기별로 연구 참여자들의 자료를 모두 합하여 하나의 자료를 만들었다. 예를 들면 유아기에 관한 모든 연구 참여자들의 자료를 모아 '유아기' 파일을 만들어 자료를 다시 분석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유아기, 초등학교시기, 중학교 시기, 고등학교 시기, 대학교 시기, 직장생활, 결혼, 임신과 출산의 원자료 파일을 만들어 자료를 분석하였다.

참여자 1	참여자 2	……	참여자 7	참여자 8	
유아기	유아기	……	유아기	유아기	유아기파일
초등학교	초등학교	……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파일
중학교	중학교	……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파일
고등학교	고등학교	……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파일
대학교	대학교	……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파일
직장생활	직장생활	……	직장생활	직장생활	직장생활파일
연애·결혼	연애·결혼	……	연애·결혼	연애·결혼	연애·결혼파일
임신·출산	임신·출산	……	임신·출산	임신·출산	임신·출산파일

<표 I - 4> 생애사 교차 분석 틀

‘엄마’ 경험에 관한 질문도 위와 비슷한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 별로 원자료에서 개념어를 선택, 하위범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모아 제목을 달았다. 그리고 다시 연구 참여자별로 출산전, 임신과 출산, 신생아 및 영아기,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갈등경험, 좋은 엄마의 하위범주로 자료를 구분하고, 각 하위범주별로 연구 참여자들의 원자료를 모아 각각의 파일을 만들어 분석하였다. 각 파일의 내용을 분석한 후, 생애사 자료에서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원자료를 파일에 붙여 분석하는데 필요한 삶의 맥락으로 인식하며 분석한 내용을 해석하였다.

분석한 내용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명의 연구 참여자 확인을 거쳐, 연구 자료의 분석, 해석, 결론에 대한 신빙성과 타당성을 검증 받았다.

참여자 1	참여자 2	………	참여자 7	참여자 8	
출산전	출산전	………	출산전	출산전	출산전 파일
임신과 출산	임신과 출산	………	임신과 출산	임신과 출산	임신과 출산 파일
신생아 및 영아기	신생아 및 영아기	………	신생아 및 영아기	신생아 및 영아기	신생아 및 영아기 파일
유치원	유치원	………	유치원	유치원	유치원 파일
초등학교	초등학교	………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파일
중학생	중학생	………	중학생	중학생	중학생 파일
갈등경험	갈등경험	………	갈등경험	갈등경험	갈등경험 파일
좋은엄마	좋은엄마	………	좋은엄마	좋은엄마	좋은엄마 파일

<표 I - 5> ‘엄마되기’ 경험 교차 분석 틀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시대에 따라 변하는 모성역할

모성에 대한 연구는 여성학, 사회학, 가족학, 교육학, 간호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과학적 학문의 특성상 이들 학문은 사회적인 맥락에서 모성역할을 포착하며, 간호학에서는 출산 후 여성이 직면하는 초기 모성역할을 연구하여 출산 모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여성이 모종의 학습을 통해 모성역할을 규정하고, 수행하면서 ‘엄마’가 되어간다는 가정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평생교육에서 논의되는 학습의 맥락성을 고려하여, 사회·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논의되는 ‘모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모성에 대한 연구는 모성에 대한 개념적인 탐구(이연정, 1995; 김현우, 1997; 이정자, 2000; 김세서리아, 2009)와 함께 ‘어머니됨(motherhood)’, ‘어머니 노릇(mothering)과 같이 정체성에 관한 연구(노영주, 1996, 2000; 박혜경, 2009; 이은아, 2013), 모성역할에 관한 연구(Lee, 2008; 나윤경, 2007; 박은혜, 2014; 이재경, 2004; 윤택림, 1996; 한지원, 2005; 홍석준, 성정현, 2011)가 있다.

먼저, 김현우(1997)는 모성의 개념을 ‘여성의 생물학적인 측면과, 자녀를 양육 또는 보살피는 사회 기능적인 측면, 여성적 가치 측면에서 구성되는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밝힌다. 본 연구에서는 모성의 개념을 사회기능적 측면과 여성적 가치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다. 그 이유는 엄마가 된 여성들의 내러티브를 분석한 연구들에서 엄마들 각자의 모성 인식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모성의 경험을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행위로 인식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모종의 행동 양식과 자신이 스스로 정의하는 모성의 의미 사이의 괴리 그리고 정체성의 변화로 모성의 개념을 서술한다(노영주, 2000; 신경아, 1997; 임해영, 이혁구, 2014; 윤택림, 1996). 이정자(2000)는 ‘모성역할’의 개념을 “여성이 어머니(모

성)로서 자식을 출산하여 양육하는 생의 단계에서 기대되고, 사회·문화·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학습된 모성특성을 가진 행위양상”이라고 정의한다. 신경아(1997)는 ‘엄마’가 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모성경험을 탐구하였고, ‘여성들이 전통적인 규범이나, 사회적 관념과 관습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일상적인 경험에 비추어 모성개념을 수정하는’ 모성 개념의 유동적인 특징을 포착하였다.

모성역할은 사회·문화·환경적 맥락에서 사회가 여성들에게 부여하는 ‘엄마’로서의 책임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화의 변화에 발맞추어 자녀를 위해 엄마가 행해야하는 역할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Lee(2008)의 연구는 한국사회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엄마들이 인식하는 모성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잘 보여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1920년-1940년대 태생, 1950년-1960년대 태생, 1970년대 태생의 엄마들은 한국 사회의 모성역할을 각기 다르게 인식하고 수행한다. 1920년-1940년대 한국이 빈곤했던 시절에 태어나 한국전쟁시기를 전후로 모성을 경험한 엄마들은 기본적인 의·식·주와 더불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을 모성역할로 인식하였다. 1950년-1960년대 태생으로 한국 사회의 경제성장 시기에 자녀를 양육한 엄마들은 자녀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과 부모와의 애착 형성 그리고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을 모성역할로 인식하였다. 1970년대 태생의 ‘엄마’들은 물질적인 부유함과 현대적 남녀평등의 교육을 누리며 자란 세대로 자녀의 자율성과 주도성, 독립심을 키워주는 것을 모성역할로 인식하고 자녀와 자신을 별개로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엄마들의 이런 모성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90년대 모성의 특징을 밝힌 신경아(1997) 연구의 엄마들의 ‘자아찾기’와 일맥상통한다.

2000년대에 아동학, 가족학, 여성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모성 정체성이나, 모성역할 연구는 1960년-1970년대 초반 태생의 ‘엄마’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이 연구들은 경쟁적인 교육문화로 인한 사교육 시장의 확대로 자녀의 교육문제가 여러 모성역할

중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자녀 교육문제를 통해 모성의 정체성 형성이나 모성역할 수행 양식을 들여다본다. 이들이 모성을 경험하는 2000년대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하고, 사회적 양육을 지원하면서도 특히 자녀 교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엄마’에게 부여하는 모순성을 가지고 있다(김진영, 2003). 이런 모순성 때문에 ‘엄마’들은 암묵적으로 강요되는 모성과 자신이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모성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고(나윤경, 2007), 자녀 교육을 모성역할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전업 어머니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한다(박혜경, 2009). 이런 현상은 전업주부들이 모성역할과 자아의식 간에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의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자녀를 통해 자아를 대리 성취하고자 하는 문제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

2. 한국의 가족주의와 모성 이데올로기

한국사회가 엄마들에게 요구하는 모성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성 이데올로기와 가족주의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인식되는 모성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다. 여기서 ‘가족을 위한’다는 것은 ‘가족’을 위해 여성의 주체성이나 개별성을 자의든, 타의든 포기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한국 사회의 가족주의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연정(1995)은 모성 이데올로기를 ‘여성의 위치는 가정이며 가정에서 여성의 책임은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모성 이데올로기는 젠더의 정치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개념으로 남성 관점의 접근인지 아니면 여성 관점의 접근인지에 따라 그 논의의 흐름이 달라진다. 모성 개념 형성의 시초는 남성들의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루소의 저서 ‘에밀’에 나타나는 18세기의 아동관과 여성관은 현대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성론의 배경이 되었다

(Beck-Gernsheim, 2014). 루소는 아동은 백지와 같은 상태여서 어떻게 양육되는가에 따라 발달이 현저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동의 양육을 기획하여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발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루소가 밝히는 여성관은 남편의 일부가 되어 남편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임을 깨닫는 것이 여성의 덕목으로, ‘자기 자신 됨’의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심리학의 발전으로 19세기에는 프로이트의 담론에 의해서 남성중심의 모성론이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Badinter, 2009; Beck-Gernsheim, 2014). 20세기에 접어들어 도시화와 핵가족화가 일어나고 표면적인 양성평등이 받아들여지면서 ‘엄마’는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가사노동과 자녀의 교육을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가 되었으며(나윤경, 태희원, 장인자, 2007; 노영주, 1996; 박혜경, 2009), 동시에 사회적인 위치를 남성과 같은 수준에서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여성의 관점에서 논의되는 모성 이데올로기는 사적 영역과 공적영역을 이원화시켜, 성 역할을 고착화시키며, 재생산해 가부장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여성을 도구화하는 기제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 모성론은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가정과 노동집단이 분리되면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노동력과 가정의 분리로 인해 가정은 철저히 사적인 공간이 되고, 남성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가정 밖’의 생산집단에 노동력을 제공하며 가족 부양자로서의 위치를 얻게 된다. 반면에 여성은 철저하게 사적인 공간에 머물게 되며, 자신의 ‘목소리’를 잃고, 암묵적으로 가족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한다(신경아, 1997; 이연정, 1995).

위의 논의들에 더하여, 한국 사회에서 모성 이데올로기에 더해지는 요소는 가족주의에 바탕을 둔 자녀 교육의 문제이다. 현대사회로 진입하면서 가족의 단위는 핵가족으로 변화였고, 중산계층이 사회를 지탱하는 뼈대와 같은 계급으로 자리매김을 한다. 중산계층은 자신의 계급 유지 또는 계급상승을 위해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

작했다. 자녀 교육의 중요성이 극대화되어 “한국사회의 교육열과 학력주의는 어머니의 돌봄과 자녀 교육의 문제를 결부시켜, 어머니와 자녀간의 친밀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가족을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게만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보살핌과 정서적인 지원의 강조는 여성의 자아실현을 방해하며, 모성과 여성의 자아실현은 공존할 수 없는 대립과 갈등의 구도속에 놓이게 된다(김세서리아, 2009).”

요즘은 ‘엄마’라는 단어 앞에 다양한 수사들이 붙는데 그것이 모성 이데올로기에 가족주의적인 측면이 자녀교육을 매개로 얽여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타이거 맘(Tiger mom)’, ‘헬리콥터 맘(helicopter mom)’, ‘매니저 엄마’ 등 교육자로서의 엄마, 아이의 주변을 맴도는 엄마, 아이 시간 관리를 하는 엄마 등 자녀 교육을 위해 아이와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엄마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녀와 엄마와의 친밀감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들이다. 이런 현대 한국 사회의 모성 이데올로기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광고나 TV프로그램과 같은 대중 매체에서 등장하는 ‘모성’에 대한 표상화인데, 천현수, 마정미(2013)는 ‘어머니’를 그리고 있는 수백편의 광고를 분석한 결과 현대 한국 사회의 모성은 자녀의 교육이나 가족들의 정서적 안녕을 위해 ‘집안’에 머물러 있으며 그것이 행복한 삶을 그리고 있다고 보고한다.

연구자는 여성주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는 모성론의 입장을 취하며,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논의된 모성과 자녀 교육 결합의 측면에서 논의되는 모성 이데올로기가 ‘엄마 되기’과정에서 ‘엄마’들이 경험하는 갈등의 배경이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3. 여성주의와 평생교육

여성주의(feminism)는 ‘인류 보편을 위한 경계 허물기의 관점이며, 다양한 모든 층위에서 발생하는 타자 배제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으로

진정한 인간학적 성찰을 지향하는 인식이며’(곽삼근, 2008)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에 있는 타자성을 발견하는 관점이다(정희진, 2005). 성차별로 억압받던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인 참정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된 여성주의는 여성이 처한 사회·문화적 현실을 인식하고 남성의 억압에서 해방되기 위한 이론적이면서도 실천적인 세계관이다. 더 확장된 의미에서는 ‘사회의 비주류 집단을 배려하며, 주류 집단과 비주류 집단의 협상, 생존, 공존을 위한 운동이다(정희진, 2005).’ 사회를 주류—비주류로 이분화하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사회의 변혁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여성주의는 평생교육이 이끌어내는 교육의 변혁과 동질적인 철학적 맥락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평생교육의 ‘씨앗’이 된 성인교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교육에서 소외된 계층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실천되었다. 성인교육의 사회 진보적 경향과 민주적 지향성은 민중교육의 대표적 성인교육자인 파울로 프레이리의 ‘의식화’ 교육에서 찾아볼 수 있다(한송희, 2009). 프레이리의 의식화(conscientization) 교육은 “지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이 그들의 삶을 유형 짓는 사회·문화적 현실을 인식하고, 그 현실에 대해 행위함으로써 현실을 개혁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심오한 자각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Freire, 1972; 고희준, 유성상, 2011 재인용). 이렇게 현실 개혁 능력을 도모하는 성인교육에 뿌리를 둔 평생교육의 논의는 기존의 교육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야기했다. 교수자 중심의 관점에서 학습자 중심의 관점으로의 변화와 제도권 중심 교육체계를 제도권 밖의 교육체계의 확장을 가져왔으며, 기획되고 통제되는 교육과정에서 인간 학습의 생태적 특성의 발견으로 교육의 의미를 확장 하였다. 따라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갈등을 평생교육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점과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관점에서 모성역할 학습을 이해할 수 있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1) ‘여성의 갈등경험’과 평생학습

연효숙(2001)의 한국 근·현대 여성들이 경험하는 갈등과 여성 주체성에 대한 논문에서 여성들의 갈등 경험을 유교와 근대화의 맥락에서 설명하였다. 이 논문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여성들이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맥락은 한국 사회의 근저가 되는 유교적 문화이다. 유교적 문화로 인해서 여성이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성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주변인으로 타자화 되어 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갈등을 경험한다. 남녀가 평등하다는 전제로 출발하는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삶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 분열적이고 중층적인 갈등상황을 자주 직면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근대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핵가족화는 남성, 아버지를 ‘집밖’으로 내몰면서 사적 영역에서는 부재하고, 여성, 어머니를 ‘집안’에만 가두면서 공적영역에서는 부재하지만 ‘모자 중심의 핵가족’을 이루어 모성 이데올로기로 더 견고해지는 모성의 역할을 가부장제가 지키고 있는 형태라고 논증한다.

여성의 갈등 경험은 시대, 문화에 따른 아동 이미지의 변화로 인해 ‘자녀의 복지냐, 어머니의 권리냐’라는 이분법의 강요에 기인한다(이연정, 1995). 엄마의 삶을 이야기할 때 주체적으로 한 여성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기 보다는 자녀 복지를 중심으로 자녀를 위해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는 관점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다. 또한, 정희진(2005)은 “어머니는 특권화 된 주체·노동·존재·경험·역할이면서 동시에 탈특권화 된(특권을 박탈당한) 장소”라고 존재의 특성을 밝히면서, 어머니 존재가 지니는 다중성, 복잡성, 모순성에 의해서 모성역할을 감당하는 여성들이 갈등과 분열을 경험한다고 분석하였다.

근대화로 인해 견고해진 가부장제와 핵가족은 엄마가 된 여성들의 갈등 경험을 증폭시키고, 이런 갈등 경험은 학습의 동기로 작용한다. 삶의 위기 상황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 및 존재 부정의 경험, 인간관계 간의 균열, 사회적 갈등의 문제 등은 삶의 근간을 흔들고, 이런 경험을 하는 주체는 삶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학습을 하게 된다(양은아, 2009). 엄마들은 모성역할을 수행하면서 분열적이고

중층적인 갈등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이 경험은 ‘엄마’이기 이전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론적인 질문을 갖게 하면서, 모성역할을 고민하게 만든다. 엄마들은 이런 질문과 고민을 안은 채로 모성역할을 학습하면서 ‘나’에 대한 존재적 의미와 모성역할을 정립해 나아간다.

2)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와 평생학습

페미니스트 페다고지(feminist pedagogy)는 여성주의를 기본 철학으로 하여 ‘양성의 평등과 공존을 도모하는 교육적 실천 철학’이다(나운경, 2007). 이것은 근대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탈피하여 교육을 통하여 성 평등을 실현하고 여성 학습자 개개인을 권력화(empowerment)하고, 행동적, 심리적 변화로 여성을 해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는 여성 억압의 현상을 밝히기 위해 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여성의 구체적인 억압과 소외 경험에서 출발하며, 남녀평등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곽삼근, 2005; 나운경, 2007).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는 여성의 생애주기별에 따른 여성의 갈등경험을 분석하고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교육적 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부부간의 갈등 및 자아정체성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과제로는 “배려하는 가정생활 실천, 타자 배제 극복 및 일터에서의 배려문화 의식교육”을 제시한다(곽삼근, 2008). 송현주(1999)는 모성을 중심으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새로운 페러다임을 모색하였는데,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다름’을 재조명하여 모성이 가지고 있는 ‘지지’, ‘관계성’, ‘보살핌’에 힘을 실어 가부장적 사회에서 모성의 정의를 재정립하는 여성주의 학습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여성주의 학습의 장을 평생교육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적인 여성의 모성 경험을 평생학습을 통해 공론화 하면서 여성들이 서로를 지지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핵심

목적인 ‘여성의 힘 갖추기(empowerment)’를 실행하는 것이다. 평생교육을 통해 여성주의 학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고학력 엄마들을 위한 특화된 직업·기술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엄마들 간의 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 함양교육과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여성 시민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교육을 통해 여성들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성 평등적이며 탈이분법적인 문화와 가치를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김규옥, 2006).

여성주의 시각으로 모성 경험에 대하여 평생학습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시도한 학자는 신미식과 나운경이다. 나운경(2007, 2011, 2014)은 연구에서 모성과 자녀 사교육의 문제를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어떻게 인식할 것이며, 어떤 지점에서 평생교육과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한다. 한국 사회의 모성은 모성이테올로기와 가부장적인 가족체제로 인해 엄마에게 자녀의 교육을 권리로 포장하여 의무화 시키는 남성 중심적인 체제 안에 간혀있다고 주장하며, 여성의 주체성을 찾기 위해, 사교육에 매진하는 엄마들의 ‘행위자성’을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삶의 주체성을 포기하고 자녀를 위한 보조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엄마들이지만, 그 안의 경험들을 재구성하면서 주체적인 자신의 모습을 확립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특히, 모성을 수행하면서 여성들이 겪는 ‘불연속적이며 단절적이기도 한 생애주기에 대한 이해의 틀이 평생교육학 안에서 필요’함을 밝힌다. 지금까지의 평생교육학의 논의는 남성 학습자 중심으로 되어왔기 때문에 이들과 다른 여성 학습자들의 생애사적 경험, 자녀교육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모성에 대해서 여성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성인학습자를 이해하는 주된 이론은 Knowles(2005)의 안드라고지 개념이다. 성인학습자는 ‘능동적이고, 자기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존재로 묘사된다. 하지만 Knowles의 정의는 성인학습자에 포함되어 있는 여성학습자들의 관계적이고 의존적인 성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정

민승, 2005). 여성 학습자들의 특징은 Knowles가 주장한 것처럼 자율적인 측면보다는 관계적인 성향이 강하다. 여성의 ‘관계적(relational)’인 성향은 자기주도로 일어나는 학습보다는 학습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방식을 취한다. 또한 여성 학습자들의 ‘상황적(situational)’인 성향은 학습이 일어나는 상황의 맥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MacKeracher, 2004). 여성의 이런 관계적인 성향은 Gilligan(1982)의 저서 “다른 목소리로”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여성들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이 상충할 때 관계적으로 상황을 인식하는 성향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이기적’이라고 치부하며,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을 배려한다(Staal, 정희진 역, 2015). ‘엄마’들은 ‘희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자신의 욕구를 소홀히 하고 가족과 자녀를 위해 ‘뒷바라지’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와 책임으로 인식한다. ‘엄마’들의 이런 모성역할 인식은 그것을 학습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어 ‘엄마’로서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모성역할의 의미를 재정립하기 보다는 모성 이데올로기로 짜여진 환경의 맥락에서 자녀와 가족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관점으로 모성역할의 의미를 재정립한다.

III. ‘엄마’로 성장하기

이번 장에서는 ‘엄마’가 되는 과정을 임신부터 초기 양육기¹⁾까지 엄마들이 경험하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시간적인 순서대로 배열하면서 ‘모성역할’의 현상을 포착할 것이다. 모성역할의 현상을 포착하여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학습의 양상을 발견하고, 그것이 ‘엄마 되기’ 과정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1. 신체적 변화를 겪으며 ‘나’에서 ‘엄마 되기’

결혼 후, 몇 년간의 신혼생활을 즐긴 후 계획 임신을 하거나,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되거나, 약혼기간에 임신을 하거나, 임신에 대한 반응은 제 각각 다르다. 하지만 10개월의 임신기간과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리는 출산은 ‘엄마’라면 대부분 경험하는 통과 의례다.

엄마의 삶에 있어서 임신과 출산은 모성역할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신체 변화와 태아의 발달에 초점을 맞춰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학습을 시작한다. ‘엄마’가 되기 위한 일종의 첫 번째 관문인 임신과 출산의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엄마’라는 새로운 역할을 수용하기 보다는 ‘나’의 개별성에 초점을 맞추며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다.

1) ‘임산부 생활은 행복했었어요’

연구 참여자들의 임신 경험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결혼 후

1)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양육의 단계를 초기 양육기, 중기 양육기, 후기 양육기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초기 양육기는 신생아부터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에 다니기 전인 3세까지의 기간을, 중기 양육기는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같은 기관에 입학하여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를, 후기 양육기는 중·고등학교시기로 구분한다. 초기와 중기의 구분은 부모와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기관에서 교육이나 보육을 받는가로 구분하였고, 중기와 후기는 사춘기를 겪는 평균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계획 임신을 한 김진희, 박선영, 장은정, 이주선, 조희주는 임신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엄마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 한껏 들뜬다. 이들은 주변의 축복을 받으며 남편과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절로 추억한다. 특히 박선영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직 내 앞 가림도 못하는 애가” 엄마가 되어 누군가 책임을 진다는 것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 했다. 이런 이유로 결혼 3년 후 남편과 “놀만큼 놀아서 이제 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자 임신을 결정한다.

<1>

이제 진짜 애기를 가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주변에서 막 여러 사람들이 애기를 낳으려고 하고 있었고 하니까 이때가 딱 좋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애기가 없었다가 가지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유산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생겼으니까 그래서 임신 기간이 너무 행복했었던 거 같아. 진짜 병원 갈 때 마다 울고 오고, 지금 둘째인데 병원 안간지 두 달 넘었고, 그냥 막 행복한 것만, 입덧도 초반에 심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입덧하니까 울면서 기도는 하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너무 행복하고 그랬던 거. 그거는 아마 내가 오빠랑 놀만큼 놀아서 이제 할 게 없다. 이제 정말 애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어서 그랬던 거 같아. (박선영)

<2>

임신이 됐을 때 되게 기뻐지. 기다리고 해서. 임신 했을 때 주변의 친구들이 나보다 더 빠른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나도 빨리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때 딱 돼서 되게 기뻐고, 임신부 생활은 정말 행복했었어요. 첫째 임신했을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조희주)

서민정과 최현선은 임신을 한 후에 결혼을 한다. 서수현은 결혼한 지 한 달 반 만에 임신을 한다. 이들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임신 사실을 발견한 후에 많이 ‘깜깜해’지며 당황해한다. 임신 소식을 들은 후 행복하거나 기뻐하기 보다는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걱정과 가정을 세우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며, 감정적으로 불안한 시기를 보낸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부모의 허락아래 결혼을 결정한 후에는 이들 역시 새로운 생명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엄마’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3>

저는 결혼하고 한 달 반인가 만에 생겨가지고 그때 어우...그때는 진짜 깜깜하다고 그래야 되나. 나는 일을 더 해야 되는데, 어 난 회사를 다녀야 하는데, 돈을 더 빨리 모아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남편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어떻게 하지 그랬어요. (서수현)

<4>

임신 소식에 완전 울었지. 나는 또 알다시피 우리 지금 신랑이 첫 남자였어. 그 전까지 남자를 많이 사귀어 본 적도 없었고. (서민정)

임신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반응은 기쁨, 행복함 같은 긍정적 감정과 걱정, 근심, 두려움 같은 부정적 반응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생겼던 변화는 임신을 통해 ‘엄마’라는 새 역할을 인지했다는 점이다. 자신을 ‘엄마’로 인식하고, 신체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몸 안에 있는 태아에게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하였다.

2) ‘정보만 수집했어요’

임신 기간은 ‘엄마’가 되고 있음을 신체변화를 통해 인식하는 기간이다. 10개월의 임신 기간은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되는데, 초기에는 임신부가 입덧을 경험하며,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다. 냄새에 민감해 지거나, 먹고 싶은 음식을 꼭 먹어야만 속이 편안해진다면

지, 몸이 나른해지거나 쉽게 피곤해지는 육체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중기에는 몸이 변화에 적응하여 안정되는 시기로 임신부 역시 ‘임신한 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태교에 힘쓰며, 자신과 태아의 안녕을 위해 노력한다. 임신 후기에는 출산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로 연구 참여자들은 출산 물품을 준비하고, 안전하고 고통이 경감되는 분만을 위한 호흡법 등을 배우며, 출산과 돌봄을 현실적인 차원에서 준비한다.

(1) ‘아.....어떻게 키우지’

임신을 하고나서 연구 참여자들은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라는 고민을 가장 먼저 한다. 이런 고민은 모성역할 학습의 동기로 작용해, 서적, 강의, 선배 엄마의 조언 등을 통해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방법 등을 학습 한다. 아이를 돌보는 것의 주책임은 엄마의 몫이라는 모성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 남편에게 도움을 받으며 ‘부부’로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엄마’로서 어떻게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한다.

<5>

아...어떻게 키우지 어떻게 낳고 그리고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나중에 10달을 채우고 낳잖아요. 얼마나 아플까 그 생각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애는 모유를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재울 때는 내가 그때는 들었던 게 분담을 해서 같이 육아를 분담을 먼저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들었던 거는 내가 어떻게 하지?(서수현)

‘내가 어떻게 하지?’라는 서수현의 생각에서 엄마들이 모성 이데올로기를 어느 정도 내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사회의 가족주의와 모성 이데올로기의 결합으로 자녀의 양육은 엄마의 책임이라는 전제를 무의식적으로 습득한 것이다. 하지만 출산을 한 이후 ‘엄마’로 생활 하면서 의식적으로 육아는 남편과 분담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는 것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서수현은 ‘엄마 되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종의 학습을 통해서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던 모성 이데올로기적 전제를 의식의 수면위로 꺼내와 재구조화하여, ‘육아는 남편과 분담’할 수 있다는 전제를 새롭게 내면화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아기의 탄생으로 경험하게 될 내적·외적 변화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출산 준비에 힘쓴다. 대체적으로 신생아 돌보기 기술습득이나, 물품 구입, 및 태아 발달 상태 확인과 같은 활동이 주를 이룬다. 출산을 경험한 지인들에게 ‘진짜 힘들거야’, ‘모유수유는 되게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듣지만 어떤 면에서, 어떻게 힘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는 못한다.

<6>

이것도 내가 애를 낳고 난 후에 느낀 건데 왜 우리 사회는 엄마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아무도 안 가르쳐주지. 왜 엄마가 되면 이런 결해야 하고 그런 거가 아니고, 엄마가 되면 너 진짜 힘들 거야. 모유수유는 되게 힘들 거야. 애기 낳을 때 되게 아파. 그런 것만 알려주지 엄마가 된다는 게 정신적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 너무 없는 거를 느꼈어요.(조희주)

연구 참여자들은 출산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방식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기도 한다.

(2) 우리 애가 지금 이만큼 컸겠구나!

임신 중반에 들어서면서 입덧이 줄어들고, 임신상태에 적응이 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출산과정에 대한 정보와 출산 후 아이 돌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처음 경험하는 몸의 변화이다 보니 자신의 몸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리고 뱃속의 아기는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산모와 태아의 변화가 정상적인지 등 신체적 변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여기서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임신부 교실이나 도서를

통해서 신생아 돌보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저귀 갈기’, ‘씻기기’, ‘모유수유’와 같은 실질적인 신생아 돌보기 기술을 배우기도 한다.

<7>

책도 그전에 임신 출산 그런 책들은 꽤 봤죠. 애가 커가는 주수에 따라서 커가는 거 보고. ‘아 신기하다.’ ‘재미있다.’ ‘우리 애가 지금 이만큼 컸겠구나.’ 그런 거 보고. 출산 후에는 좀 읽어보기는 했는데 딱 그게 아니니까 머리에 남지 않고, 지금 그 상황이 닥쳐야지 이거를 알게 같더라고. (장은정)

<8>

나는 홍콩에서 임신생활을 보냈는데, 출산 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어 그냥 임신기간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게 정상인지 인터넷 통해서, 기도 모임 하면서 주변 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건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어. 그게 다였어요. (김진희)

<9>

저는 회사 다니면서 그런 정보들을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육아교실 이런 거는 되게 많이 다녔어요. 찾아서 다니고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책도 보고 그런 임신부 교실 이런데 다니면서 듣고 그런 것들만 했고, 제가 막 실질적으로 차근차근히 정보만 수집을 한 거죠. (서수현)

하지만 엄마에게 필요한 기술적인 지식을 학습하는 것 외에 ‘엄마됨’이나 ‘부모됨’과 같이 ‘나’에게 요구되는 모종의 정체성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 시기를 보낸다. 연구 참여자들은 ‘엄마’가 되는 것을 양육 기술 습득의 관점에서 접근할 뿐 ‘엄마’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겪어내야 하는 내적인 갈등, 남편 또는 시부모님과 같은 주변인과의 갈등, 암묵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모성역할과의 상

충과 같은 본질적인 자신의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

(3) ‘태교를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연구 참여자들이 임신 기간 동안 보여주는 ‘엄마’의 역할은 ‘태교’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임신기간 동안 모체의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상태가 태아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해 ‘태교’는 임신 기간 중 ‘엄마’로서 꼭 해야 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임신 기간 중 ‘태교 음악 듣기’, ‘맛있는 것 많이 먹기’, ‘태담 하기’, ‘멘사 문제집 풀기’, ‘기도하기’ 등의 태교 활동을 한다.

<10>

큰 애 때는 기도도 많이 했다. 그리고 그냥 물품을 엄마가 다 해줬고, 그냥 지적으로 멘사 문제집 사서 풀고 그랬어. 큰 애 때는 신경을 좀 썼었어. 집에 있으니까 시간이 많잖아. 내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클래식도 많이 틀어주고 태교를 많이 했던 거 같아. (이주선)

<11>

나는 태교한다고 신경을 좋은 것 많이 먹고, 태교한다고 좋은 음악도 듣고 그런 거 많이 했는데...(웃음)...태교 음악 있잖아요. 출근할 때 음악 듣는다고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했어요. 만삭까지 했는데 (최현선)

모성역할의 학습은 임신과 함께 시작되는데, 초기에는 임신생활과 태아에 관한 정보수집과 지식의 획득이 주를 이룬다. 조기교육의 열풍과 과학의 발달로 태교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임산부들은 태교에 노력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태아의 정서적 발달을 위해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지능 발달을 위해 멘사 문제집을 푸는 등 태교를

한다.

3) ‘석 달은 고생했던 거 같아요’

‘엄마’가 된 대부분의 여성은 출산 과정을 공통적으로 경험한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출산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각 자가 상이한 경험을 했다. 김진희는 출산의 고통이 두려워 처음부터 제왕절개를 선택했고, 장은정은 자연분만을 하고 싶었지만 장시간의 진통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더더 응급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다. 박선영은 첫째는 자연분만이었지만 둘째는 역아로 있는 태아의 위치 때문에 제왕절개를 했다. 또한, 조희주는 일반 병원에서 첫째를 출산한 경험이 좋지 않아 둘째는 자연주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했다. 이렇듯 출산이라는 똑같은 과정이지만 그 안의 개별적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산후 조리의 경험도 다양하다. 최현선은 자연분만을 했음에도 머리가 컸던 태아로 인해 골반의 통증을 한 달 넘게 경험하여 자연 분만한 산모 같지 않게 산후 조리가 힘들었다. 서민정은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여, 석 달의 시간 동안 모유수유를 할 때 마다 수술 자리의 통증을 느껴야 했으며, 그 통증을 견디기 힘들어 모유수유를 중단하였다.

<12>

되게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거 같아. 7시간인가...그랬는데 머리 크기 때문에..한 달 넘게 제대로 못 걸었어요. 골반이 틀어졌는데 침대 같은 것도 조금 높이잖아요. 그런데 다리도 못들 정도로 처음에 이렇게 화장실 못가서 누워서 화장실 가고 3, 4일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걸어 다니더라고요. 나는 그러고도 계속 누워서 있었으니까 힘들었지. (최현선)

<13>

내가 그때 제왕절개하고 너무 아팠어. 너무 아픈 거야. 그때 당시 무통주사 이런 것도 없었어. 석 달은 고생했던 거 같아. 엄마 집에서 삼 개월 있다 와서 석 달 동안 모유수유 할 때마다 아팠어. (서

민정)

여성은 출산 시 엄청 난 고통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도 신체 변화를 장시간에 걸쳐 경험한다. 의학적으로 출산 후 여성의 몸이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6주에서 12주이지만(Harms, 2004), 출산 전의 몸의 상태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여성마다 다르다. 출산 후 초보 엄마로서 신생아를 돌보는 것이 낯설고, 신체 회복에 따른 고통이나 통증을 견뎌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4) ‘신기하고 낯설고’

고통스러웠던 출산이 끝나고 처음 아기를 안으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그 동안의 고통과 걱정은 잊어버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과 신비로움을 느낀다. 또한, 자신이 출산의 엄청난 고통을 이겨내고 새 생명을 탄생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과 대견함을 느끼기도 한다.

<14>

그때 첫째 때는 진짜 뭐라고 막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새로운 거였어요.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대견하기도 하고, 되게 기분이 좋고, 첫째 낳았을 때는 어떻게 키워야지라는 걱정이 드는 게 아니고 되게 좋다. (서수현)

연구 참여자들은 아이와의 첫 대면의 순간에 신기함과 낯섦 그리고 약간의 실망감을 느꼈다고 구술한다. 약 40주의 시간을 뱃속에 품고 있었지만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는 순간에 이들은 아이의 모습과 함께 자신이 ‘엄마’가 되었다는 상황의 변화에 낯선 감정을 경험하고, 생명 탄생의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을 느낀다. 하지만 자신이 상상했던 아이의 귀엽고 감쪽한 모습과 달리 피부는 붉은 색에 하얀 태지가 그대로 묻어 있고, 얼굴은 부어 있어서 이목구비의 생김새를 정확히 알 수

없이 약간의 실망감을 느끼기도 한다.

<15>

애기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드디어 끝났구나. 몸이 가벼워지니까 후반에 힘들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나오는 게 희망인데 분만의 고통도 죽을 것 같이 아팠던 순간에도 시계를 봤더니 그래 내일 이맘때쯤에는 편안하게 누워있을 생각을 하니깐, 그러니까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앞으로 3시간 정도만 있으면 이 모든 게 끝나고, 그 생각을 하니깐 가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애기를 봤는데 아직은 어, 재가 내 애기인가 잘 모르겠는 거. 첫날에는 애기 얼굴이 부어 있고, 애기도 석션으로 빼가지고 솟아있고, 딱 내려놓고 아빠가 먼저 올라와서 애기가 너무 귀엽다고 너무 수고 많았다고 너무 예쁘다고 이러는데 딱 내려가서 애기 보니까 흠...(이게 예쁜가) 정말? 신기하고 근데 음...우리 아기인가? 약간 그런 느낌 낫설면서 되게 반가운데 뭔가 이게 내 아들인가 그런 느낌. 개가 그날 처음으로 바로 주주를 빨잖아요. 그게 느낌이 되게 너무 이상한거야. 애가 내 뱃속에 있었는데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니깐, 진짜 신기한 느낌 신기하고 낫설고 어리둥절 모든 그런 느낌. (박선영)

최현선은 출산 후 아이를 처음 보았을 때 큰 아이의 모습을 보고 예쁘거나 귀엽다는 등의 감정보다는 ‘너무 크다’라는 감정을 느끼며, 그런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당황해 했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갖게 된 엄마와 아기의 첫 대면의 이미지는 작고 귀여운 아기를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엄마의 모습이었지만, 정작 자신이 경험한 첫 대면에서는 아기가 너무 크다는 사실만 인식했을 뿐 어떤 감동도 느끼지 못했다.

<16>

첫 아이는 울고 그러잖아요. 생각보다 애기가 너무 큰 거야. 크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크다고..헉 크다 생각보다 살도 되게 튼튼하고 <중략> 내가 좀 그런가 솔직히 지영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되게 못 생겼어요. 엄청 못 생겼어요. 우리엄마가 보더니 희한하다
그럴 정도로 (최현선)

‘엄마’가 되는 것은 출산을 한 여성이면 누구나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과 환경에 처하게 되고 그 안에서 경험하는 일상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임신한 여성은 주변의 선배 엄마들에게 출산의 고통, 모유수유의 어려움, 육아의 어려움에 대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듣지만 자신이 직접 경험한 출산과 모유수유, 육아는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어떤 경험에 비추어도 추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였다. 또한 그 ‘새로운 세계’안에서 영위하는 일상생활은 ‘나’의 존재론적인 욕구를 포기해야만 가능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런 생활세계의 변화로 인해 ‘엄마’가 된 여성은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17>

결혼 전에도 그런 거 같아. 출산 날을 기다리는 거지 출산 날만 생각하면서 그날 어떨까, 고통이 어떨까, 애기를 낳고 나면은 애기 보느라고 힘들겠다고 하지만 그 힘든 게 구체적으로 경험이 된 것도 아니고, 설명을 많이 듣지 않아서 애기 낳고 나서 그걸 경험하는데, 이런 거였어? 이런 거였어! 완전히 세상이 내가 경험한 것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였다는 거를 애기를 안 해줬어요. 그때 내가 사서 막 읽었던 책 제목이 엄마가 된다는 것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 아니면 나는 아이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 이런 책들 그런 거나의 정체감에 혼란이 오더라고. 내가 엄마로서 나를 다 희생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그 동안 내 위주로 살았잖아요. (조희주)

출산 전까지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삶의 방식에서 ‘아기’를 중심으로 생활 패턴을 바꿔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은 새로운 정체성을 탐구해야 하는 계기가 된다.

2. 학습 상황, ‘일상이 아닌 일상’

신생아를 돌보는 일은 육체적인 노동이며, 쉬는 시간 없이 24시간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일이다. 신생아를 돌보는 이런 특별한 상황은 ‘애 보는 것을 너무 힘들게’하는 요인이 된다.

<18>

감정 조절이 돼야 하는데 많이 참아야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 같고, 내 뜻대로 잘 안되고 몸도 너무 힘들고, 직장에 다니면 좀 중간에 쉬는 시간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애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애 보는 게 진짜 힘든 거 같아요. (최현선)

신생아를 재우고, 입히고, 먹이고, 달래고, 기저귀를 가는 활동들은 인내심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피로를 야기한다. 신생아를 돌보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신생아의 컨디션에 따라 바뀌는 상황은 일상에 대한 통제력 상실을 느끼게 하며 무기력함을 느끼게 만든다.

1) ‘모유수유가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출산 당시 느끼지 못했던 ‘모성애’를 산후 조리원의 신생아실에 있는 아기를 보면서, 모유수유를 하면서 느낀다.

<19>

처음에는 조리원에 갔는데 신생아실에 넣어놓잖아요. 보는데 애가 보는데 나도 울려고 그러는 거, 모유 수유할 때 되게 감정이 내가 모성애 이런 게 느껴지는 거 신랑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최현선)

‘모성애’는 출산 하자마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와 엄마 사이의 유대감은 모유수유를 매개로 형성되고, 모유수유를

하면서 여성은 처음으로 ‘엄마 됨’을 느끼기도 한다.

출산 전 임산부는 모유수유에 관한 학습을 하고 신생아에게 가장 좋은 것은 ‘모유’임을 배운다. 하지만 모유수유는 신체적 조건에 따라 ‘엄마’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초산모가 서적이나 강의를 통해 들었던 일반적인 내용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서수현은 첫째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고 싶었지만 모유부족으로 ‘완모(분유 수유 없이 온전히 모유수유만 하는 것)’를 할 수 없게 되자 모유수유에 더 집착한다. 그녀는 조금이라도 모유를 더 먹이고, 젖이 잘 돌도록 ‘하루 종일’ 모유수유를 하였다. ‘이렇게 힘들게까지 모유수유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 경로로 접했던 모유수유의 장점들을 상기하며 포기하지 않았다. 아기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모성의 마음은 하루 종일 앓아서 젖을 물리는 육체적인 피로를 감당하게 하였다.

<20>

저는 키우는 거를 첫째 때는 가장 힘들었던 게 모유 때문에 엄청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 조리하는 기간 내내 이것만 저는 젖만 물렸어요. 진짜 하루 종일 앓아가지고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모유수유를 해야 하나 이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뭐지 임신하면서 책 같은걸 보면 당연히 책에는 모유가 좋고 적어도 1년 정도는 키워야지 아이가 건강에 좋고 그런 거를 봐서 모유가 분유보다 좋으니까 애한테는 당연히 이걸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서수현)

서수현의 모유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과 주변 사람들은 모유수유를 포기하고 분유를 먹이라고 조언을 한다. 하지만 아이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라는 결심을 한다.

<21>

근데 저는 그 이야기(분유를 먹이라는)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

도 아이한테는 좋은걸 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라고 생각했어요. (서수현)

산모 교실이나, 임신백과 사전류의 도서에서는 접하지 못했던 모유수유의 어려움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장은정은 모유는 잘 돌지만 너무 가는 유선 탓에 고열과 통증을 동반하는 유선염으로 고생했다. 해외에서 생활하던 장은정은 유선염이 생길 때 마다 한국에 입국해 모유수유 마사지를 받으며 통증과 염증을 진정시켰다. 장은정은 출산 후 약 세달 반의 시간 동안 두 번의 유선염을 경험하면서 모유수유를 포기하였다.

<22>

모유수유. 나는 바로 모유수유가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 임신했을 때도 먹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하기는 하지만 나는 특히 유선이 얇아서 너무 잘 막히는 거야. 기름지거나 조금 달거나 그런 거를 먹으면 바로 막혀버려서, 하여튼 염증이 계속 생기고 그래서 먹는 거를 더 조심해야 되고, 정말 밥 국 나물 한식으로만 그렇게 먹어야 돼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은, 나는 조직이 타이트한 조직이라서 이게 선이 모유가 잘 못 나오는 거지 그래서 마사지도 많이 받고 했는데, 마사지 받으면 풀리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막히고 그래서 홍콩에 갔는데 애 데리고, 그때는 아줌마가 오기전이야. 너무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막히면 홍콩은 마사지 그런 것도 흔하게 우리나라처럼 없고, 마사지 받는 동안 애를 봐줄 사람이 없잖아. 신랑은 바빠서 저녁 늦게 오고 그래서 이것을 100일까지 밖에 못 먹이고서는 중단을 해야 됐었어. 그리고 유축기로 짜도 이게 안 나오더라고 유축기가 되면 당연히 계속 했을 텐데. 손으로 이걸 짜야 되고, 결국은 유선염이 와서 열 펄펄 나고 그 다음날로 서울로 가고, 모유수유 나 사람들한테 모유수유 너무 힘들다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장은정)

또한, 장은정은 한국에서 출산과 산후조리를 하면서 봤던 한국 엄

마들의 ‘완모’에 대한 ‘집착’과 외국에 있는 한국인 엄마들의 모유수유 선택에 대한 ‘자유’를 보면서 유선염의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모유수유를 포기하였다. 아이가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것을 보면서 장은정은 원인을 모유수유 부족으로 인한 아이의 약한 면역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단 기간의 모유수유로 엄마와의 애착 형성에 문제가 있어 엄마에게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육아에서 발생하는 몇몇 문제의 원인을 모유수유 부족으로 귀결시킨다.

모유수유 부족이 원인일지 모른다고 추측하는 장은정의 전제는 ‘모성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출산을 준비하며 읽었던 임신관련 서적이거나 산모교실에서 들었던 모유수유 강의는 ‘모유’가 아기를 위한 최상의 음식이며, ‘엄마’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은정은 유선염으로 불가피하게 모유수유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최선을 다해 자녀를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갖는 것은 ‘모성 이데올로기’가 모유수유에 투사된 것이다.

<23>

나도 되게 고민을 했어.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다들 완모해야 된다고, 홍콩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달 먹이다가 분유로 바꿨다고, 아니야 나는 더 할 거야. 그랬는데 근데 울면서 애 먹이면서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분유 먹고 더 크더라.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해 보면, 원래는 6개월은 먹이고 싶었는데 그거 100일까지 밖에 못 먹여서 애가 그렇게 감기가 잘 거리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중략> 애가 엄마의 젖을 충분히 못 먹어서 요즘 이렇게 짜증을 내고 그렇게 엄마한테 붙는 건가. 아무튼 후회스럽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때의 그 상황이 (장은정)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들은 ‘완모’를 하려고 노력한다. 젖병을 씻고 소독해야 하는 분유수유보다 모유수유가 편리하기도 하다. 아이가 울면 언제든지 젖을 물려 아이를 안정시킬 수 있다. 하지만 모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엄마는 자연스럽게 분유로 보충을 하게 되고, 모유

만 먹이는 ‘완모 맘’과 자신을 비교하게 된다. 자신보다 더 모유수유에 열심이면서 모유의 양도 충분한 다른 엄마들을 보면서 분유를 보충하는 엄마들은 일종의 열등감을 느끼기도 한다. 엄마들에게 모유수유는 아기에 대한 자신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활동으로 인식된다.

<24>

나는 양이 얼마나 적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완모하고 싶었거든요, 귀찮아요, 분유 타는 게 귀찮고 분유병 씻는 게 귀찮아서...내 성격에는 완모가 진짜 필요했는데 그래서 마사지도 많이 받으러 갔거든요. 8번, 10번은 받았을 거예요. 근데도 애가 물고 있으면 진짜 1,2분 3분 그러니까 도무지 고집을 못하겠더라고, 나는 완모가 내 욕심이었던거예요. 나 편하자고, 좋고 그런 거 다 떠나서 내가 애기 먹이려고 건강식 먹는 엄마도 아니고 애를 먹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분유를 섞어서 했던 거 같아. 하기가 피곤하고 그러니까 애가 막 배고파서 울고 그런 것도 그런데 아무튼 나는 할 수만 있었으면 완모가 더 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국 엄마들이 완전 모유수유에 완전 정말 목숨 거는 거 보면 ...나도 목숨 걸었던 거지. 마사지 받으러 다니고, 조리원에서도 우울하고, 어떤 엄마들은 양이 이렇게 많아서 2병씩 가져오는데, 나는 밤새도록 쥐어짠 게 60이러니까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정신이 거기에 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차이일까 북북북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모유수유 강의 할 때 보면 다 나와 있고, 다른 거 할 때는 2,3명밖에 안 나와 있는데 제일 좋은걸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거 같고, 어쨌든 자기 책임감이 뭐, 내가 보기에는 (박선영)

박선영에게 ‘완모’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달성해야 하는 ‘모성역할’이었다. 하지만 ‘완모’에 집착하면 할수록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다. 스트레스 받으며 행복하지 않은 엄마로 모유수유를 하는 것 보다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육아’를 하는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아기에게도 더 좋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전환된다.

<25>

나는 그게 더 편했던 거 같아. 애기 울면 약간 그런 거 내 편이에 맞게 나도 했던 거 같고, 진짜 애기를 위해서라면 뭐 정말 완모를 그게 또 그런 게 정말 애기를 위한거가 나는 아직도 엄마가 행복해야 제일 애기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애기한테 모유수유를 주는 거나 모유수유가 제일 좋다고 하더라도, 행복하게 하면서 그냥 분유랑 섞어서 먹이나 그냥 분유만 먹이나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막 힘들고 그렇게 될 봐 예야 안하는 게 낫다. 처음부터 가치관이 나는 내가 행복한 쪽으로 육아를 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모유수유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냥 분유랑 같이 먹이시라고 그러니까 오케이 알았어. 더 이상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 내가 나오는데까지 주고 나머지는 분유 보충. 내가 기분 좋게 할 수 있는데까지 한번 해보자 그런 느낌이었던 거 같아. 그 당시에는 (박선영)

엄마들에게 모유수유는 아기와 유대감과 애착을 형성하는 활동이며, 신생아를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으로 인식된다. 모유가 충분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혼합수유를 해야 할 때 죄책감을 느끼며 심적으로 힘들어한다. 또한 모유의 양이 많은 엄마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한다. 엄마들은 출산 전에 생각했던 모유수유와 실제로 경험한 모유수유의 간극을 일종의 문제 상황으로 인식한다. 이런 죄책감, 열등감의 원인과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유수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게 된다. 육아를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유수유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열등감을 느끼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박선영은 죄책감과 열등감을 느끼는 육아보다는 행복하고 기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육아를하기로 결정을 한다. 엄마들은 '완모'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수유방법을 결정함으로써 반성과 선택을 통해 '엄마'가 되어 가고 있다.

2) ‘잠 못 자는 게 힘들었어요’

연구 참여자들은 신생아를 2-3시간 간격으로 먹이는 밤중 수유를 짧게는 2-3달, 길게는 1년 가까이 지속한다. 신생아를 ‘안아주기’, ‘서서 흔들어 주기’의 방법을 사용하여 재운다. 잠투정이 심할 경우, 아기를 재우기 위해서 한 시간 넘게 안고 있어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서수현은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둘째뿐만 아니라 약 19개월 된 첫째까지 혼자서 돌봐야 하는 ‘독박 육아²⁾’를 하면서 수면부족으로 힘든 초기 양육기를 보냈다.

<26>

그게 왜 잠 때문에 그게 진짜 힘들었어요. 한 50일 한 달쯤 지나서 50일 때쯤부터 애가 슬슬 잠을 안자더니 안아서 재워서 눕혔는데 1분 있다가 깨고, 이래서 그때부터 진짜 못 키워먹겠다. 정말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첫째가 18, 19개월 이랬잖아요. 그 둘을 보는데 토 나올 거 같은...아 둘도 힘들구나. 근데 둘째가 어려서 잠도 안 자주니까 더 힘들구나. 그걸 나 혼자 아무도 없는데 혼자 해야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첫째 때는 힘들기는 했지만 할 만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둘이 되고 또 애가 잠도 안자고 하니까 (서수현)

연구자가 면담한 8명의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수면부족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아기가 깊이 잠들지 못해 아기를 안고, 서서 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했다.

<27>

구체적으로는 잠 못 자는 거. 잠 못 자는 게 제일 힘들었고, 제일 못 먹는 거....서서 그냥 찬 밥 대충 애 업고 먹고 그런 거. 그게

2) 독박 육아²⁾는 요새 엄마들 사이에서 쓰는 용어로써, 주변의 도움 없이 오롯이 엄마 혼자 모든 육아를 도맡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댁 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의 도움 없이 그리고 너무나 바쁜 남편의 도움 없이 자녀를 24시간 혼자서 돌봐야 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한계를 느끼게 한다.

힘들었고 (최현선)

또한, ‘독박육아’를 했던 이주선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것을 ‘수면부족’ 만큼 힘들어했다.

<28>

낳고 나니까 처음에는 잠 못 자는 거지 수면 부족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없는 거. 그리고 낳았을 때는 그게 제일 힘들지 (이주선)

신생아들은 낮과 밤을 인식하지 못해 낮과 밤이 뒤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밤중수유 후 아기들은 잠을 자려 하지 않고, 낮인 것 마냥 놀려고 한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된 것처럼 졸려하고 잠을 잔다. 이런 경험을 했던 서민정은 저녁에 자지 않고 놀려고 하는 아기 때문에 힘들어 ‘짜증’이 나고 심지어는 아기를 ‘막 집어 던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면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29>

맨 처음에 3개월까지는 애가 밤낮이 바뀌더라고 진짜 짜증났어. 애가 저녁에 자야 되는데 안 자면은 이렇게 안고 있다가 막 집어 던지고 싶다는 생각 그 3개월 사이에 잠깐 했었어. 새벽에 일어나서 우유 먹이고 나는 우유를 먹었거든 모유는 안 먹이고 (서민정)

밤중 수유로 인한 수면부족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아기를 돌보는 것으로 육체적 한계를 경험하였다.

3) ‘우울증을 겪은 거 같아요’

서수현은 첫째 때는 모유가 나오지 않아 우울감을 경험했고, 둘째 때는 잠을 자지 못해 우울감을 경험했다. 엄마들이 경험하는 산후 우울증은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와 아기를 돌볼 때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을 경험하며 생긴다. 모유의 양이나 아기의 잠자는 패턴, 잠투정 등 아기를 돌보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고, 통제가 불가능한 일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30>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작은 애를....생각 많이 하고 처음에 조리원 처음 갔을 때 우울증 같은 비슷한 거 있었어요. 며칠 있었어요. (최현선)

<31>

우울증 겪은 거 같아요. 이렇게 심한 건 아니고 왔다가 간 것 같은데 모유 안 나올 때도 어머니가 가끔 오면 애 낳은 사람이 왜 이렇게 우울하냐. 저는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모유도 안 나오는데 그때 되게 안 나오니까 그걸로 우울했고, 둘째 때도 잠을 안자고 하니까 우울했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우울한 게 계속 되는 게 아니고 우울했다가 저절로 극복을 했던 거 같아요. (서수현)

신생아 시기 모성역할은 아기의 생존을 위한 신체적 돌봄이 주를 이룬다. 돌봄 노동에 익숙하지 않아 연구 참여자들은 우울감을 경험하지만 돌봄 활동에 익숙해지면서 ‘저절로’ 우울함을 극복한다.

4) ‘왜 나만 고생을 해야 하지?’

연구 참여자들은 ‘나’를 중심으로 생활하다가 출산 후 ‘아기’를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었다. 산후조리를 하면서 신생아를 돌보는 약 두 달간 동안 연구 참여자들은 급격한 생활의 변화를 겪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몸조리와 신생아 돌보기로 외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답답함을 느꼈다. 하루의 일과는 모유수유, 아기 기저귀 갈아주기, 칭얼거리는 아기를 달래고 재우기의 반복으로 구성되었다. 반복적인 돌봄 활동과 그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 수면부족, 장기간의 실내생활과 같은 비밀

상적인 활동이 연구 참여자들의 일상이 되었다. 이런 ‘일상이 아닌 일상’을 경험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하지?’ 의문을 갖게 된다.

<32>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지?’ 생각이 당연히 들죠. 왜 나도 좀 나가서 좀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집에서 애를 키우고 있는 걸까, 왜 나만 집에서 이 애들을 보고 있는 걸까? (서수현)

출산으로 급격히 바뀐 생활과 바뀐 것 하나 없어 보이는 남편의 생활을 비교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왜 여자만’ 비일상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지 억울함을 느낀다. 아기 키우는 것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기는 했지만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생활이 구성되는 것에 부당함도 느낀다. 조희주는 남편과 ‘완전 삶이 다른 세계’에 있었다고 그때를 기억하며, ‘일상이 아닌 일상’이 힘들고, 달라진 삶에 놀라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 하며 한 참 동안 울었다며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떠올렸다.

<33>

그거는 한 달 동안 난 젖도 잘 안 나와서 모유수유를 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남편들도 뭐 블루 증후군인가 있잖아요. 그런 거 남편도 이 바뀐 삶이 힘들겠지만 내가 보기에 남편은 편해 보이고 똑같아.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갔다가 저녁때 와서 애기 막 예쁘다 이려고 ‘힘들지?’ 이려고 자고 나는 완전 삶이 다른 세계에 와 있잖아요. 물론 임신 때는 더 편했지. 주변 사람들이 호의적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너무 왜 나만 이렇게 되지? 왜 여자만 이러지? 그런 게 되게 강했던 것 같아. 남편이 되게 바쁘고 남자들 바쁘잖아요. 한번은 4주차 2주 조리원에 있고, 2주집에 와서 있고 나서 4주차 됐는데 남편 붙잡고 어떻게 이렇게 삶이 달라질 수가 있어 이런걸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어. 애 낳으면 키우느라 힘들다 되게 모호하잖아, 근데 당신은 똑같잖아. 당신은 일상을 살고 있지만

나는 일상이 아닌 거냐. 눈물을 막 흘리는데 30분 동안 눈물이 안 멈춰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조희주)

연구 참여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아기의 ‘낮가림’이었다. 최현선은 첫째 아기의 심한 낮가림으로 아기가 아빠에게 가려고 하지 않아 힘들었다. 특히 밤에 아기를 달래고 재우는 일이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 되면서 수면부족은 더 심해지고 육체적 피로는 가중되었다. 아기의 울음소리에 민감한 엄마와 달리 최현선의 남편은 아기가 울어도 잠에서 깨지 못했다. 이런 남편에게 화가 나서 남편을 깨워 아기를 달래보라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기의 낮가림으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

<34>

첫째 때는 아직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딱히 지금 생각해보면 어려웠다기 보다는 지영이가 되게 까탈스러워서 엄마 품에서 안 떨어져요. 베이비시터 있었지만 아빠한테 전혀 안가 밤에 잠 못 잘 때, 나도 밤에 자고 해야 하는데 애가 밤에 울면 아빠들은 안 일어나잖아요. 엄마는 일어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깨워서 안으라고 하면 안으면, 애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엄마가 안으면 가만히 있고 아빠한테는 안 가려고 하고 (최현선)

최현선은 남편의 늦은 귀가로 ‘독박 육아’를 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생활을 경험하면서 우울함을 느꼈다.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하는’ 상황이 힘들어 남편에게 화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남편의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무기력함을 느끼며 아기가 6개월이 될 때까지 힘들어 했다.

<35>

정신적으로는 신랑이 집에 늦게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때 한참 지영이 처음에 저쪽으로 가서 집에 새벽에 밤늦게 와서 지영이가 5

개월 6개월 될 때까지 신랑한테 엄청 화냈거든요. 혼자서 애 키우는 거 같다고, 신랑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건데. 일단 나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우울증 같은 것도 오는 것 같고 (최현선)

영아를 돌보는 연구 참여자들은 아기에게 매인 채, 모유수유의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우울감을 느끼며, 급격히 바뀐 생활을 힘들어 했다. 남편은 생활의 큰 변화 없이 평화로운 일상을 사는 것 같고, 반면에 출산 후 여성들은 ‘엄마’라는 미명아래 급격하게 바뀐 생활을 견뎌야 하는 것에 부당함, 억울함과 같은 감정을 느끼며 혼란스러워 했다.

5) ‘화를 막 폭발적으로 냈어요’

이주선은 연년생인 남매를 ‘독박 육아’ 하면서 그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자신의 분노와 화를 발견하였다. 남편의 직업 특성상 도움을 받지 못했던 초기 양육기에 이주선은 육아 스트레스와 시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얽혀, 아이들을 ‘목숨 걸고 키웠다’라고 표현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었다. 그렇게 생긴 스트레스로 남편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내재된 분노를 참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별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36>

그거는 스트레스도 한몫했어. 그러면서 나 그 전에 사람들이 넌 인형 같다고 할 정도로 화를 거의 안 냈거든. 근데 애 크면서 그 주체할 수 없는 힘듦과 정신적 스트레스와 시댁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복합적이 돼서, 연년생 애를 나 혼자 키우면서 내가 정말 목숨 걸고 키웠어. 그 당시에 그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애 아빠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심하게 막 내면서,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애를 키우면서 나에 대한 인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거지. 화를 막 폭발적으로 내고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거지. 그러면서 나도 별 수 없는 그런 똑같은 인간이구나. 그런 거를 계속 그

때부터 알게 하시는 것 같아. (이주선)

육아 스트레스와 바뀐 일상에 분노로 반응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혼란을 경험하고, 낯선 자신의 모습을 객관화하며 반성한다.

유아기로 들어서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를 훈육하기 시작한다. 18개월 전후로 하여 자녀에게 규칙,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올바른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작한다. 훈육을 시작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전문가들의 육아 서적을 참고하며 서적에서 조언하는 대로 훈육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육아서적의 내용은 그저 정보 일뿐 연구 참여자들이 자녀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려웠다. 육아서적에서 제안하는 훈육방법들이 자녀의 기질과 맞지 않거나, 연구 참여자들의 인내와 감정 조절을 전제하는 내용들이었다. 박선영 역시 육아 서적을 참고하며 훈육을 시작하였지만 책에서 조언하는 대로 적용이 안 되자, 그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화로 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 ‘죄책감’, ‘상실감’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

<37>

정신적으로는 이제 훈육하는 거. 나 진짜 한 한돌 지나고 진짜 18,19개월 때까지 15개월 이 당시 때는 정말 편했어. 말도 잘 듣고, 근데 이제 점점 사회성을 길러가면서 뭔가 제재를 해주고 그런 행동을 보일 때 어쨌든 애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니까 의사소통이 되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10번 부드럽게 말했어. 책에서 읽은 것처럼 안 돼. 이렇게 11번째는 소리 지르면서 안 돼. 이렇게 나올 때 그럴 때 자괴감 상실감 이런 거 있잖아. (박선영)

비오는 날 어린이 집 등원 길에 안아 달라고 칭얼거리는 아들이 건물 코너에 부딪혀 울자, 장은정은 아들을 달래주려는 마음보다는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아이라는 생각으로 ‘뽕퐁’이라는 생각을 한다. 장은정은 ‘모성애’를 느껴 자녀를 돌봐주려는 마음보다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당한 고통에 고소해 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다. 자녀가 다친 상황에서 공감하고 위로해 주려는 마음보다 의도적으로 자녀의 아픔을 외면하는 모습에 ‘모성애’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며 죄책감을 느낀다.

<38>

애의 기분을 파악해주고 공감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기 싫을 때가 있어 싫어. 그리고서는 나는 너무 못된 엄마인거 같은 게 그럴 때에 꿀밤을 쳤어. 아프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끌고 가다가 나는 코너를 돌았는데, 애는 내가 끌고 가니까 코너에 부딪힌 거야. 애는 울지 나는 속으로 뺨통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나 같은 엄마가 어디 있어? <중략> 뺨통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 모성애가 되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요즘 하거든. 남편한테도 그랬어. 난 모성애가 부족하다고 (장은정)

엄마들은 출산 전의 일상적인 생활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특별한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수면부족, 우울감, 모유수유의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일상이 되면서 ‘왜 나만’이런 일상을 살아야 하는가에 부당함과 억울함을 느낀다. ‘엄마’가 되기 전에는 자주 느끼지 못했던 ‘자괴감’, ‘죄책감’, ‘상실감’, ‘화’,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면서 자신에 대해 실망한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녀를 향한 ‘기쁨’, ‘신기함’, ‘행복함’ 등의 긍정적인 감정으로, 감정의 변화 폭이 커지면서 정서적으로 비균형 상태를 일상적으로 경험한다. 정서적 비균형 상태의 일상화는 아름답고 고귀하게 표상화 된 ‘모성’이 아닌 여성들이 직접 경험하는 모성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3. ‘모성역할’과 ‘나의 욕구’

1) ‘직장 맘, 이중으로 더 힘들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생활과 자녀 양육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한다. 조희주는 자녀를 보육시설이나 베이비시터에게 맡겨 놓고 직장을 다녀도 마음은 편하지 않고, 최현선이나 서수현은 자녀 양육을 위해 전업주부가 되어도 주체가 사라진 삶이 힘겹기만 하다. 서민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긴 하지만 ‘엄마’의 노동이 가중되기 때문에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나’와 ‘가족’을 위해 좋은지 지속적으로 고민한다.

<39>

여자의 그거는 숙명이야. 내 뱃속에서 애를 낳는 이상 사회생활을 해도 고민이 되는 거고, 집에만 있어도 내 삶은 뭐지 이런 고민을 할 수 밖에 없고 (조희주)

자녀가 유치원에 취학한 후 연구 참여자들은 오전에 생긴 여유시간에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육아 휴직 중인 최현선은 직장 복귀를 놓고 고민을 한다. 출산 전부터 직장 복귀를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전업주부로 양육에 집중하면서 생각이 변했다. 최현선은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육아를 해보니 장기적으로 ‘생산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에 회의적이 된다. 또한, 자녀양육이 ‘생산적인 일’이라는 생각의 전환으로 양육 방식에 대한 생각도 바뀐다. 그녀는 기관이나 도우미를 통해 육아를 하려고 계획했었지만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양육을 할 계획을 세운다. 육아 휴직기간 동안 24시간 자녀와 생활하면서 최현선의 가치체계에 모종의 변화가 생기고 이는 생각의 전환을 야기하게 되었다. 또한 그녀는 직장생활을 통해 자아성취를 하려던 것과는 다르게 자녀 양육에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아 성취를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다.

<40>

근데 이제 지영이가 5살 지나고 보니까 좀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이

들죠. 아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공부도 하고 해서 했는데 몇 년 하자고 공부를 했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고 좀 왔다 갔다 해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혼자 생각할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유시간에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날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직장을 나가면 사실은 거의 밤에 들어와서 애랑 시간도 거의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나가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을까 (최현선)

두 아이 모두 어린이 집에 다니는 서수현은 국가에서 시행한 경력 단절여성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대기업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서수현도 결혼 전에는 가정과 일을 병행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막상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직장을 다니며 양육을 하는 것은 ‘이중으로’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퇴근 한 뒤, 쉬지도 못 하고, 아이들과 놀아야 하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병행은 어렵다고 말한다.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전업주부가 더 좋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개별적인 생활이나 경력개발 측면에서 자신의 성장을 고려하지 않고, 엄마 역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를 위해 자신의 성장을 희생하는 선택을 한다.

<41>

저는 반나절만 일을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아이를 챙기면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는데는 전업주부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갈 준비하고 집에 오고하면 아이들과 같이 있어주고 돌봐주고 하는 시간이 한 시간 두 시간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충분히 그 시간동안에 만족을 할 수 있게 더 엄마의 노력을 더 쏟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서수현)

박사과정을 수료 한 이주선은 절박유산 끼로 모든 사회생활을 접고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고, 전업주부로 자녀들 양육을 도맡아 한다. 박사과정까지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만 돌보고 있으니 자신의 능력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이주선은 ‘엄마가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정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로서의 생활이 맞는 것인지 고민을 한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까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거 같은데’라고 말하는데서 자신의 경력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끝나고 갈등을 해소했음을 알 수 있다.

<42>

처음에는 맞벌이를 하면서 애를 키우는 게 맞는 건가, 그런 고민이 들었어. 솔직히 나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아깝잖아 솔직히. 작년, 재작년까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거 같은데 (이주선)

김진희는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면서 오전에 개인시간이 생겼다.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생활이 아쉬워, 음악활동 재개를 고민하였다. 하지만 둘째를 계획하고 있는 터라 쉽게 음악활동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 첫째가 엄마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둘째가 태어나면 아기를 돌보기 위해 다시 초기 육아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진희에게 ‘자아성취’는 개인시간이 생겼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한 자녀 이상 낳고자 하는 자녀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녀는 음악활동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자녀 양육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성들의 ‘자아성취’가 어렵다기 보다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분절적인 삶의 특성으로 인해 ‘자아성취’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3>

그럴 때 이제 아이가 딱 걸리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걸 할 수는 있지만 이제 한창 30대면은 2세에 대한 게 실천 돼야 할 텐데 <중략> 애가 크니까 유치원 다니고 크니까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내가 연습을 다시 해볼까 근데 항상 걸리는 게 둘째 뭐든지 걸리

는 게 둘째. 생각은 해, 내가 연습을 조금씩 해볼까 하다가도 여기
까지만 생각해요 옛날에는 생각도 안 했었는데 이제는 생각이 조
금 (김진희)

결혼 후 자신이 원하는 삶은 ‘현모양처’의 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고
조희주는 내적인 갈등을 심하게 겪는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집
안 살림도 잘하고 싶지만 유학도 갔다 오고 어렵게 하고 있는 박사과
정 공부를 포기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조희주는 ‘모성역
할’과 ‘자아성취’를 위한 활동을 병행 하면서 끊임없는 내적 갈등을
겪는다.

<44>

내가 공부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그거
를 마음속에 컨플릭트가 강해요. 되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어
떻게 보면 옛날 기준으로 하면 현모양처 같은 거죠. 집도 예쁘게
꾸미고 싶고, 음식도 잘하고 싶고, 좋은 엄마, 좋은 아내이고 싶은
그런 모습과 그렇지만 내가 공부도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지금 포
기할 수 없는 ...난 이게 진짜 강해요. (조희주)

애를 하루 종일 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 ‘빨리 공부하러 학교에 가
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학교로 향하지만 막상 공부를 하려고 하면
아기한테 소홀한 것 같아 ‘죄책감’을 느낀다. 조희주는 공부와 육아를
병행하면서 ‘양가감정(兩價感情)’을 경험한다.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
할 수 없는 학업, ‘현모양처’가 되고 싶은 욕구, 반면에 힘든 육아에서
도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충돌하면서 분열적인 내면의 갈등을 경험한
다.

<45>

이거는 힘들었지 물론 하루 종일 보는 거는 너무 힘들었지만 어쨌
든 애기 옆에 있고 싶은 엄마인데 학교를 나가야 되는 거야. 학교
나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야. 그런 정신적으로 분배하는 게 힘들

었던 거 같아요. 내 에너지를 여기에도 이만큼 쓰지만 얘기를 생각하다 보면 공부가 안되고, 공부를 생각하다 보면 애기한테 소홀한 것 같아서 죄책감 같은 것도 들잖아요. 그런 게 힘들었지 사실. 은주가 되게 순해가지고 육아에 힘든 건 없었고, 4개월까지는 혼자 볼 때는 되게 힘들었지 몸이, 그때는 사실 되게 양면적이다 애한테는 엄마가 옆에 있고 싶은 엄마지만 너무 힘들니까 솔직히 혼자 있으면서 아줌마를 쓸 이유가 없잖아. 빨리 공부하러 가야겠다. 막상 공부하러 나가니까 애가 너무 신경 쓰이는 거야. 그런 거는 모든 엄마들이 바깥일 하는 엄마들이 겪는 것 같아. 죄책감 같은 거 내가 엄마로서 얼마나 해주고 있는 건지 (조희주)

‘직장 맘’들은 퇴근 후 쉬지 못 하고 ‘집안 일’을 혼자 도맡아 해야 하는 생활에 힘들어 한다. 서민정은 자아성취가 목적이 아닌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직장생활을 시작하지만 퇴근 후 가사 일까지 도맡아 하면서 건강의 무리가 왔다. 직장생활 시작한지 한 달 만에 병원에 입원하면서 퇴사를 했다. 이 경험을 통해 서민정은 직장생활을 하는 엄마에게만 ‘바깥 일’과 ‘집안 일’의 의무가 동시에 부여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부당한 상황 때문에 경제적인 필요가 있음에도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다. 자녀들의 사교육을 위해서 수입이 더 필요하지만 건강을 해치며 자녀를 위해 무리하게 돈 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포기하고, ‘직장 맘’보다 편한 전업주부의 생활을 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큰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 서민정은 다른 연구 참여자들에 비해 ‘모성’ 정체성이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다. 확고하게 형성된 정체성은 모성 역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서민정이 생각하는 모성역할은 자신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녀를 ‘뒷바라지’하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 하지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라고 말하며, 객관화하여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 서민정에게 모성역할은 자녀 사교육비와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이다. ‘나’의 안위(安慰)를 위해 전업주부의 생활을 선택하는 것은 ‘정신을 못 차리는’ 행

둥이라고 생각한다. ‘모성’ 정체성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성역할과 ‘나의 안위(安慰)’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녀의 성장단계에 따라서 엄마들에게 요구되는 모성역할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엄마들이 경험하는 갈등도 변하는 것을 포착할 수 있다.

<46>

남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 직업이 공무원이라던가 그만두기에 가까운 직업이면 어쩔 수 없이 다니겠지만 내가 과감하게 포기했던 게 억울함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 내가 회사 생활 하면서 집안 일 하지, 애네 아빠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지, 저녁에 들어와서 밥하고 내 성격상 대충 못하지. 맨날 치우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두 달이. 오죽하면 한 달 만에 병원에 입원했겠냐? 그리고 억울함이 드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 누굴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고, 돈은 벌어서 물론 좋기는 한데, 그 생각에 내가 과감히 그만 뒀지.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내가 회사생활을 하기 싫은데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솔직히 말해서, 싫거든 회사생활이 다 하기 싫거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스스로 굳히는 거지. 내자 지금 나가서 돈 벌어야 될 때는 될 때거든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유지하려면 돈을 벌어야지. 맞벌이를 해야 될 형편인데 그게 싫으니까. 자꾸 그거를 내가 짜 맞추기를 하는 거지 그게 제일 큰 것 같아. 진짜 현실적으로 나 벌어야 돼. 근데 그걸 짜 맞추기를 하는 거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서민정)

연구 참여자들은 ‘집안 일’과 ‘바깥 일’을 하면서 생기는 갈등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낀다. 직장 복귀로 아이들과 보낼 시간이 부족해질 것을 걱정해 선뜻 복귀를 결정하지 못하고, 복귀를 하더라도 가사와 육아는 줄어들지 않아, 연구 참여자들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힘들게 만든다. 그런 힘든 생활을 감당하더라도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가’ 회의를 느낀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구호는 ‘직장 맘’에게도 ‘전업주부’에게도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요

인이 된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현 한국사회의 구호³⁾는 ‘직장 맘’과 ‘전업 주부’ 모두 사회에서 배려 받지 못한다는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직장 맘’이 집안 살림과 양육을 할 수 있는 파트타임제도나 재택 근무, 육아 휴직 등의 법률은 개정 되고 있으나 직장문화로 실질적인 도움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전업주부는 자기계발을 위해 필요한 자녀 양육지원을 사회적으로 받지 못한다⁴⁾. ‘엄마’들은 전업주부로 ‘모성역할’에만 충실하면 자신만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 같아 불안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 자녀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낀다. 비현실적 사회 제도와 ‘모성이데올로기’의 문화적 맥락에서 ‘직장 맘’, ‘전업주부’ 모두 ‘소외감’을 느낀다.

2) ‘애기를 낳고 나서는 안되는게 있어요’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전업주부의 생활을 선택한 박선영, 서수현은 양육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취미활동을 찾는다. 박선영의 경우 ‘작가’가 꿈이어서 시간만 된다면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글쓰기를 배우고 싶어한다. 하지만 육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아성취를 위해 장시간을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47>

애기를 낳고 나서는 분명히 안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애기를 낳고 나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심지어 지금도 시간만

-
-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07년에 신설되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2014년 개정되면서 육아휴직기간은 2년으로 여성 육아휴직이 아닌 부모 육아휴직으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사회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 4) 국가의 ‘아이돌보미’ 사업은 2012년 법안을 근거로 하여 2013년 10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적으로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방법 외에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양육한 경험은 없다. 그리고 지원금은 가족의 소득과 다자녀 정도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들이 ‘아이돌보미’ 지원을 신청하더라도,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은 것은 연령별로 차등 지급되는 육아수당 혹은 어린이 집, 유치원비의 보조금이다.

있으면 학교 뭐 예술대학 이런데 가서라도 다시 배우고 싶은 이런 게 있거든. 근데 지금 말도 안 되잖아. 심지어 집을 나와서 재즈 피아노를 배우는 것도 힘들어 (박선영)

서수현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초기 양육기를 보낸다. 중기 양육기에 접어들면서 자녀들을 어린이 집에 입학시키고 여유가 있는 오전시간에는 대기업에서 사무직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다. 3-4년의 ‘독박 육아’를 견뎌내고 사회생활을 하는 그녀지만 재봉과 같이 배우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금전적인 측면에서 자녀의 필요를 우선으로 한다.

<48>

제가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면 차라리 애들 배우게 하고, 그런 건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어요. 재봉이나 그런걸, 지금 생각은 그런 걸 할거면 차라리 유은이 피아노 학원을 보내고 미술을 보내고 이런 생각이 들고 (서수현)

사회생활을 하며 어느 정도 자아를 실현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도 자신의 취미활동 보다는 자녀의 교육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자아 성취를 위한 시간적, 금전적 투자를 결정할 때 자녀를 먼저 고려하는 연구 참여자의 선택에서 ‘모성역할’과 ‘나의 욕구’가 대립되는 양상과 ‘나’의 욕구를 희생하는 ‘모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3) ‘아줌마가 되는 건가’

최현선의 취미는 ‘피부 관리’와 ‘아이 쇼핑’이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옷도 입어보고, 화장품도 발라보며 외모를 꾸미는 것이 그녀의 취미활동이었다. 출산 후 이런 취미 활동을 못하다가 선물 받은 쿠폰으로 오랜만에 한 유명 호텔 미용실에서 네일 케어와 머리 손질을 받았다. 하지만 오랜만에 외모를 꾸민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기만 했다.

어색해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몇 년 사이에 ‘여자’에서 ‘아줌마’로 모습이 변하고 사회와 단절되고 있다는 생각에 서글퍼진다.

<49>

저는 원래 화장해보고 화장이 아니더라도 피부 관리한다거나 그냥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쇼핑도하고 이것저것 입어보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전혀 못하니까 어찌다가 나가면 너무 어색한 거예요. 뭘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얼마 전에도 누가 티켓을 쥐가지고 워커힌 미용실에서 네일이랑 헤어하는 거 봤는데, 딱 내렸는데 오랜만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고 나왔는데도 내가 해야 될게 아닌데 한 것 같은 느낌이란,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사람이 변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러면서 아줌마가 되는 건가 사회랑 완전히 단절되고, 그런 면은 좀 서글프더라고요. 하고 나오면서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곧 지워질 거 이러면서 밥 몇 번하면 지워지는데 이러면서 (최현선)

출산 후 체형과 외모가 변하고 출산 전처럼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시간적, 재정적 투자가 쉽지 않은 엄마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의 모습보다는 ‘○○의 엄마’의 모습에 더 익숙해진다. 여성에게 외적 미(美)의 추구는 사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결부된다. 여성의 신체는 남성의 시각에 의해 타자화 되는데,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여성들 역시 자신의 신체를 남성의 시각에서 타자화 한다(정희진, 2014). 자신의 신체를 타자화하면서 남성들 보기에 외모가 아름답게 보여야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들의 외모 가꾸기는 사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의 표출로 이해할 수 있다. ‘○○의 엄마’라는 정체성에 더 익숙해져서 외모를 가꾸는 것이 어색해지고, 어색해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서글퍼지고’, ‘아줌마’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리하자면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모성역할’에 집중하느라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신에게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사회와 단절되었다고 생각한다.

4. ‘엄마’로서의 삶에 의미 찾기

1) ‘만족감’, ‘뿌듯함’, ‘성취감’

처녀 시절, ‘누군가를 챙기는 사람’이 아닌 ‘챙김을 받는 사람’이었던 서수현은 ‘엄마’가 된 후, 집안 청소부터 빨래, 식사준비까지 집안 살림을 혼자서만 하는 것이 힘들고 싫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집안 살림을 한다. 아이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하고 난 후에 서수현은 만족감과 자기 위안을 느낀다.

<50>

저도 청소도 안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매일 닦고 그러는데, 요새는 여름이어서 선풍기 에어컨 닦고, 매일매일 하는데 어떤 날은 기분 좋게 하고, 어떤 날은 진짜 하기 싫고 하는데 그래도 해야 하잖아요. 그럼 애가 뭐라고 이거 바닥이 뭐라고 이걸 이렇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근데 제가 안하면 애들은 그런 환경에서 지내야 되는 게 싫으니까 깨끗하게 해줘야지 하고, 깨끗한 집에서 애들이 놀고 하면 그걸로 잘했어 이런 만족 위안 그런 것 같아요. (서수현)

모성역할에 ‘자기만족’을 느끼면, 갈등을 겪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최현선은 생각한다. ‘모성’이라는 것이 타인에 의해 판단되거나 평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들 스스로 자신의 모성역할 수행을 반성하고 평가하여, ‘자기만족’을 한다면 갈등은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엄마=희생’이라는 통념은 엄마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는 맥락에서 성립하는 것이고,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모성역할에 만족하면 ‘엄마’의 생활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51>

희생이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모든 거를 다포기하고 그런 것 같은데, 자기가 만족하면 희생은 아닌 것 같아요. 엄마들이 어느 정도 자기 삶에서 스트레스 풀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하다보면 괜찮지 않을까. (최현선)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김진희는 아이와의 놀이에 ‘최선을 다하면’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낀다. 그녀는 엄마들이 모성역할을 해야 할 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은 ‘본인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며 엄마들의 마음상태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52>

놀아줄 때 책에도 나와 있는데 놀아주는 게 아이가 그 시간이 엄마랑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스킨십을 통해서도 교감이 되지만 이건 정말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톤으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다고 책에 나와 있고 열과성을 내서 한마디로 올인 해서 놀아준 게 육체가 피로했던 거 같아요. 몸이 힘든 거 정신적으로는 좋았어요. 내가 잘 놀아주고 있구나. 그런 뿌듯함이 있었기 때문에 <중략> 본인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 아닌가. 저는 전반적으로 애한테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나는 내 할 일을 다했다, 엄마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미련이 없는 거지요. (김진희)

익숙하지 않은 ‘챙겨주는 사람’의 역할을 하면서 초반에 연구 참여자들은 혼란스러움을 경험한다. 육체적 피로감, 빈번하게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과 개별적 주체인 ‘나’를 위한 생활의 부족으로 ‘컬처쇼크’를 경험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활 습관과 생활양식도 서서히 변한다. 환경적 변화와 심리적 변화에 적응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마음 먹기에 따라’ 자신의 생활에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갈등이 야기하는 비균형적인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은 모성역할을 수행하

며 느끼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통해 삶의 방향을 재설정 하게 된다.

2) ‘내 새끼, 내 피 붙이’

연구 참여자들이 육체적 피로와 부정적 감정으로 이루어진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직장으로의 복귀는 엄마를 대신해 누군가가 자녀의 양육을 담당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이때 엄마들은 베이비시터나 시댁 부모님, 친정 부모님들을 고려해 보지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자녀를 맡긴다는 것은 불안하기만 하다. 직장생활과 가정의 양립을 희망했던 서수현 역시 출산 후 육아를 타인의 손에 맡기는 것이 걱정스럽고 불안하여 자녀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집에서 전업주부로 자녀를 양육할 결정을 하고 장기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한다.

<53>

(직장생활을) 하고는 싶은데 애들이 좀 크면 모르겠는데 어린 애들을 두고 갈 거들이 보면 뭐라고 해야 하지 모성. 이 조금한 애들만 사람 손에서 하는 것도 좀 불안하고, 만약에 제가 지금 애가 어린데 회사가도 다른 사람한테 맡겨도 믿음이 없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키워야지, 클 때까지는 내가 키워야지 그런 생각을 한 거 같아요. (서수현)

아동발달에 대한 연구들 중에 영·유아기의 경험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근거로 애착육아 전문가들은 영아기 시절 자녀와 엄마의 애착을 강조한다(Sears, 2002). 또한 최현선은 유아기를 할머니와 보내 어머니와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내 새끼’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위해 자녀 양육의 힘든 시간을 버텨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자녀의 무탈한 성장을 바라는 ‘모성애’가 초기 양육기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게 하는 버팀

목이 되었다.

<54>

그거죠 그니까 내가 이게 하나하나 작은 것들이 애 미래에 기억은 못하더라도 무의식중에 작용은 많이 할 거라는 생각 같은 거, 그래서 내 새끼라는 생각. 아, 내가 지금 잘못하면 애한테 나중에 엄청 상처를 주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건넸던 거 같아요. 당연히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이런 부분은 감수해야 하고, 몇 년만 지나면 2년만 지나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같아요. 지금 이렇게 울고 하는 것도 잠깐이지 조금만 지나면 끝나잖아요. 다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니까 조금만 참자 이런 생각이 (최현선)

박선영은 ‘엄마’라는 역할을 수용하기 위해서 ‘엄마야, 엄마야’라고 주입하는 자신의 모습과는 다르게 ‘엄마’의 정체성을 순간적으로 형성한 것 같은 주변 엄마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기해 한다. 잠도 못자면서 밤중수유로 고생하는 자신과 주변 엄마들을 보면서 박선영은 ‘자기 피붙이’, ‘우리 아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고생을 감수하는 것이라 추측한다.

<55>

진짜 우리 애, 아들이고 엄마가 됐어. 딱 피부로 실감했던 거는 순차적으로 일어난 거 같아. 기억은 안 나고 그냥 내 자신한테 난 이제 엄마야! 엄마야! 약간 누구네 어머니 불리는 것도 어색한, 임신 기간 내내 그렇게 불리기는 하지만 이름도 정하고 슈아 어머니, 조리원에 있을 때 그러면 아들! 이러면서 그게 신기했던 거 같아. 옆에 사람들도 거의 첫째였던 거 같은데, 너무 자연스럽게 엄마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물론 그렇게 행동은 하고 있었지만 참 신기하다. 갑자기 이렇게 태어난 아기를 진짜 마치 평생 엄마였던 거 같이 우리 아들 이려고, 쭈쭈도 다 먹여주고, 원래 산후조리원에서 밤중수유 안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엄마들은 목숨 걸고 하려고 하잖아요. 갑자기 그런 헌신적인 모습을 볼 때, 나도 물론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 사람들도 대단하다. 엄마 된지 몇 시간 밖

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했던 거 같아. 자기자식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닐까 자기 피붙이다 이런 생각해서 (박선영)

‘내 새끼’, ‘내 피붙이’, ‘내 자식’이라는 생각은 영아를 돌보는 엄마들이 고생스러운 일상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된다. 쇼크로 다가오는 일상생활을 ‘내 자식’을 위해 견딜 수 있는 것은 자녀를 ‘분신화’했기 때문이다. 임신과 출산의 경험은 생물학적으로 번식의 의미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분신(分身)’의 탄생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자신의 ‘몸’에서 나온 ‘나’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으로 돌봄 노동의 어려움을 인내한다.

3) ‘날 찾는 거, 좋은 느낌’

자녀들은 ‘엄마’에게만 바라는 특정한 요구사항들이 있다. 졸리거나 아플 때 또는 낯설고 무서운 상황에 있을 때 ‘엄마’의 존재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갖는다. 엄마들 또한 자녀들이 자신에게만 보여주는 특정한 행동을 보면서 기쁨과 행복감을 느낀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엄마를 먼저 챙기고, 시도 때도 없이 뽀뽀와 같은 애정표현을 하는 자녀를 보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한다. 자녀들의 행동양식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면서 자녀의 관점에서 ‘엄마’로서 ‘나’의 존재 의미를 재정립한다.

<56>

예쁜 짓하고 말 되게 어설피게 하거나 할 때 되게 기쁘데, 기쁠 때는 애가 조금 컸다고 내 생각해줄 때 엄마 밥 다 안 먹었잖아. 이런 말 해주고 밥 더 먹으라고 하고 엄마 예쁘다 이런 말 해주고, 아무리 힘들다지만 애가 잠투정할 때 아빠가 아닌 엄마 부를 때 육체는 힘들어. 하지만 속은 좋은 느낌 날 찾는 거 (김진희)

김진희는 딸이 성장하는 모습에서 기쁜 순간을 발견하고 엄마를 위

하는 자녀의 특정한 행동을 보면서 딸의 삶에서 자신의 존재가 큰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4) ‘제일 엄마다운 모습이 제일 여자다운 모습’

모성역할과 ‘나의 존재론적 욕구’의 대립으로 갈등을 경험하면서 엄마들은 학습이라는 기제를 사용하여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엄마로서 ‘나’의 존재이유를 재정립한다. 최현선은 ‘나’를 위한 것은 출산 후에도 자신의 커리어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직장복귀의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현선은 모종의 학습을 한다. 이 학습을 통해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은 직장생활이 아니라 모성역할을 잘 수행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라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

<57>

이게 내가 엄마의 역할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차피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한테 다 투자를 하면 마음이 안 편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은 애들만 보면 자기 마음이 불편하거잖아요.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한 거는 지금은 엄마 역할에 제일 충실한 게 내 마음이 제일 편해지는 것 같아요. (최현선)

박선영은 취미활동으로 재즈 피아노를 배우고 싶고, 작가라는 커리어를 개발하고 싶지만 양육으로 인한 시간적 제약 때문에 자기 계발을 못하고 있다. 박선영은 이런 상황을 문제로 느끼지는 않지만 ‘엄마다운 모습이 제일 여자다운 모습’이고, ‘여자로서 행복해야 엄마로서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엄마’와 ‘여성성’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가치체계를 구성한다.

<58>

애기를 낳기 때문에 욕구적인 부분에서 갑자기 다 없어지기를 기대하는 것도 있는 거 같고, 여자와 엄마로서 상충하는 거. 나는 다 같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로서 행복해야 엄마가 행복한 거고, 엄마가 여자이면서 엄마이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느꼈던 게 어쨌든 뭔가 세상에서 말하는 거랑 다르게 내가 먼저 긍정적인 뭐랄까 그 상을 정립해야겠다. 그래서 나는 제일 엄마다운 모습이 제일 여자다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박선영)

최현선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것이라 추측해 무엇인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어 했지만 막상 육아를 해보니 장기적으로 직장생활보다 더 ‘생산적인 일’이라는 생각으로 ‘생산적인 일’의 의미를 육아로 확장한다.

<59>

어느 정도 공부도 했고, 공부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공부를 한건 아니니까, 내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것 같고 그랬었는데, 애기를 키워보니 애기 키우는 것도 경제적으로 뭔가 들어오는 건 없지만 생산적인 일이라는 장기적으로 보면 더 생산적인 일 일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현선)

육아와 병행하며 ‘나’의 욕구 중에 최상위 욕구인 자아성취를 이루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한 엄마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재구성하면서 삶의 방향을 재탐색한다. 답답할 것 같았던 육아는 ‘생산적인 일’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고, ‘엄마’의 모습이 가장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생각되기 시작했다. ‘나’를 위한 것은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자녀 양육을 하는 것으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다. 자신을 위한 생활을 할 때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죄책감이 생기는 것은 자녀는 엄마가 돌봐야 하는 모성 이데올로기적인 생각을 엄마들이 내면화하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5) ‘제 2의 인생을 살거야’

엄마들은 지금 못하는 일들을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대학 진학 때까지 자녀를 돌보는 것이 엄마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를 대학에 보낸 후에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한다. 최현선은 육아에 묶여 하지 못 했던 공부나 취미 활동을 하면서 ‘자기계발’을 하고 싶어 하고, 작은 커피숍을 하는 미래를 꿈꾼다.

<60>

처음에는 애들 학생일 때는 내 생각이 이상적인 거는 뭐 배우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뭐 요리가 됐든, 언어나 그런 것들을 배우러 다니고 싶고, 계속 지금 상태로만 있거나 애들이 조금 더 크면 그런 거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하는 건데 작은 커피 집을 한다거나 조금 관심가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애들 커서 대학가거나 그러면 계속 공부 같은 걸 하고 싶어요. 뭐 라도 하고 자기계발을 하고 싶어요.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싶고. 지역이 초등학교까지만 되도 멀리 좀 여행 좀 다니고 그러고 싶어요. (최현선)

자녀 중심의 삶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빨리 나이가 먹고 싶은’ 서민정은 ‘독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현재 자신의 삶이 자녀들에게 ‘구속’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독립’을 한 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녀는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학원비를 충당하느라 배우지 못하는 노래, 스포츠 댄스를 배울 계획을 세우며 설레어 한다. 자녀에게서 ‘독립’하여 취미활동을 하는 ‘제2의 인생’을 계획하며, 현재 자녀에게 묶여 있는 삶을 인내하고 있다.

<61>

나는 빨리 나이 먹고 싶은 사람 중의 하나야. 물론 늙고 외모적인 거는 싫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난 독립할 수 있거든. 나는 그때 나의 제 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이정도로 하는 거는 만족해. 금방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빨리 고통을 겪었지만 빨리 풀 수 있으니까. 물론 그때 돈이 있어야겠지. 배우고 싶은 거 배울 거야. 일단 노래 교실 다닐 거야. 노래 교실은 지금도 다니고 싶은데 못가 너무 어려서. 일단 노래교실 다닐 거야. 배우고 싶은 거 있잖아. 스포츠 댄스 이런 것도 배우고, 지금은 시간이 안 되니까 시간도 그렇고 재료비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못 가는데 그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취미 생활을 제일 많이 할 거야. 그러면서 쇼핑을 하겠지. 지금 내가 말하는 어느 정도 산다는 전제하에, 뭐 나는 남편이 이혼하지 않는 이상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하고 연금가지고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막 그렇게 허덕이게 살지는 않을 것 같아. 바라는 거지 바라는 거. 그렇게 살 거야 내 인생을 위해서 살 거야 (서민정)

작가가 꿈인 박선영은 자녀 양육으로 미뤄지는 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중 둘째 임신 사실을 알면서 인생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운다. 둘째 양육까지 고민을 하면서 30대는 자녀 양육과 자신의 꿈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설정하고, 자녀들이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연령이 되는 40대에 꿈을 실현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62>

그리고 난 아직도 솔직히 따지고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어차피 나이에 관련을 받는 건 아니니까, 진짜 글을 써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재미겠다. 그런 생각, 다시 그런 기쁨을 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둘째 생기니까 조금씩 길어질 수 있겠는데, 결혼하면서 생각하는 것도 많이 바뀌고, 스타일도 많이 바뀌고, 나는 어떻게 생각 하나면 40대부터 정말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잡는 거가 목표인거 같아요. (박선영)

‘엄마’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오롯이 아이와 가족에게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에게서 ‘독립’되는 시간을 기다리며 미리 계획을 세운다. 자녀 양육에 집중하느라 유보했던 다양한 취미활동이나 자기계발을 구상한다. 연구 참여자들이 ‘자아성취’를 포기하지 않고, 시간적으로 유보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의 내면에는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지지 않고, 항상 존재하고 있다.

5. 소결

‘엄마 되기’는 출산과 초기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육체적인 고통과 피로감, 정신적인 스트레스,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출산의 고통은 경험해 본 적 없는 엄청난 고통이었고, 몸의 회복과정도 자궁수축통, 골반 통증, 유선염과 같은 육체적인 통증을 수반한다. 갓 태어난 아기가 신기하면서도 낯설고, 아기를 안는 순간 바로 생길 줄 알았던 ‘모성애’는 아기와의 유대감이 형성된 이후에나 생긴다. 밤새 우는 아기와 씨름, 하루 종일 젖을 물려야 하는 모유수유, 알 수 없이 찾아오는 우울감, 자신을 위한 시간의 박탈은 출산한 엄마들의 일상이 된다.

육체적 피로와 부정적 감정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면서, ‘엄마’라는 미명아래 ‘왜 나만’이런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지 부당하고 억울한 감정을 느낀다. 아기의 탄생 이후 전통적인 성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일상의 변화와 다르게 남편의 일상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서 ‘컬쳐 쇼크’를 받는다. ‘컬쳐 쇼크’로 내재되어 있던 분노가 남편에게 표출된다. 자녀를 훈육하기 시작하면서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던 분노와 화를 직면하고, 낯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당황해 하기도 한다. 또한, 인내심의 부족으로 훈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컬쳐 쇼크’로 다가오는 일상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연구 참여

자들은 나름의 해결방법 찾는데, 상황의 변화를 내면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과 함께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려고 노력한다. 몸이 회복되면서 ‘피붙이’, ‘내 새끼’를 돌보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은 변화된 상황을 자연스럽게 ‘그냥 수용’한다. 그리고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지역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인들과 ‘어울리는’ 자기만의 시간을 마련하며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엄마들은 양육이라는 제한된 조건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비일상적’인 활동을 점진적으로 자신의 ‘일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모성역할에 익숙해질지라도 ‘나의 욕구’와 ‘모성역할’의 대립은 사라지지 않는다. 외모를 가꾸고 싶은 욕구, 커리어를 계발하고 싶은 욕구, 취미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이렇게 모성역할과 ‘나의 욕구’가 대립하는 갈등상황은 학습 상황이 되고, 모성역할을 학습하면서 갈등은 점진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변한다. 또한, 자녀를 키우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아이들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있는 ‘양가감정(兩價感情)’은 마음의 비균형적인 상태를 야기한다. 엄마들은 마음의 균형을 잡기 위해 자기반성을 하게 된다. 반성의 결과로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고,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된다. 가치관의 변화는 모성 이데올로기적인 내용을 수용하거나 내면화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모성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아성취’를 포기하지 않고, 유보할 뿐이다. 자녀 돌봄 노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쓰기 때문에 우선 시간적으로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미래를 예측하고 그때부터 취미활동이나 사회생활을 하고자 한다. 현실적인 제약으로 ‘모성역할’과 ‘자아성취’를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연구 참여자들 내면에는 ‘언젠가’는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자아성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다.

IV. ‘엄마’에서 ‘좋은 엄마’ 되기

‘좋은 엄마’는 어떤 엄마인가?’라는 고민을 시작하면서 엄마들은 자신이 받았던 가정교육의 내용을 떠올린다(손연아, 손은령,2013). 가정교육은 주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가치관 교육, 부모와의 소통과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엄마들은 자신의 학창시절을 반추하면서 교우관계, 학업, 진로와 같은 과거 경험을 가정 교육의 경험과 함께 재구성한다.

1. ‘엄마한테 없던 모습을 더 주고 싶어요’

1) ‘어려운 일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심력(心力)과 사회성’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보다는 친구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주선은 자녀들이 학교생활에서 ‘또래관계’가 좋아 문제없이 학교를 잘 다닐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자녀들의 사회성을 키워주면 학업 성적이 좋지 않을지라도 인간관계를 통해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3>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안전이나 생명과 관계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많아 그런데 지금은 학교가면은 또래관계 그게 제일...잘 지내는지 그게 그렇고, 나머지가 공부나 그런 거는 자기 할 바니까. 친구관계가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중략> 내 아이들은 그런 사회성을 키워주면 공부를 약간 못해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해주고 싶지. 내가 지내보니까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일단 그 시기의 애들은 심력, 마음이 강한거랑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걸 헤쳐 나갈 수 있는 심력이랑 사회성, 이게 아이들이 나중에 큰데 나가서 살아남는데 되게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 (이주선)

이주선은 명문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도 잘 했지만 사회성이 부족한 자신의 성격 때문에 사회생활이 쉽지 않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학업보다는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사회성이 충분히 발달하기를 원하며, 사회성이 발달할 수 있는 장을 자녀들에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엄마’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가정에서 교육받은 종교적 가치관을 기준삼아 편협한 인간관계를 유지했음을 ‘엄마’가 된 후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에서 자녀 양육이 이주선의 삶을 반추하고 반성하게 하는 기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64>

나 진짜 학교 집 학교 집만 왔다갔다 대학가서도 거의 애들이 하는 노는 거는 기억이 없고, (본인이 강요를 하지 않았는데 잘 따른 거잖아) 강요는 하지 않으셨는데, 신앙교육도 기질적으로도 있고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게 유난히 심했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운 게 그렇게 자라지 않았으면 사회생활 하는데 더 스트레스 없이 했을 텐데, 심하게 나를 압박하다보니까 술자리도 너무 불편하고, 그런 게 다 너무 불편함으로 다가와서 다 싫었던 거 같아. 다 불편했던 거 같아. 나는 사람을 구별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걸 내가 나이 들어서 알았어.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선을 그어버리는 거야. 물론 믿는 사람 중에도 아닌 사람 많잖아. 일단은 거기서 커트를 하고 믿는 사람 중에도 고르고 그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 그게 다 애 낳고 키워보니까 알겠더라. (이주선)

조희주는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사춘기를 보냈다. 공부를 잘 했지만 고등학교때 어울렸던 친구들이 학업 보다는 노는 것을 더 좋아해 자신도 덩달아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놀기만 했다고 기억한다. 고등학교 때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며, 미래를 준비 했었다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 추측한다.

<65>

고등학교 때는 진짜 사춘기였거든요. 그런걸 생각하는 사춘기가 아니었고, 정말 공부를 안 했어, 공부를 정말 안 했어, 고등학교 때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거든. 친구들과하고 놀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즐거움이 좋았던 거지.
(조희주)

조희주는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자녀가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학교에 입학하기를 희망한다. 조희주는 ‘퀄리티’가 좋은 학교에 좋은 아이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경제적 풍요가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부자 동네의 학교는 ‘퀄리티’가 좋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조희주는 좋은 친구의 영향력을 자녀에게 이야기하며 ‘친구를 가려서 사귀라고’ 말해주는 것 보다 좋은 동네로 이사해, 좋은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 싶어 한다. 그녀는 ‘좋은 엄마’는 자녀가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66>

학교가 퀄리티가 주변 동네가 좀 괜찮아야지. 학교도...물론 강남의 잘 사는 아파트 안에 있는 학교라고 해서 애들이 다 퀄리티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물질적으로는 풍요할 수 있지만 부모들이 정신적으로 되게 이상할 수도 있고, 그런 갈등을 해요. 지금,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까 차라리 경제적으로 그럴진 몰라도 이렇게 자연에서 뛰어 놀면서 애들한테 강요하지 않는, 저는 친구의 영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략> 초중고 오면서 친구의 영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친구를 가려서 사귀라고 애기는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좋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을 아이에게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조희주)

김진희는 초등학교 때, 엄마가 교우관계 문제에 자신의 동의 없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한 사건을 떠올리는데, 이 사건은 그녀가

일종의 ‘과잉보호’를 받으며 자랐음을 보여준다. 김진희의 어머니는 딸이 학교 언니들에게 놀림을 받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기보다는 즉각적으로 사건에 개입해 교장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결혼 후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독립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김진희는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어머니의 ‘과잉보호’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본 적이 없었음을 깨닫게 된다.

<67>

우리 엄마는 이랬었어. 내가 친구랑 어떻게 되었다 이러면 우리 엄마는 무조건 내 편에 서서 들어줬는데. 나는 예은이한테 너희는 다른 거다. 내가 옳고 개가 틀린 게 아니고, 개는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줄 것 같아요.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가서 무슨 일이야? 이런 게 아니고 조금 컸을 때 이야기지만, 이 아이가 어떻게 대처하나 지켜보다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난 5학년 때 6학년 언니들이 나를 되게 미워했었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김진희 누구야 이러면서 우리 반을 찾아왔던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끝나고 집에 오는데 6학년 언니들이 내 뒤에서 막 뭐라고 했어요. 내 쪽 참고 왔어요. 내가 집에 오자마자 막 울었어요. 우리 엄마 그 다음날 바로 교장실 쫓아갔어요. (김진희)

현재의 남편과 태어나서 처음으로 연애를 한 김진희는 2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한다. 결혼 후 신혼 생활을 홍콩에서 시작하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언제나 자신의 편에서 문제에 대한 조언을 해주거나, 김진희 대신 문제를 직접 해결해주던 어머니의 양육태도로 형성된 자신의 성향이 신혼 초 남편과 불화의 원인이었다고 반성한다. 자신의 의견이 전적으로 수용되는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남편의 의견을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타인 위주로 자신의 생활이 구성되는 것이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고백한다.

<68>

엄마가 나를 중등교육을 하면서 ‘세상은 원래 이런 거다’라는 걸 조금 일깨워줬었다라면,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더라면 좋았었을 것 같고, 남편과의 관계에 있었을 때에도 남편이 내 위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도 오빠 중심으로 한 번쯤 돌아갈 수 있다는, 부인이 그래야지 가정이 잘 만들어져 간다는 거를 빨리빨리 내가 받아들이고 고쳤을 거 같은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가 정신적으로 무너졌어요. 나는 친구도 바뀌고 남편도 그렇지만 주변 환경, 남편을 통해서 만난 사람도 많고, 같은 종교 아닐 때는 내가 특히 더 힘들었어. 가치관 다른 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내 의견이 말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런 사람들이 처음이어서 이런 세상이 있는 거를 몰랐었어. (김진희)

약 25년의 시간을 제한된 인간관계를 맺으며 성장한 김진희는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김진희의 가족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종교적 성향이 다른 사람과 어울릴 기회도 많지 않았다. 그리고 예중, 예고, 음대를 다니면서, 주로 음악 하는 사람들과 어울렸다. 김진희는 결혼을 통해서 자신이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녀는 물리적으로 한국을 떠나 생활해 본 적이 없는데, 결혼 후 남편의 홍콩발령으로, 신혼 생활을 홍콩에서 시작하였다.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로서 결혼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사는 것도 힘들었다. 그리고 홍콩에서 새롭게 만난 친구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외국에서 다른 배경의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김진희는 일종의 ‘문화충격’을 경험한다. 어떤 상황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이나 대처 방법이 자신과 다른 것에 충격을 받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면서 이런 ‘문화충격’을 받은 원인을 어머니의 ‘과잉보호’에서 발견한다.

<69>

나는 너무 음악 하는 친구들만 만났던 거예요. 보통 현악기는 초등학교 때 시작을 해요. 중학교 같은데 가고, 비슷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도 비슷한 학교에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오케스트라 하면서도 다 비슷비슷해. 그 사람들이고, 흔히 난 직장생활 하나도 몰라요. 중학교 때 선배랑 오케스트라 같이 하면서도 언니, 언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보통 사회생활 하면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세지고 자기를 방어하는 능력도 생기는데, 그런 거 없이 내가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간 곳이 홍콩인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좋은 것도 많았지만, 뭔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르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나는 처음 봤던 게, 문화적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김진희)

김진희는 삶을 반추하면서 성장과정에서 사회성의 부족으로 겪었던 경험들을 재구성 한 후, 사회성 부족의 원인이 ‘과잉보호’와 ‘종교적인 가정교육’의 양육방식에 있음을 깨닫는다.

2) ‘애들 학교에 열심히 다녀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서민정은 어머니들 모임과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녀의 학교생활에 집중한다. 초등학교 시절 외모 콤플렉스가 있던 어머니가 학교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아 실망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자녀들의 학교행사와 어머니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70>

나는 엄마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그때 엄마가 아팠어. 그때 엄마가 입 수술을 해가지고, 나는 그때 엄마가 약간 돌아간지 몰랐는데 그게 나를 엄마 콤플렉스였나 봐. 엄마가 수술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야. 급식이라든지 학교에 와야 될 때마다 엄마가 학교에 안 왔어. 자기 자신이 그래서 그랬나. 그때 생각하면 너무 싫었어. 그

때는 그래서 내가 지금 애들 학교에 열심히 다녀. (서민정)

서민정은 학업과 관련해 상반된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한다.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에게 ‘촌지’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학업과 진로에 열성적이었던 어머니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기대와 다르게 상업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자신의 학업을 포기했던 어머니의 모습도 기억한다. 어머니가 대학입시 삼수 후에 유학 준비하는 언니는 열성적으로 ‘뒷바라지’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자신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을 보면서 언니에게 질투를 느끼기도 했다.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서민정은 자신의 학업을 포기한 어머니를 비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녀들의 학업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하는 그녀의 어조에서 ‘어머니의 포기’가 현재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1>

그냥 하기 싫는데 왜 자꾸 하라고 하나 공부를 해야 하는 건 알았지만 그때 알잖아. 나도 자식을 키우면서 똑같듯이 해야 되는 걸 알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싫더라고, 나중에는 후회가 되기는 한데 그러면서 중학교 때는 엄마가 학교에 되게 적극적이었어. 왜냐하면 학교 좋은데 보내려고 선생님한테 그때만 해도 촌지 같은 거 많이 있는 시절이래서 중학교 때 엄마가 그런 거 많이 했어. 근데 엄마 뜻대로 안됐지. 내가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때 가서는 엄마가 아예 성적표 물어보지도 않고, 상관 안 했어. 학교 졸업식 때만 한번 왔어. 고등학교 가서는 아예 공부하는 거 신경 안 썼어. (서민정)

학창시절 공부를 잘해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명문대를 졸업한 조희주는 자신의 경험상 ‘공부도 때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부모가 강압적으로 이끌고 가지 않더라도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업에 열중할 것이라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생각한다.

<72>

공부도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내가 발레나 악기를 시키는 게 공부는 때 되면 다하는데 그거는 시간도 필요하고 잘 하기까지. 그런 거는 나중에 생각했을 때 엄마가 이런 거는 나한테 시켜줘서 되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조금 힘들더라도 해주고 싶어. (조희주)

그리고 중학교 때 첼로 배우기가 싫어 그만둔 것을 성인이 된 후, 후회하면서 예체능 교육은 부모가 강제적으로라도 이끌고 해주어야 성인이 돼서도 문화·예술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녀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악기를 배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어머니한테 ‘터치’받지 못했던 부분을 자녀에게 해주고 싶어 한다.

<73>

지금 생각해보면 아쉬운 점도 있지. 예를 들어, 악기 같은 것도 내가 중학교 때 첼로를 배웠는데 좀 하다가 하기 싫어서 안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엄마가 푸시를 해줘야지. 이런 거는 해야 된다 이랬으면 지금 잘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쉬운 거야. 그런 점도 아쉬운 점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은주한테 내가 엄마한테 터치 못 받았던 점들 있잖아요, 너무 자유분방하게 키우신 게 좋긴 했지만 내가 터치를 못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은주에게 터치를 해주고 싶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조희주)

1970-80년대 태생의 연구 참여자들은 주입식 교육의 폐해를 몸소 체험해 알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 방법을 선호한다. 또한 대화기술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하여 최현선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대화할 때 그것과 연관된 다양한 영역을 대화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며, 자녀의 사고력 발달을 학업 성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74>

나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할 때 암기식으로 했거든요. 몰아서 하고 국어 이런 것도 역사 이런 게 있으면 역사 사회 이런 거 있으면 서로 연계되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하나가 이야기가 짝 되면 연결 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렇게 안하고 암기하느라 바빴거든요. 그러면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지금도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영이는 안 그랬으면 애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래 같은 걸 하더라도 노래에서라도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거는 여기 있지 연결 연결해서 볼 수 있게 하거든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하면 딱 떠오르면 그 다음 생각도 할 수 있게 애가 생각을 많이 해서 창의적인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당장의 성적이 좋고 나쁘고 가 아니라. 그런 사고도 하고 자기 의견도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그런 게 사회생활하거나 커가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최현선)

연구 참여자들이 학교생활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우관계였고 ‘좋은 엄마’는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 사회성이 발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간접적인 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업에 대해서는 참여자마다 생각이 다르기는 했지만 어린 자녀들에게는 대체적으로 공부보다는 사고력, 인성 발달이나 예체능에 관련된 기술을 학습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학생의 자녀는 학교 성적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좋은 엄마’가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3)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요’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성장과정 경험을 재구성 했을 때 다양한 경험의 부족과 부모와 소통의 부재는 부모님의 양육방식에 기인한다고 평가한다. 성장과정 경험에서 부모가 ‘너무 내버려뒀다고’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한 간섭은 아니지만 ‘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것

이 ‘좋은 엄마’의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75>

강요하지 않고 옆에서 그냥 진짜 조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돼야겠죠. 좀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애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우리 부모님한테서 부족했던 거는 너무 내버려뒀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면에서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고, 엄마 아빠랑 부모랑 시간도 많이 보내고 마음이 통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거는 필요한 거 같은데,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간섭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거 같고, (최현선)

김진희는 자신의 성장과정을 반추할 때 애정을 충분히 표현했던 엄마의 양육방식은 본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4살에 음악가의 진로를 정해 다른 진로 탐색을 차단했던 어머니의 양육방식은 지양한다. 4살부터 바이올린을 배우며 음악가가 되기 위해 성장기를 보낸 김진희는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 이런 성장과정이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 후 해외 생활에 필요한 소양을 갖추는데 방해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성장과정의 반성을 통해 자녀에게는 다양한 경험과 함께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한다.

<76>

엄마가 나에게 표현했던 사랑 같은 거는 내가 너무나 해주고 싶고, 사랑을 표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마처럼 똑같이 해주고 싶어요. 외할머니랑 엄마는 되게 긍정적인 모습이랑 항상 희망적인 말을 해주고, 자신감 높여주고 그런 거는 똑같이 해주고 싶지만 또 새로운 모습은 엄마한테 없던 모습을 더 주고 싶었던 거는 보다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고 싶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는 이런 저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이야기 해주고 싶고 (김진희)

김진희는 어린 시절 좋아했던 미술을 배우지 못한 것을 기억하며 딸이 다양한 영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한다. 학창시절 악기 연습과 레슨으로 휴가를 제대로 가보지 못했던 것이 ‘한이 맺혀’ 자녀가 십대가 되면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면서 십대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며 자녀를 키우고자 한다.

<77>

내가 그렇게 초등학교 때 미술학원 그렇게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시간 없다고 악기연습 더 하라고 연습할 시간 없다고 안 보내줬었어. 그런 것들 나는 딸한테 전공을 한 가지로 국한 시키지 않고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고 싶고, 중고등학교 때 연습한다고 산에 바다에 많이 안 갔던 거. 그런 거는 이제 조금 한이 맺혀서 딸한테는 무조건 십대라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아이를 키우고 싶어. (김진희)

또한, 김진희의 어머니 계획에는 딸의 유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김진희가 유학가는 것을 반대하였다. 김진희는 유학을 갔다면 학업적인 면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의 발달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한다. 이런 경험을 재구성하며 김진희는 딸이 진로를 결정할 때 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안을 해주려고 한다. 김진희에게 ‘좋은 엄마’는 자녀가 다양한 경험을 해서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언자, 안내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78>

엄마한테 외국에서 나도 학교 다녀보고 싶다고, 어렸을 때 중학교 땐가 초등학교 고학년 땐가 근데 솔직히 딸 애가 그랬다면 너 정말 네가 그런 뜻이 있냐고 재차 물어보고, 너 정말 가볍게 이야기한 건지 나도 신중하게 물어보고, 네가 갈려면 이런 길이 있고 장단점이 뭐고 했을 텐데, 엄마는 처음부터 그거에 대한 단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진희)

대학 입시를 앞두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고등학교 시절, 조희주는 별 고민 없이 친구들과 놀기만 하면서 사춘기를 보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반성해보니, 그 시절에 부모가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었다면, 삶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반추한다. 진로 선택에서 부모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고는 자녀의 진로 교육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다. 특히 부모가 생애주기별로 변할 미래 모습에 대해 조언을 해주었다면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 생각한다.

<79>

고등학교 때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거든, 친구들과하고 놀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즐거움이 좋았던 거지. 근데 그건 되게 좋은 거 같아. 그런 거를 엄마 아빠가 꾸게 해줘야 할 것 같아, 중고등학교 때 결혼이 아니고 네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었을 때 네가 어떤 모습이고, 그게 되게 자유분방하게 자라고 막내였기 때문에 되게 터치를 안 받고 그게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언에듀케이티드 된 것 같아. (조희주)

최현선은 진로를 여러 번 변경했다. 전공 관련 벤처회사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일이 힘들어 시험을 보고 군무원이 된다. 반복적이고 자기 성장이 없는 공무원 생활이 지루해 교사가 되기를 계획하고는 교육대학원을 졸업한다. 이런 진로 변경 경험을 가지고 있는 최현선은 자신의 인생에서 진로에 대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선배나 멘토의 부재를 아쉬워한다.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여러 직업에 관한 사전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깨닫는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게 도와주며,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엄마로서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80>

대학교 초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실천

을 하지는 않았지. 좀 알아보고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걸 했었어야 됐는데, 그게 좀 아쉬운 게 애들한테도 그게 반영이 되는데, 나는 애들한테 많은 경험을 해보고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싶은데 나한테 그런 게 없었던 거 같아요.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선배라던가 선생님이라던가. 누가 이런 여러 가지가 많다 보여주고 그 중에서 내가 선택을 했으면 좋았는데 별로 그런 게 없었던 거 같아요. 나는 범위 내에서 누가 이런 거 있다니까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되게 많은 직업도 있고, 그 어릴 때 알았으면 진작에 공부 더 해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애들한테 신랑이랑도 같은 생각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게 하고 싶은데, 그 좋아하는 걸 찾으려면 정말 많이 경험해보고 뭐든지 간에 어릴 때부터 많이 돌아다녀보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공부 성적이 좋다 나쁘다로 스트레스 주고 싶지는 않고 지금도 지영이보고 공부가 즐거워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최현선)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진로 선택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험에 비추어 자녀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좋아하는 일을 발견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자녀를 도와주려고 한다. 연구 참여자들 중 중학생 아들이 있는 서민정은 제외하고는 자녀의 성적보다는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은 엄마’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서민정은 자녀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하는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며, 대학입학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좋은 엄마’의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의 ‘좋은 엄마’ 덕목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마음이 통할 수 있게 키우고 싶어요’

유치원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조희주는 자녀 성장에 따라 자녀의 놀이방법이 바뀔 뿐만 아니라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도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큰 딸이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초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면서 자녀와의 소통방법을 배우는 것이 ‘좋은 엄마’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81>

그런 거는 공부를 해야겠다는 딸과 아이들과 소통을 하는 방법은 배워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선생님이 그러는데 놀이들도 엄마들은 두 살 세 살에 생각했던 놀이에 고정되어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자꾸 애들은 변화잖아요. (조희주)

비교적 자유분방하게 부모의 간섭 없이 자란 최현선은 그 당시에는 자신의 일에 간섭을 하지 않았던 부모님의 양육방식이 편했지만 성인이 된 후 성장과정의 경험을 재구성하면서 어머니의 양육방식을 ‘자율성 부여’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일종의 ‘방치’로 인식한다. 또한, 성장하면서 ‘가족 여행’과 같은 특별한 추억이 없고, 부모와 깊이 있는 대화의 부재를 반추하면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마음이 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좋은 엄마’는 자녀와 마음이 통하고, 소통하는 ‘엄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녀가 간섭이라고 느끼지 않게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2>

우리 부모님한테서 부족했던 거는 너무 내버려뒀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면에서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고 엄마 아빠랑 부모랑 시간도 많이 보내고 마음이 통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거는 필요한 거 같은데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간섭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거 같고, (최현선)

최현선은 ‘소통’이 자녀와의 관계 형성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일상의 여러 장에서 자녀와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그녀는 자녀에게 화를 냈을 때, 자녀와 가장 친밀한 거리에 있는 목욕시간 또는 화장실 시

간에 감정을 추스르고 먼저 사과를 한다.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서 엄마가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자녀는 ‘엄마’의 사과에 마음이 풀려 엄마 말을 수용한다. 이렇게 자녀와 대화를 통해 훈육으로 상한 감정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한다. 최현선은 자라면서 부모와의 소통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된 이후 자녀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훈육방식에 접목하였다.

<83>

큰 애한테 이야기를 해요. 씻을 때나 화장실 갈 때 보면서 아까 엄마가 너무 화내서 미안해. 이러면서 근데 엄마가 기분이 어떻게 화 났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부터는 화 덜 내도록 노력할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신에 지영이도 엄마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줘 그러면 지영이도 처음에는 울먹울먹 거리다가 ‘네’ 이러면서 근데 엄마가 뭐 어찌구 서로 풀면 그게 제일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최현선)

장은정은 모든 일을 엄마에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모-자녀’간의 소통을 원한다. 하지만 현재 자신의 훈육방식으로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다. 오히려 자신의 훈육방식으로 인해 아이가 엄마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갈등한다. 자녀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해주어야 하는지, 어떻게 훈육을 해야 거절감을 느끼지 않는지 고민한다.

<84>

사랑해 주는 거. 진짜 뭐 나중에 성인이 돼서 사립을 죽였어요. 와서 괜찮다거나 엄마한테 와서 얘기 해줄 수 있는 신뢰가 있는 관계, 엄마가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아이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나이에서부터 애와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그런 관계로 가는 길을 지금 내가 막는 거 아닌가. 애를 다른 길로 보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늘 갈등이 있고 그렇다고 야단을 안 칠 수는 없고 어느 정도가 그게 한계인가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해주고 나는 내가 엄마한테 모든 거를 가서 이야기
기를 못했거든. (장은정)

장은정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없었던 성장과정의 경험에 기인한다. 그녀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차가웠고, 어머니에게서 칭찬이나 정서적 지지를 받아 본 경험이 없
으며, 어머니에게 힘든 점을 털어 놓더라도 공감을 받지 못했던 자신
의 경험에 비추어 자녀를 수용하고, 자녀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훈육
을 하고자 노력한다.

<85>

예전에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지 미국에서 뭐 이렇게 시험보고서는
성적이 나왔는데 상위 몇 프로 상위 안에 든다고 했잖아. 근데 이
제 미국 가서 첫 번째 시험인가 그랬을 거야. 상위 30%안에 들었
다고 그래서 아니 상위 10%였나 꽤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성적표
를 엄마한테 줬는데 엄마의 반응이 너 잘했는데 예를 들어 30%였
다면 10%안에 애들하고 그렇게 해야지 더 잘해야지 그래서 나는
엄마 나보다 못한 애들이 더 많은데,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기는 하
지만 더 위에 있는 애들하고 비교를 해야지. 네가 더 잘할 거 아니
냐고, 그러면서 되게 그거에 대한 거절감이랑기 보다 엄마가 칭찬
보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그렇잖아. 하여튼 그런 약간 그런 성
격이었어. 공부에 있어서도.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면
은 뭐 예를 들면 힘든 일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를 우리
딸 딱하네. 그것보다도 아이구 왜 그랬어. 하면서 더 위로를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장은정)

‘엄마-자녀’ 간의 소통은 진로를 선택할 때 그 중요성이 나타난다.
어머니와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진로
선택을 후회한다. 조희주는 공부대신에 변호사와 같은 전문적인 직업
을 선택했다면, 가족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현선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누군가의 조언을 받았다면, 진로 변

경으로 힘들어 하지 않았을 것이고, 공무원보다는 더 재미있고 자기 성장이 가능한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진희는 어렸을 때부터 정해진 진로로 인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탐색하지 못했던 것을 아쉬워한다.

2. ‘우리 엄마처럼만 애를 키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1)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요’

김진희가 어린 시절 기억하는 가장 첫 번째 기억은 5살 쯤 어머니에게 혼이 났던 기억이다. 하지만 그 기억이 상처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이후에 어머니와 화해를 하면서, 어머니가 보여줬던 애정 표현 때문이다. 김진희는 면담하는 동안 엄마에게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맞기도 많이 맞았지만 그것이 상처로 남지 않는 이유를 사랑을 항상 ‘무한하게’ 표현했던 어머니의 훈육방식 때문이라고 회상한다. 그래서 김진희는 어머니에게 받았던 것처럼 혼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매를 들어 딸을 체벌하지만 그 이후에는 항상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안아주는’ 애정표현을 해서 체벌에 대한 상처가 남지 않도록 노력한다.

<86>

버릇없이 대들었을 때, 그때 등이던 손이던 나오는 데로 맞았던 기억은 나요. 하지만 내가 처음으로 기억나는 거는 5살 때쯤 막 혼나서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나를 껴안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나는 자존심 때문에 ‘엄마 가!’ 했던 기억이 나요. 화내고 나면 화해할 때는 사랑해 이야기를 항상 해주셨던 것 같아요. (김진희)

어머니가 체벌을 할 때는 ‘너무 싫었지만’ 사랑을 ‘무한정’으로 베풀어주어서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

에' 체벌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는다. 김진희는 자녀의 훈육을 시작하면서 성장과정에서 '체벌'을 받았던 기억들을 선별했다. '선별된 기억'들을 현재 성인이 된 '나'의 관점에서 되돌아볼 때, 상처로 남아있지 않음을 깨닫고, 그 이유를 찾는다. 성장과정의 경험을 재구성하면서 '체벌'과 연결 지어 기억나는 것은 '어머니의 애정표현'이었고, '어머니의 애정표현'의 기억들을 재구성하면서 '체벌'과 '애정표현'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성장과정의 기억들 중에서 현재 '나'에게 의미 있는 경험들을 선별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그러면서 연관되는 또 다른 경험을 발견하고, 그 경험들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일종의 학습이 일어난다.

<87>

엄마가 나한테 감정적으로 화내고 때렸을 때 기분이 계속 남았던가 생각해보면, 내가 어렸을 때 기억나, 엄마가 싫었을 때는 너무 싫었다가도 그게 딱 마무리 되고, 사랑을 베풀어 줬을 때는 그게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게 커버가 됐던 기억이 나요. 화낼 때는 화내지만 그래도 사랑할 때는 무한정으로 베풀어주면 상처가 되지 않는구나. 내가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을 애정표현으로 더 하기는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도 애한테는 크게 상처가 안 될 거라는 거를 아니까 감정적으로는 오래 가지는 않아요. (김진희)

장은정은 아주 사소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기억 중에 따뜻하고 재미있었던 기억을 선별해 어머니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모방한다. 어릴적 어머니가 재미있게 손톱을 깎아주던 기억을 되살려 똑같이 자녀의 손톱을 깎아준다.

<88>

이건 정말 웃긴 건데 (웃으면서) 나는 우리 엄마는 기억도 못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 해주겠다는 게 무슨 상상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어렸을 때 진짜 애기 때 같은데 엄마는 기억을 못하는데, 손톱을 깎아줄 때 깎고서 요만큼을 남겨서 내가 뜯어내게 했

어. 애도 같이 재미있게 한다고. 그래서 지금 정훈이 손톱을 그렇게 깎아주고 있거든. 내가 그 기억이 재미있고, 되게 엄마랑 뭘 같이 한다는 느낌, 되게 따뜻한 느낌이서. 그거 하나. 다른 거는 엄마가 해준 거 글썽...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렸을 때 엄마랑 뭘 그렇게 기억이 없어서 (장은정)

자유분방하던 어머니의 양육방식을 기억하면서 장은정은 ‘우리 엄마처럼만 애를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대학입시 후 친구들과 클럽에 가는 것을 허락했고, 학교에 가지 말고 엄마와 쇼핑을 하러가자고 제안하는 등 보통 엄마들과 다른 자유분방했던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우리 엄마는 ‘쿨’했다고 평가한다. 어머니의 이런 성향 때문에 자기와 형제들이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성인이 되었다고 자신의 성장과정을 평가한다.

<89>

나는 우리 엄마처럼만 내가 애를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뜻은, 엄마가 딱히 나한테 뭘 잘못했거나 그런 거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 이상한 행동 도둑질 같은 거 안 하고 애들 원만하게 잘 컸고, 아빠 내 조도 잘 하셨고, 지금도 아빠는 늘 엄마 칭찬 뭐 엄마가 하는 게 제일 맛있다고 하고, 당신 참 똑똑해. 그렇게 진짜 우리 아빠는 당신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좋아. 그리고 그냥 두루두루 이렇게 예전부터 친구들한테도 엄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 우리 엄마는 쿨해. 하이스쿨 때도 미국에서 12학년 1학기 땐가 대학 원서를 넣고 2학기 때는 막 노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 성적이 반영이 안 되니까. 우리엄마는 나보고 클럽 가서 놀라고 하고, 친구들이 디시에 클럽 간다고 하면 그때는 들어가면 안 되는, 미국은 되게 엄격하잖아. 다 속이고 들어가고, 그래서 그러고 어떤 날은 학교 빠지고 쇼핑가자고 그러고 <중략>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오픈 마인드고 줍 서양스타일의 그런 마인드여서 우리도 아마 그렇게 키우신 거겠지. 좋게 이야기하면은 알아서 애들이 알아서 하게끔 (장은정)

장은정이 기억을 재구성하는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 엄마처럼만’ 키우면 좋겠다는 답을 하면서 과거 성장과정을 재구성한다. 재구성하면서 어머니를 ‘대상화’해서 관찰하고 평가하여, 어떤 점을 모방할지 선별한다. 개방적이고, ‘쿨’한 성향 그리고 자율성을 준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자신을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도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싶어한다.

2) ‘엄마의 교육적 지원은 본받을 거예요’

서민정은 교육열이 높아 자신과 형제들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한다. ‘뒷바라지’를 열성적으로 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본받아서’ 자녀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다고 자신을 평가한다.

<90>

뭐 애들 키우면서 아 엄마가 나한테 교육적으로나 뭐적으로나 할 수 있을 때 지원 해줬던 거. 그런 거는 이제 본받을 거고 지켜나가고 있고, (서민정)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빚을 내서라도’ 뒷받침을 잘 해줘야 한다는 어머니의 조언에 서민정은 동의하면서, 끝까지 자녀의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원을 해주면 자녀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등학교 학업의 뒷바라지를 포기했던 어머니의 태도를 반추하면서 자녀들이 20살이 될 때까지는 ‘할 수 있는 만큼’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모성역할이라고 생각한다.

<91>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어려워도 땀땀을 지고서라도 애가 할 수 있을 때 해줘야 한다고, 시기를 놓치면 네가 아무리 돈이 많건 적건을 떠나서 그 시기를 놓치면 할 수 없다고 <중략> 그 어른이

60이 넘었는데 그 말이 인상 깊었어. 끈을 놓지 말라고 아무리 애가 공부를 못해도 그 끈만 안 놓고 부모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애 인생은 바뀐다고, 그 말을 했어. 그래서 어쨌든 내가 20살까지는 우리는 키워야 되잖아. 20살까지는 그냥 할 수 있는 내가 뒷바라지 해줄 것 같아. 그 끈 놓지 않게 할 수 있게 막 땀을 내서까지는 못하지. 내 사는 형편도 있으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재가 뭐가 모자라면 과외도 시키고, 그게 부족하면 뭐도 하고 그렇게는 할 것 같아. 아예 포기하지 않는 이상 (서민정)

자녀의 공부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어머니의 뒷바라지를 보면서 서민정은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는 자신도 어머니처럼 뒷바라지를 열심히 할 것이라고 모성역할을 스스로 규정한다. 그래서 첫째의 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하더라도, 부족한 과목은 과외나 학원에 보내면서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3) ‘제일 친한 친구는 엄마예요’

박선영이 생각하는 ‘엄마-자녀’간의 관계는 자녀가 어떤 일을 겪든지 부모에게 와서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녀가 ‘집을 가장 안전한 곳’, ‘엄마가 가장 안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를 바라면서 자녀에게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주고자 노력한다.

<92>

우리 집에서 놀자. 우리 집에 가자, 그런. 제일 안전한 거는 집이고, 엄마가 제일 안전하다. 죄를 지었을 때도 엄마 아빠가 알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엄마아빠한테 말해야겠다.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부모였으면 좋겠을 만큼의 그런 수용성을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부터 노력 중 (박선영)

박선영은 학교 생활기록부의 가장 친한 친구 항목에 ‘엄마’라고 쓸 정도로 친구보다 더 친한 관계를 어머니와 형성하였다. 이런 성장과정의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그녀는 자신의 자녀 역시 아무런 걱정 없이 ‘엄마’인 본인에게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93>

엄마는 학원 일을 하시면서 학원에 애들이 많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재정도 되게 오픈했어요. 중학교 때. 지선아 우리 집 어렵다 내가 유학 보내달라고 엄마한테 막 그러면서 유학 보내달라고, 엄마가 우리 집에 돈이 없다. 아빠가 사역에 올인 하느라고, 진짜 솔직히 돈이 없다. 엄마가 아빠랑 싸우는 이유도 나한테 되게 오픈했던 것 같아 <중략> 제일 친한 친구는 엄마. 학교에서도 제일 친한 친구 이름 쓸 때도 엄마 <중략> 좋은 점은 그냥 내가 정말 이렇게 내 성격의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실수나 뭔가 혼자 고민하고 이러지 않고 항상 툭툭 떨어버리는 것 그런 것도 그렇고. 엄마와 아빠에 대한 신뢰감. 나한테 숨겨서 뭔가 그럴 것 없으니까 그런 거랑 근데 이제 그건 힘들었지 결혼할 때 힘들었다는 게 엄마랑 나랑 너무 친했기 때문에 엄마한테 심지어 친한 친구가 없을 정도로 (박선영)

성장과정을 재구성하면서 박선영은 어머니와 친구처럼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이 현재 자신의 털털한 성격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좋은 엄마’란 자녀가 잘못을 했더라도 부모에게는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장과정의 경험과 자신의 현재 성격을 결합하여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었다고 재구성한 소통적인 어머니의 양육방식을 따라하고, 그 결과 자녀와 투명하게 소통하는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추론한다.

4) ‘신앙 교육을 먼저 할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자란 이주선과 김진희는 자라면서 배워온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있다. 이주선은 어렸을 적 받았던 기독교적인 가치관 때문에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비기독교인과는 거리를 두며 지낼 만큼 자신의 신앙이 중심이 된 생활을 했다. 특히 사춘기를 ‘호되게’ 보내 미래를 걱정하던 동생이 신앙 덕분에 자리를 잡아 평범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엄마가 자신에게 심어준 ‘믿음’과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다. 모방 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양육방식은 자신의 경험에만 비추어 재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삶을 보면서 발견되기도 한다.

<94>

내가 보면 우리 집은 은혜로 동생도 학교 다닐 때 사춘기를 호되게 겪었는데도 개는 진짜 우리 부모님은 안 그러신 스타일인데 겪었는데도 지금 잘 사는 거 보면 신앙교육이 먼저인거 같고 은혜로 사는 것 같아.<중략> (내 아이에게도) 믿음, 신앙 교육이지 (이주선)

김진희는 엄마로부터 ‘남편 잘 섬기고,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정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어머니 또한 그런 가치관을 몸소 실천하였다. 김진희는 전업주부로 행복하게 생활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처럼’만 살고자 어머니의 조언을 따른다. 여자의 인생에서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가치관을 배웠고, 현재 그 가치관에 따라 살고 있는 자신의 삶에 김진희는 만족하며 행복을 느낀다. 그래서 김진희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기독교적인 여자의 덕목을 딸에게도 가르치려고 한다.

<95>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 잘 섬기고 아이를 잘 키우는 거, 귀

에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엄마한테서. 그게 너의 역할이라는 말을 엄마가 했었어요. 나는 근데 옛날 방식인가, 나는 이렇게 해서 만족하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나는 똑같은 말을 해주고 싶어. 가정에서 행복 하려면, 남편 섬기고 뭘 해야 한다는데, 나는 딸한테 똑같은 말을 해주고 싶어요. 내가 만족을 해서 그런가 그러면 너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김진희)

‘좋은 엄마’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성장과정을 되짚어본다. 이 과정에서 엄마들은 자신의 어머니의 양육방식을 반성하면서 본인의 현재 삶에 도움이 되거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방하려 하고, 자신의 삶에 혼란을 가져오거나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양육방식은 폐기한다. 어머니의 양육방식을 반성하고 동시에 성장과정의 경험을 재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모방해야 할 것과 폐기해야 할 것을 구별하면서 ‘좋은 엄마’가 갖춰야 할 덕목을 확립한다.

3. ‘내 안에 있는 틀을 깬 거지’

1) ‘내 성격과 습관 바꾸는 것’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새로운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주선은 항상 행동을 조심하며, 경직되어 있던 자신의 모습이 자유분방한 남편의 영향으로 변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아이들과 놀이를 할 때 남편처럼 애랑 ‘웃기게 막 놀 수 있는’ 자신의 변한 모습을 반긴다.

<96>

시골 출신인 부모님 밑에서 너무 자유분방하게 방목하면서 키움을 받아서 거칠 것이 없는 스타일이지. 거친 게 아니라 자상하면서도 약간 남 의식 안하는 스타일 있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스타일. 그래서 내가 많이 절충이 되서 그런 건 되게 고맙지. 그러면서 나

도 이럴 수 있구나. 집에서 애랑 막 웃기게 논다던지 막 그런 거 있지. 우스꽝스러운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아. 애를 키우면서 그런 것도 되게 달라진 거지. 내 안에 있는 틀을 깬 거지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이주선)

자신의 성장과정을 ‘온실 속의 화초’로 비유한 김진희는 ‘엄마’가 된 이후 자녀를 제대로 훈육하기 위해 무서운 얼굴과 무서운 표정을 짓고, 매를 드는 자신의 모습을 ‘바람직한 변화’로 생각한다. 출산 전에는 자신의 의견을 큰 소리로 개진해 본 적이 없던 김진희는 자녀와 생활하면서 ‘아줌마스럽게’ 목소리를 높여 길을 묻거나, 부당한 점은 따지기도 하는 ‘새로운 성향’을 개발 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느꼈다.

<97>

결혼 전 같은 경우 나는 소리도 한 번 안 질러 봤었고, 불의하다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 따진 적도 없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여자 같은 스타일 확실히 애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성격으로는 좋게 양육을 할 수 없더라고요 뭔가 애 데리고 나가다가 궁금한 것도 소리 질러서 물어봐야 되고, 버스 탔는데 옛날에는 숙기도 없고 그래서 어디서 내리지 궁금해도 대충 눈치껏 했는데 애가 있는데 눈치도 볼 수 없고 아저씨 이거 거기서요?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물어보고 이런 변화가 필요하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한 번도, 내가 레슨으로 아이를 가르치기는 했지만 야단을 치는 건 내 성격상 못했는데, 남자로 험크처럼 변신을 해서 무섭게 혼낼 줄도 알아야 되고, 나는 손힘도 없지만 진짜 아프게 때려야지 애를 진짜 올바르게 훈육도 하겠더라고요. 한 마디로 줄이면, 아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전혀 30년간 겪어보지도 못한 나의 새로운 성향을 일부러 그거를 좀 개발시키는 거. 나는 그런 면이 전혀 없어도 어디 가서 사람들 많은데 큰 소리로 뭐가 질문도 해야 하고, 나한테 없던 성향들을 만들어서라도 개발을 시키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김진희)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하는 것뿐만 아

나라 ‘엄마’자신에게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새로운 성향을 개발’하거나 ‘내 안에 있는 틀’을 깨는 것이 ‘모성역할’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성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습관이나 성격에 변화가 필요함을 느낀다.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자녀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고, 자녀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부지런한 엄마가 되어야 하는 등 실질적인 생활의 변화가 있을 때만 올바른 양육이 된다고 인식하며, ‘엄마’가 되기 위해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한다. ‘엄마’라는 역할은 ‘나’를 먼저 챙기기 보다는 ‘가족’을 특히 ‘자녀’를 먼저 ‘챙겨 주는 사람’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습관이나 성격의 변화는 가족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과정에서 ‘내’가 변해야 하는 부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있어야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서수현은 결혼 전과 결혼 후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비교한다. ‘챙김을 받던 사람’이 ‘챙겨주는 사람’으로 변한 것을 보면서 ‘애들이 뭉이니까’ 변하게 되었다고, 변화의 원인을 ‘모성’에서 발견한다.

<98>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가 다 해줬고, 집안청소 이런 거 엄마가 다 해줬고 하니까 잘 안하고 저도 결혼을 해서는 청소 뭐 그런 게 중요해, 설거지가 뭐 중요해 이랬는데, 애들이 있고 이제 특히 유은이가 어릴 때는 낮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거기 매트랑 바닥을 소독으로 계속 닦는 거예요. 애가 그걸 먹거나 그러니까 매일매일 닦는 거예요. 하면서도 이걸 내가 굳이 해야 하나? 애 이거하나 먹으면 크게 안 되는 줄 알고 했었던 것도 있고, 지금은 안 그런데 초반에는 작은 거 하나만 애한테 해도 되게 조심시키고 진짜 별거 아닌 거여도, 애들이 같이 있고 애들이 뭉이니까, 예를 들면,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누군가를 챙겨주는 사람이 아닌데, 애들은 챙겨주는 그런 거 (서수현)

박선영은 앞으로 형성될 아이의 습관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녀의 아침을 챙기기 위해서 이른 아침 기상을 습관화하려고 노력하고, 자녀의 정리정돈 습관의 형성을 위해서 자신이 본 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녀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어떤 습관들을 바꿔야 하는지 구별하는 것은 자신의 습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우선, 자녀에게 필요한 좋은 습관에 대한 성찰을 한 후에 자신의 습관을 반성하고, 선별된 좋은 습관들에 비추어 변화가 필요한 습관들을 구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99>

솔직히 내 습관 바꾸는 거. 애기를 우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줘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신랑이야 성인이니깐 애기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니까 책임감. 그래서 내 습관을 바꿔주지 않으면 애가 안 된다는 그런 것들 밤에 너무 피곤한데 애가 놀아달라고 하면 갑자기 힘들잖아요. 원초적 육체적인 힘든 게 당연하게 있고, 육체는 진짜 그거였던 거 같아. 내가 피곤할 때 내가 못 쉬고, 아침에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닌데 그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랑 특히나는 정리 같은 거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대충 대충하면 되는데 애기가 보는 거 생각하면 엄마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나만 생각하지 않고 애의 앞으로의 습관을 위해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박선영)

이주선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이 엄마의 사회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내성적이고, 비사교적인 성격 때문에 자녀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 이주선은 나름대로 교회와 아파트 단지에서 여러 엄마들을 만나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보다 혼자 집에서 조용하게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녀는 내성적인 성격을 사교적으로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객관적으로 바라본 자신의 성격은 ‘내성적’이고 ‘비사교적’이다. 자신의 이런 성격 때문에 자녀들의 사회성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해한다. 이렇게 ‘엄마’로서 취약하다

고 생각하는 성격의 발견은 자신을 반성하며, 깨달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00>

내가 애를 키우면서 보니까 내 애들한테도 내가 여러 사람하고 막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못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엄마 성격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었던 거를 애를 키우면서 느꼈던 거고 <중략> 내가 지금도 아쉬운 거는 내가 사회성을 키워주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 나는 혼자 집에 있는 게 편해 사실은 지금도 그게 좋고 조용히 있는 게 편해 근데 애를 위해서는 그게 상당히 좋지 않다는 걸 알아. 근데 내가 항상 미안한 거는 내가 그런 환경을 일단 만들어주지 못한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좀 많이 미안하더라고 지금도 (이주선)

자신의 성격이 따뜻하지 못하고 차갑다고 생각하는 장은정은 자녀에게 따뜻한 엄마가 되려고 노력한다. 본인의 엄마를 차가웠다고 기억하고 있고, 엄마의 그런 성격 때문에 사춘기 시절 엄마와 소통하는 것이 힘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자녀와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은정은 ‘타고난 성품이 바뀔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따뜻한 엄마가 되고 싶어 한다.

<101>

애를 키우면서 그게 챌린지 그 챌린지가 나를 더 사람 되게 하는 과정이 아닌가. 나 스스로가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성격, 나의 안 좋은 그런 글썽 내 자신을 더 돌이켜보게 되는 것 같아. 내 성격이 어떤 성격이고 또 그러니까 나는 원래가 그렇게 막 나도 엄청 따뜻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내가 이거(따뜻하지 않은 성격)를 스스로 자제를 하는 거지. 자제를 해서 잘 살다가 애가 태어나니까 자제가 안 돼. 요즘 그게 문제인지 자제를 하면 언젠가는 폭발을 하는 거니까 자제라는 단어는 자제보다는 내가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 근데 타고난 성품이 바뀌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것도 따뜻

한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나...(장은정)

장은정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차가운’ 성격을 발견하고, 그런 성격이 자녀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좋은 엄마’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런 성격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자신 없어 한다. 이렇게 자신의 성격을 반성하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장은정은 자녀 양육의 과정을 ‘나를 더 사람 되게 하는 과정’, ‘내가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2) ‘엄마 감정에 따라 혼내요’

자녀를 키우면서 자신의 성격을 다스려야 할 때마다 연구 참여자들은 ‘내가 더 사람답게’되고 더 ‘성숙해지는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녀를 훈육할 때 발생하는 자녀와의 갈등상황에서 미성숙한 자녀가 단시간에 변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연구 참여자들은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고민한다. 이런 고민은 자기 자신의 성격이나 성향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반성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102>

내가 막 짜증이 났는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평소에는 제일 안 좋은 훈육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엄마 감정에 따라서 덜 혼냈다가 많이 혼냈다가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적이 있지 솔직히. 내가 막 바쁘고 짜증나고, 애가 딱 그러면 준호야! 소리 지를 수밖에 없잖아. 지금은 계속 연습을 하면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번씩 나오지요. 그럴 때 애기한테 우선 너무 미안하고 어쨌든 어리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내 자신한테 대한 실망감 그런 거 있는 거 같아. 결혼했을 때 남편의 특히 너무 나랑 잘 맞고 굳이 나랑 부딪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준호가 그 쪽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결혼하고 성숙했구나. 착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나의 변하지 않은 습관들이 애기를 키우면서 다 나오는 그런 것들 (박선영)

‘엄마’감정에 따라 훈육을 하는 것이 최악의 훈육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가끔씩 짜증난 감정을 자녀에게 해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박선영은 자신에게 실망감을 느낀다. 훈육을 시작하기 전에는 자신이 충분히 성숙한 성인이라고 자아개념을 확립하고 있었는데, 자녀를 훈육하면서 변하지 않은 습관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자아성찰을 하고 자신의 성격이나 훈육 방식을 재정립한다.

3) ‘바이프로덕트(by-product)같은 육아’

조희주는 ‘좋은 엄마’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잘 돌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는다. 사회생활로 육체적인 피로를 느끼거나, 남편이나 지인들과의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나’를 둘러싼 환경이 편안하지 않을 때, 조희주는 ‘좋은 엄마’가 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남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에서 일이 잘 되고,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희주는 ‘나’를 성찰하고, 그 결과 육아를 편안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3>

저는 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표현하면 나에 대한 성찰하고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아이와의 싸움이 아니고 싸운다는 표현도 좀 웃기기는 한데, 내 문제인거 같아. 결국에는 애한테 잘해주거나 뭘 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지. 몰라, 우리 애들이 그렇게 뭔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내가 힘든 거는 내 몸이 힘들거나 내가 남편과의 관계가 힘들거나 그럴 때가 아이한테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성찰,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육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바이 프로덕트 같은, 육아는 그럼으로써 표현이

되는 거지 (조희주)

타인과의 갈등, 육체적 피로와 같은 요소가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때, 조희주는 자신의 불편한 감정과 육체적 피로를 이겨내고 자녀에게 온전히 집중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노력을 ‘자신과의 싸움’으로 인식한다. 육체적, 정서적, 감정적 한계를 견뎌내야 가능한 육아는 그녀로 하여금 자신을 성찰하게 만든다. 그리고 성찰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자녀와 보내는 매일의 일상에서 발견되는 자신의 성격을 반성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그런 성격이 ‘엄마’가 갖추어야 할 덕목인지 아닌지를 평가한다. 아직 인성과 인지가 성인처럼 발달하지 않은 자녀가 때를 부리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위협하고 심한 장난을 할 때 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냉정한 자신의 반응을 보면서 ‘나’라는 사람은 과연 바뀔 수 있는 사람인지,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부족한 성향은 무엇인지를 고민한다. 또한, 자녀양육은 ‘엄마’의 안정된 개인 생활의 ‘바이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는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의 고단함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것이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한다.

4) ‘엄마가 된다는 것, 인간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것’

모성 이데올로기로 짜여진 사회구조에서 모성역할을 수행할 때, ‘가족과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슈퍼맘 이데올로기와의 갈등’을 경험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나’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한다. ‘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적으로 삶을 살 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발견한다. 이렇게 발견한 역량들을 바탕으로 ‘엄마’들은 자녀 양육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앞으로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사회를 성찰하면서 이런 역량들의 유용성을 확인한다. 이런 성찰의 연장선상에서 엄마들은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 대해 성찰을 한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주선은 전인적인 인간상을 그려보게 되고, 자신이 생각하는 전인적인 인간상에 가장 적합하게 자녀를 양육하려고 한다. 인간발달에 대한 성찰과 사회에서 ‘모성역할’의 위치성을 숙고한다. 자녀를 전인적으로 균형 잡힌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개인적인 삶의 관점에서 벗어나 개인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으로 사회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성찰한다. 그러면서 이주선은 자녀들이 앞으로 살게 될 미래 사회 모습을 유추하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자녀가 사회에서 성숙한 인간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역량들을 고찰한다.

<104>

제일 중요한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이를 키우지 않았다면 인간에 대해서 더 깊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적었을 것 같고, 애를 키움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부수적인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 그래서 만약에 내 애를 키우면서도 주위에 있는 아이들을 잘 돌아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 사회에 내가 도움이 되는 거고, 내가 내 아이를 잘 못 키우면 사회에 민폐를 끼치는 거고. 그래서 그건 엄마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은 거 같고, <중략> 내가 볼 때는 엄마가 된다는 거는 진짜 인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 내 아이가 컸을 때 그런 환경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도 생겨. 그래서 환경이 정말 어떻게 변화될지 애네들이 살 때에는 어떻게 환경이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하게 되지? (되게 무섭지 않아?) 애들이 살 때를 생각하면 되게 무서워 그게 환경적인 거든 아이들이 방치돼서 그 아이들이 컸을 때 애네들이 겪어야 될 사회, 관계들 그런 것들도 무섭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참 되게 안쓰럽지. 진짜 생각하게 돼. 많이. (이주선)

‘엄마’가 된다는 것은 자녀를 ‘잘’ 양육함으로써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것이며, 인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 미래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는 것으로 그 의미를 확장할 수 있다.

4. 소결

자녀들을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에 보내게 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좋은 엄마’인가라는 고민을 시작한다. ‘좋은 엄마’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장과정을 되짚어 보게 된다.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자신의 삶을 반추하면서, 현재 자신에게 부족한 역량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또는, 성장과정의 경험을 재구성하면서 현재 자신의 존재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역량을 발견한다. 이렇게 현재 자신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준 역량들을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결합하여 재구조화 하면서 자신만의 ‘모성역할’을 규정하고, ‘좋은 엄마’가 갖춰야 할 덕목도 정립한다. 연구 참여자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한 ‘좋은 엄마’는 자녀에게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며, 수용적인 태도로 훈육을 하고, 자녀가 어떤 일이든지 본인과 상의할 수 있도록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또한, 친구간의 교우관계를 잘 알고 있으며, 학교 생활에서 엄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이의 학업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사람이다. ‘좋은 엄마’는 자녀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스스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자 역할을 하며, 부모가 믿는 가치관을 적절하게 자녀에게 전수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좋은 엄마’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성향을 개발’하고, 자신의 ‘틀을 깨고’ 자녀와 어울리며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자신과 사회 그리고 인간에 대한 성찰을 함으로서, 미래사회에서 자녀가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안내자의 모습도 ‘좋은 엄마’가 갖춰야 하는 모습이다.

‘좋은 엄마’가 갖춰야 하는 덕목을 정립한 후, 자신의 모습을 이 덕목들에 비추어 보면서 자아성찰을 하게 된다. ‘좋은 엄마’가 되기 위

해 바뀌야 하는 습관이나 성격들을 발견하면서 ‘내 피붙이’를 위해 발견점들을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한다. 자녀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면서, 인간 본성과 현재 사회를 성찰하게 되고, 앞으로 자녀들이 살게 될 미래사회를 통찰한다. 이런 통찰을 통해 성인이 된 자녀가 갖춰야 할 역량들을 개발시키려고 노력한다.

V. ‘엄마 되기’의 사회·문화적 맥락

1. ‘역할 기대감’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출산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은 연구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남편의 도움을 바란다. 하지만 ‘바깥 일’을 하는 남편은 육아를 도와주고 싶어도 바쁜 직장생활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고, 기대감이 좌절된 연구 참여자들은 남편과 모종의 갈등을 겪는다. 남편이외에 육아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시댁 식구들이나 친정 식구들이나 이들 각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일종의 ‘역할 기대감’을 갖는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 역시 남편, 시어머니, 친정어머니에게 특정한 행동양식의 ‘역할 기대감’을 갖는다. 서로에게 기대하는 ‘역할’의 행동 양식이 불일치할 때 갈등이 발생한다.

1) ‘남편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1) ‘집안 일은 모두 엄마 책임’

서수현은 남편에게 양육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남편의 귀가가 늦어, 가사를 도와주지 못할 때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며, 남편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남편에 대한 분노와 화를 경험한다. 하지만 자신의 실망감에 대해서 이야기할 해도 남편의 통제 밖의 일인 것을 알기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안 좋은 감정만 쌓인다.

<105>

그냥 좀 쉬어야지 자야지 아니면 남편 안 오면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와서 애들을 봐주거나 그랬으면 좋겠다. 기대감이 무너

지면 화가 나죠. <중략> 정신적으로는 아직은 그게 육체적인 게 더 큰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정신적으로는 아이들에게 그런 스트레스는 없는데 도와주지 않을 때 남편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남편은 안 바뀌니까 그걸 못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그거를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풀거나 하는 게 아니어서, 그냥 저절로 없어지거나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거나 그러는 것 같아. (서수현)

‘집안 일’의 모든 것을 서수현이 결정하고 관리하기를 기대하는 남편이 ‘집안 일’의 결과를 판단하며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을 보면서, 남편에 대한 분노와 화가 쌓이고,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는 갈등의 원인이 된다. ‘집밖’의 일을 하는 ‘아빠’들은 생계를 책임지며,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집안’의 일들은 모두 ‘엄마’의 책임이라는 분업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성 역할을 남편들은 내면화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남녀는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가정의 대소사를 남편과 함께 결정하기를 원하는 아내들은 남편의 태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106>

아빠도 그런 걸 좀 원하는 것 같아요. 나는 돈벌어오니까 엄마가 집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해야 한다. 하지만 나중에 결과만 보고 엄마가 이랬으니 집이 이렇지. 모든 것들이 엄마 책임으로 가니까 (서수현)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남편의 언어적 지지와 인정은 아내의 육아 효능감을 높인다. 김진희는 남편의 실질적인 가사 도움보다는 언어로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열심히 공부해서 실천에 옮긴 육아 방식을 지지해주는 것이 큰 힘이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남편이 육아와 가사는 당연히 여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면’ 감정이 상하고 자존감에 상처를 받는다. 김진희는 육아에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자녀가 자신을 힘들게 해서가 아니

라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자신을 남편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생긴다고 말한다.

<107>

내 경우에는 남편이 나를 말 한마디라도 이해해주고 힘들겠다. 해주고, 내가 도와줄게. 이런 얘기 해주면 나는 그런 말만 해주고 하 나도 안 도와줘도 전혀 감정 안상하고 애를 양육할 수 있는데, 남편이 조금이라도 은연중에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면가 아니면은 설거지는 내가 힘든데 내가 해야 돼? 이런 말을 했다던가, 아니면 육아 문제에 간섭하는 거. 나는 정보를 다 얻고 공부를 해서 애한테 이런 말을 해주고 했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하면 되잖아. 찬물을 끼얹는 말을 했다던가, 이럴 때 내 감정이 팽상하고, 남편이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을 한다던가, 그런 말을 해주면 감정적으로 온화해지고,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는 내 관리에 달려있고, 딸애가 떼 오래 쓰면 정신적으로 힘들기는 한데, 4살이 이렇지 하고 받아드려요. 아니면 어른이니까 감정적인 거는 육아 때문에 상한거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남편한테 나오는 것 같아. (김진희)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남편과의 갈등은 남편이 전통적인 성 역할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것을 요구하면서 육아에 대한 노고를 전혀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발생하였다.

(2) ‘오히려 불평등해졌어’

조희주가 경험하는 남편과의 갈등은 ‘아내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에서 발생한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가 사회적인 지위를 갖기를 바라면서도 전통적인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를 바란다. 반면에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조희주는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 끊임 없이 갈등을 한다.

<108>

근데 우리 남편은 사회생활을 하래 나는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되게 갈등이 확 되고 웃긴 거 같아. 해결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내가 진짜 공부도 못하고 그랬으면 그런 갈등이 없었을 텐데. 지금까지 공부도 열심히 했고 (조희주)

남편은 가장으로서 아내의 공부를 위해 재정적인 부담을 고스란히 책임졌지만 아내의 박사 학위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계속 지연되자 불만을 토로한다. 조희주의 남편이 토로한 불만은 남편 챙기기, 가사, 육아 등 전통적으로 아내와 엄마가 해야 하는 일들을 아내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서 기인한다. 조희주는 그런 남편의 불만을 들으면서 자신의 존재이유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다가 종교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109>

남편하고 트러블 있을 때 진짜 되게 서운했던 게. ‘네가 그렇다고 집안일을 엄청 열심히 해 그것도 육아를 해? 그렇다고 내가 내 와이셔츠를 다려줬어? 나한테 따뜻한 밥을 해줘 봤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서운하거야. 나 나름대로 정말 아침에 주스 갈아주고, 열심히 했는데. 따뜻한 밥 안 해줬다고 뭐라고 하고, 난 집안일 안 한 거 아닌데, 자기는 더 안 하면서. 집안일 안 했다고 하고 나 육아 엄청 신경 쓰는데 육아 안했다고 그러고. 나한테 마지막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면 사회에서 잘 나가던지. 한참 싸울 때 그러니까 그때 자존감이 막 낮아지면서 지금 내가 왜 살고 있지? 나는 뭐지? 나는 이 집안에서 나의 존재가 뭐지?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귀의한 게 종교였어. 하나님밖에 없어 (조희주)

조희주는 박사 논문을 준비 하는 틈틈이 강의를 해서 번 돈으로 가사 도우미 비용은 책임을 졌다고 생각하지만 남편은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한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온전히 평등할 수 없다고

느낀다.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남편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희주는 남편의 ‘제대로’ 된 아내 역할 요구를 수용한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은 주말에 쉬고, 자신은 육아와 가사를 도맡아 하는 불평등한 상황을 수용한다.

<110>

그 동안 되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불거진 문제 때문에 남편은 굉장히 자기가 가장으로서의 부담감도 컸었고, 내가 돈을 벌어서 써포트 해준다는 부담이 되게 컸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최근에 느꼈고, 근데 사실은 중간에 강의를 하면서 아줌마 비용을 내고 그랬는데, 나는 나대로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남편한테 경제적으로 백프로 의존하면서는 평등하기가 힘든 것 같아. <중략>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번에 막 남편이 불만을 이야기해서 나도 모르게 ‘그래 내가 이런 걸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동안 그런 거지 나도 학교에서 힘든데 주말에 왜 내가 애를 봐야 되고 자기는 왜 운동가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불평등해졌어. (조희주)

조희주는 남편의 불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은연중에’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실천에 옮겨 남편과 ‘오히려 불평등 해진’ 관계가 되었다. 남편에게 출산과 육아로 학위 취득이 늦어지는 것을 이해하고 배려해달라고 대화하기 보다는 남편의 요구를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수용하는 조희주의 모습에서 여성들 스스로도 분업적이고, 전통적인 성 역할을 내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친구 같은 아빠’

아버지와 시간을 보낸 적이 별로 없어 거리감을 느끼는 조희주는 남편이 자녀들에게 ‘친구 같은 아빠’가 되기를 바란다. 남편이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속상한’ 감정을 느끼면서 남

편에게 불만을 갖는다. 자녀들과 몸으로 놀아주는 것이 힘든 것을 알지만 ‘친구 같은 아빠’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

<111>

나는 너무 속상한 거야 나는, 남편이 그렇지 않기를 되게 바라는 거지. 항상 친구 같은 아빠가 되기를 바라는 거지. 사실 남자도 사람인데 엄마들도 소리 지르는데 어떻게 그러겠어. 짜증도 나겠지 안아줘 흔들어줘 이렇게 노는데 그걸 10번씩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내 마음은 남편이 계속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나는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냥 계속해줘 이런 거든, 아빠에 대한 모습, 내거티브한 것들이 많이 생각났던 거 같아요. 은주는 그런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조희주)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남편과의 갈등은 전통적인 엄마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남편들의 ‘역할 기대감’에서 시작한다. 결혼 후 남편과 아내, 엄마와 아빠라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된 이후 불평등한 관계가 된다. 남편이 아내에게 기대하는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이 아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 아내가 기대하는 ‘남편의 역할’, ‘아빠의 역할’이 남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 갈등이 나타난다.

3) ‘애기 엄마가 하고 싶은 것을 다하려고 하니’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며느리 또는 딸이 집에서 살림만 하기 보다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지위를 갖기 원하는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생기고 있다. 조희주의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남편은 그녀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를 기대한다.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랐던 그녀는 결혼을 한 후에 사회생활 보다는 ‘현모양처’ 같이 집안을 돌보고, 자녀들과 남편을 챙기는 전업 주부의 삶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박사 논문을 끝내기 위해서

갈등하며, 학업을 병행한다. 특히, 학교에 출근하는 자신을 대신해 시어머니가 자녀들을 챙겨주는 상황에서 공부를 그만둔다는 것은 시어머니의 노고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부담감도 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조희주에게 친정어머니는 막내딸이 교수가 되기를 바라며 결혼 전까지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였다. 친정어머니의 그런 희생을 알기 때문에 전업주부의 생활이 재미있어서 공부를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하지 못한 채 학업을 하고 있다.

<112>

항상 그게 내 마음속에 항상 있었어. 왜냐하면 엄마도 일을 하셨고, 아빠도 바쁘시고 했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 대한 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성취하고 나니까 공부에 대한 관심이 확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집 꾸미고 이런 게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애까지 낳으니까 애한테 관심이 쏠리고 갈등이 너무 강한데 사실 나는 사회적으로 욕심이 별로 있지는 않아요. 지금도 때려치우고 싶다는 생각이 많거든, 근데 못 때려치우는 게 남편이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남편의 기대와 어머니는 내가 집에 있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어머니가 희생한 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가 보상해야 한다는 마음도 있고, 지금 여기 와서 그만 두네 특히 우리 친정엄마 엄마는 집에서만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엄마한테 미안함도 있지. 내가 막내이기는 했지만 엄마가 되게 예뻐해 줬고, 나는 진짜 엄마한테 많이 받고 자랐거든. 엄마는 저를 너무 사랑해 줬고, 그거를 알고 엄마는 내가 교수가 되고 이런 거를 바랬었어. 내가 거기까지는 못 가기는 했지만 근데 여기서 그만두는 거는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이걸 붙잡고 있는 거거든. (조희주)

하지만, 조희주가 이렇게 갈등을 하는 것은 어머니의 영향이 있다. 어머니는 딸이 ‘교수’가 되기를 바라면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 잘 살기를 희망한다. 딸이 결혼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전통적이 가치와 교수가 되어 직업여성으로 사는 현대적인 가치를 동시에

제시하였다. 두 가지 상반되는 가치들 사이에서 조희주는 어떤 가치를 우선시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항상 갈등한다.

<113>

우리 엄마는 일관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공부 안 하는 걸 되게 싫어하고, 학교가 있니? 그러는데 결혼할 시기가 되니까 결혼해야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아야지. 그런 이야기 하고 그냥 굉장히 두 가지를 동시에 (조희주)

자녀를 양육할 때 어렵지 않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다.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박선영은 친정에서 10분 거리에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 박선영의 친정어머니는 천성적으로 아이들을 좋아하며, 유치원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 아이들을 돌보는데 전문가이다. 박선영은 이런 친정어머니의 도움 덕분에 주변의 아기 엄마들과는 다르게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 별 어려움 없이 친구들과 만나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볼 수 있으며, 가끔은 자녀를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도 한다. 이런 딸의 모습을 지켜본 친정어머니는 아기 엄마가 싱글 친구들이 하는 모든 여가활동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며 꾸지람을 한다. 하지만 박선영은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도 아기 엄마이기 때문에 생활적 제약이 있으며,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을 이미 많이 포기했다고 생각한다. 친정어머니는 ‘엄마’라는 역할 중심으로 박선영의 생활이 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박선영은 자신의 개인 생활을 이미 많이 포기했기 때문에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가끔 여가를 즐기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 갈등이 발생한다.

<114>

한번은 엄마의 코멘트에 충격을 받았던 게, 엄마가 애를 적극적으로 봐주니까 애를 자주 맡기고, 나가서 놀고 들어오면 ‘선영아 너는 애기 엄마인데 참 애기 엄마 같지 않고 왜 네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려고 하나’. 친구 만나서 밥 먹고, 쇼핑가고 영화보고 영화

까지는 욕심도 안 냈고, 그냥 가서 밥 먹고 차까지 마시고, 근데
엄마가 이제 너는 애기 엄마야 이러는 거야 나한테, 영 근데 애기
엄마인데 네가 다른 애들처럼, 싱글인 네 친구들처럼, 애기가 없는
네 친구들처럼 똑같이 하고 싶어 하면 안 되지. 내가 그랬었나?
<중략> 엄마는 그걸 보면서 우리 딸은 좀 철이 없구나. 옛날 거를
좀 포기해야 하는데. 내가 있기 때문에 옛날이랑 똑같이, 근데 내
입장에서 나는 엄마로서 많은 거를 줄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 엄마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해? 이런 거지. 너는 내가 이 만큼이나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힘
들어하는데 (박선영)

연구 참여자들이 ‘엄마’가 되고 나서 경험하는 가족과의 갈등은 ‘모
성역할’, ‘아내 역할’, ‘아빠 역할’에 대해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
어서 생긴다. ‘모성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엄마’들을 배려하기 보다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남편이 생각하는 ‘모성’의 행동양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2. ‘모성 이데올로기’와의 갈등

1) ‘자녀 교육은 엄마가 관리해야 하는 일’

한국사회의 교육문화가 경쟁적으로 바뀌고 신자유주의에 의해 학력
주의와 능력주의 사회가 되면서, 자녀의 교육 문제는 ‘엄마’들이 관리
해야 할 ‘엄마의 일’로 간주된다. 아동관의 발달과 조기교육의 성과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엄마’들은 자녀의 조기 교육에 집중하
게 된다(박혜경, 2009). 최현선은 주변 엄마들처럼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딸에게 이것저것 사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인지 갈등한다. 초등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이 놀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학원을 다니
는 모습을 보며, ‘애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조기 교육을 어쩔 수 없이 시켜야 하는 현실을 보며 어떤

것이 아이를 위해 좋은 것인지 고민한다.

<115>

학습적인 면, 영어를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애들한테도 뭔가 많이 시켜야 되는 거 있잖아요. 딱 드는 생각은 그런 것 밖에 없는데 뭐 진짜 계속 이야기했듯이 초등학교 전까지는 뭐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시켜야 되는 거. 근데 생각은 다들 그렇잖아요, 애들 불쌍하다 그런 생각은 많이들 하면서도 다 시키게 되고. (최현선)

유아에게 조기 교육을 강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녀의 성공이다. 한국사회에서 성공의 의미는 명문대학을 졸업해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다. 이런 성공에 큰 의미를 두다 보니 자녀교육에 있어서 인성이나 정서적인 측면의 교육보다는 학업위주의 교육에만 더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조희주는 이런 사회적 흐름에 반대하며, 나름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교육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116>

사회에서 원하는 엄마들은 어쨌든 아이들 잘 써포트 해주고 교육 잘 시켜서 뭐 나중에 그 사회에서 대학을 잘 가거나, 좋은 직업을 얻거나 그렇게까지 하게 하는 너무 그런 교육적인 거에만 포커스가 되어있고, 정신적인 거나 인성은 너무 관심 없잖아요. 나는 그게 싫더라고 그런 거 같아요. (조희주)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아들을 둔 서민정은 한국 엄마들의 교육열과 대학의 서열과 스펙에 따라 취업이 결정되는 현재 상황에 불안한 마음을 갖는다. 서민정이 갖는 불안함은 아이의 성적이 떨어져 ‘인서울’⁵⁾ 대학에 입학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저조한 성적으로 아들이

5) ‘인서울’은 영어의 ‘in Seoul’을 한글자화 한 것은 서울 소재 대학을 총칭하는 것이다. 그만큼 대학입시의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서울 소재 대학이 ‘서울대’라고 할 만큼 ‘인서울’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생각한다.

좌절하여 공부를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커져간다. 한국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대학 학위가 꼭 필요한데,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하는지 회의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대학이 목표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한다.

<117>

이 사회가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따라가는 것 같아. 외국에 나가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서 버티려면 대학이 목표니까. 근데 불쌍해 불쌍하기는 해 할 때 보면, 저렇게 해서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거(성적)에 대해 좌절감은 지가 얼마나 크겠어. 그거에 대한 것도 엄마로서 되게 불안스럽고 자기가 놓지 않을까 열심히 하거든 열심히 한 거에 비해 성적이 안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매번 잘 나오는 거는 아니란 말이야 중학교에 와서는 더럽게 열심히 해 그런데 그만큼 안 나올까봐. 그러면 지가 실망할까봐 그런 것도 신경 안 쓸 것 같지만 신경 쓰지 (서민정)

조기 교육부터 시작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사교육까지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교육을 관리’하는 것이 엄마가 해야하는 일이라는 것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자녀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녀 교육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엄마한테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서수현은 엄마들이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를 양성해주기를 사회가 바라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오전에 엄마들끼리 모여 답소를 나누는 것도 엄마들의 친목 도모의 목적 보다는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숨은 목적이 있다. 겉으로는 이렇게 모여 정보를 교류하고, 자녀 교육에 열성을 다하는 엄마들을 사회가 비난하는 것 같지만 정작 자녀 교육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엄마에게 떠넘기는 ‘모순성’을 서수현은 지적한다.

<118>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나 그런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엄마들이 가정교육으로 시작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뤄주었으면 그래야 나중에 자기들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쓸 수 있으니까 <중략> 엄마들끼리는 애들 학교에 보내놓고 차 마시고 그런 모임이 있다면서요, 사회에서 볼 때 엄마들이 왜 꼭 그 시간에 집에 있어야지 나와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그 자리 그 모임에서 그런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육아나 교육이나 본인의 의견이나 정보교환이 되잖아요. 그런걸 뭐라고 해야 하나... 엄마가 아닌 사회에서는 되게 안 좋게 보는 것 같지만, 남자들도 그렇고 어른들이 볼 때는 안 좋지만 막상 모든 책임은 엄마한테 있는 것 같고 (서수현)

사회·문화의 기본적인 전제와 자녀 양육에 대한 ‘엄마’들의 생각이 다를 때 갈등이 발생한다. 연구 참여자들이 느끼는 자녀 교육에 대한 한국사회의 전제는 엄마의 적극적인 ‘자녀 교육 관리’로 좋은 대학을 졸업하여, 뛰어난 인재가 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성공의 모든 책임은 엄마에게 있다는 무언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엄마들은 사회가 생각하는 성공의 틀에 맞춰 자녀를 교육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소신대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인지 갈등한다.

2) “슈퍼 맘’을 원하는게 아닌가’

‘슈퍼맘’은 ‘집밖’에서는 직장생활을 통해 사회에서 인정받고, ‘집안’에서는 완벽하게 집안 살림을 하고,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꼼꼼히 신경써 아이들도 잘 키우는 엄마를 일컫는 신종어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가 엄마들에게 ‘슈퍼맘’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주선은 정작 자신이 만나는 엄마들은 대부분 전업주부이며, 직장생활 보다 자녀를 우선하는 엄마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한다. 신문기사나 티비에서는 ‘슈퍼맘’을 ‘좋은 엄마’, ‘좋은 아내’로 이상

화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그런 엄마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119>

사회가 맞벌이도 하면서 뭐 집안일도 완벽하게 하면서 ‘슈퍼맘’을 원하는 게 아닌가 그랬는데, 지금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엄마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준영이 반에도 26명인데 풀타임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엄마는 3명밖에 안 돼. 그리고 3-4명 정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나머지는 다 전업주부야. 이 동네가 못 사는 데는 아니니까 인천에서는 좀 사는 데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애를 케어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주선)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엄마는 자녀에게 자신의 생활을 맞추는 엄마이다. 영아는 당연히 모유를 먹고, 24시간 엄마가 돌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사회가 엄마들에게 보낸다고 서수현은 말한다. 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의 등·하원은 엄마가 챙겨야 하며,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에게는 맛있는 간식을 챙기는 등, 엄마 생활은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며, 자녀를 위해 엄마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풍토를 불편하게 생각한다.

<120>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를 돌보는, 본인이 돌볼 수 있는 아이들이 어리면 당연히 모유를 먹이면서 하루 종일 옆에서 돌보고 아이가 좀 더 클 경우에는 등하원도 엄마가 챙겨주고, 아이들이 돌아오면, 아이들에게 맞춰 있는 거, 사회생활을 하든 주부이든, 포커스는 엄마가 아니고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서수현)

박선영은 사회가 예전과는 다르게 엄마들에게도 사회생활을 꾸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엄마의 ‘자아실현’을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려고 사회가 노력하지만 동시에 집안일과 양육도 완벽하게 하기를 바

란다고 생각한다. 만약, 엄마가 사회생활을 하지 않아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외모라도 예쁘게 가꾸어야지 인정받을 수 있고,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전통적으로 요구되는 성 역할을 잘 수행하는 엄마가 인정을 받는다고 느낀다. 심지어 이런 외모지상주의의 여파가 임신부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아이의 건강을 위해 음식을 잘 챙겨먹는 것이 권장되는 사회가 아니라 출산 후 몸매를 위해서 음식을 많이 먹지 말라고 권유하는 사회가 되었음을 지적한다. 엄마들이 느끼는 이런 사회의 요구는 모성 이데올로기와 타자화된 여성성을 수용하는 것이며 모성역할을 통해 사회적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엄마들의 욕망을 보여준다. 자아성취나 자기계발이 불가능한 상황이 사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엄마들의 욕망을 변질되게 만드는 것이다.

<121>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엄마를 많이 배려하는 그런 문화를 키우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슈퍼맘 아닐까? 집에서 집안 살림도 충실히 하면서 밖에서는 제대로 뭔가 하는, 돈은 하나도 안 벌더라도 끊임없이 자기를 가꿔주는, 그래서 조금 프레스가 있는 거 아닌가? 여자가 퍼지면 안 된다는 게 만연한 거 같아요. 옛날 같으면 많이 먹으라고 했다면서요. 요즘에는 어머님 살빼기 힘드십니다. (박선영)

사회가 원하는 이상적인 엄마의 모습은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을 하면서, 자녀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살림을 잘 하는 ‘슈퍼 맘’이라고 연구 참여자들은 생각한다. 남성 중심의 관점에서 여성을 타자화 한 여성의 몸매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도 느낀다. 임신 기간은 여성들이 남편에게 먹고 싶은 음식을 자신 있게 요구하며 양껏 먹을 수 있는 기간으로 인식되었는데, 요즘에는 임신부조차도 몸매를 위해 음식 조절을 권유받는다. 이런 세대는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남성의 시각에서 인식한 것이며, ‘엄마’가 되어도 절대로 ‘퍼지면’ 안 된다고 무언의 합의의 한 것이다. 한국 사회의 ‘슈퍼 맘’ 이데올로기는 전통적인 성 역

할에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와 외모지상주의가 합해져 모성역할을 비정상적으로 확대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소결

엄마들이 모성역할을 학습하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은 가족주의와 모성 이데올로기가 얽혀있는 형국이다. ‘엄마’들의 일상은 개별적 주체인 ‘내’가 어떤 형태의 일상을 살고자 하는지 배려 받지 못한 채 외부의 힘에 의해 구성된다. 가족들이 ‘아내’에게, ‘엄마에게’ 전통적인 성 역할을 기대해 갈등이 생긴다. 이런 배경에는 자녀를 위해 ‘엄마’의 욕구는 희생되어도 무방하다는 모성 이데올로기와 자녀의 교육을 엄마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가족주의가 있다. 가족의 사회적 위치 계승의 책임을 엄마에게 부여하면서 사회는 엄마에 의해 자녀의 사회적 성공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는 현대적인 여성상을 ‘아내와 엄마’에게 암묵적으로 강요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여성이 되고, 자녀 교육과 집안 살림을 잘 관리하며, 외모적으로도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슈퍼맘’을 사회가 엄마들에게 요구하기도 한다. 엄마들은 사회의 이런 요구를 느끼면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인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인지 갈등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모성역할을 스스로 규정한다.

모성 이데올로기와 가족주의는 엄마들이 경험하는 갈등의 근거가 되며, 엄마들이 모성역할을 학습하는 사회적 맥락이 된다.

VI. 논의

본 연구는 엄마가 되는 것은 여성의 본성인 ‘모성’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다. ‘모성애’는 자녀와 유대감이 형성되면서 점진적으로 발현되는 감정이고, ‘모성애’가 발현됨에 따라 엄마들은 모성역할에 익숙해져간다. 하지만 ‘모성애’가 발현되더라도, 엄마들은 초기 양육기에 비일상적인 활동으로 구성되는 일상에 힘들어한다. 이런 비일상적인 일상에서 개별적 주체인 ‘나’는 배려 받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엄마들은 더 혼란스러워한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상에서 엄마들은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모성역할 학습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재규정하게 된다. 모성역할을 수행하면서 엄마들은 중층적인 갈등과 문제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이런 상황은 일종의 학습동기와 학습 맥락이 된다.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마들은 자신의 성장과정의 경험을 반성하고, 재구성한 경험에서 의미 있는 내용들을 선별하여 자녀 양육에 접목한다. 또한,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의 행동양식에 대한 지식을 축적한다. 축적된 지식을 ‘엄마’의 관점이 아닌 ‘자녀’의 관점에서 이해하면서, ‘엄마’의 존재론적인 의미를 확립해 나간다. 자녀의 관점에서 규정한 ‘엄마’의 의미와 ‘엄마’ 본인이 성찰한 ‘모성’의 의미가 통합되어서 ‘엄마’라는 존재의 의미가 재규정된다.

‘엄마’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비일상적인 일상이 규칙적인 일상으로 변하면서 엄마들은 ‘좋은 엄마’의 의미와 역할을 고민한다. ‘엄마’로 일상을 영위하면서 성장과정의 기억이 연상되는 상황을 경험하고,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엄마들은 자신의 성장과정을 반성하게 된다.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자신의 성장과정 경험을 결합하여 재구성하면서 ‘좋은 엄마’가 갖춰야 할 덕목을 발견한다. 이런 과정은 자녀와 상호작용하며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엄마들은 스스로 규정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자신을 성찰하게 된다. 성찰과정을 통해 성격이나 습관 또는 사고에 변화가 필요함을 깨닫고, 그런

깨달음을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모성역할 학습 과정에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모성역할’ 학습으로 형성된 정체성

엄마들의 내적 갈등의 중심에는 ‘양가감정(兩價感情)’이 있다. ‘모성역할’을 수행하면서 주체적인 삶은 사라지고, 자녀의 성장을 위한 보조적이고 주변적인 존재가 되는 것에 불만을 느낀다.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나’만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 취미생활을 시도한다. 하지만 자녀가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에 다니기 전까지는⁶⁾, 자녀를 돌보지 않고 자신을 더 챙긴다는 일종의 죄책감을 느끼며 마음이 불편해진다. 자녀와 있으면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아 힘들고, ‘나’를 위한 생활을 하면 ‘자녀’에게 불성실한 것 같아 죄책감이 생긴다. 이런 ‘양가감정(兩價感情)’이 엄마들 내면의 갈등을 심화시킨다.

심화된 내적 갈등의 해결을 위해 ‘나’를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게 된다. 하지만 모성역할이 우선시 되고, 그것을 잘 수행할 때만 엄마로서 인정받는 사회구조를 인지하면서, 주체적이고 개별적인 ‘나’를 위한 삶은 잠시 유보한다. ‘나’를 위한 삶을 유보하기로 결정 하고 엄마들은 모성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신생아의 배냇 웃음을 보며 신성한 감동을 느끼고, 아프거나 졸려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엄마를 찾고, 엄마와 놀이를 하면서 행복해하고, 끊임없이 애정표현을 하는 자녀의 행동양식에 대한 지식을 구성한다. 자녀의 작은 몸짓과 행동 방식의 원인을 찾으면서 자녀를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구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엄마인 ‘나’의 존재 이유와 ‘엄마’로서 삶의 의미를 규정한다.

자녀 행동에 관한 지식을 구축하는 학습을 통해 엄마들은 자신의

6) ‘엄마’들은 자녀가 집에 있으면서 친인척이 아닌 베이비시터 같은 타인의 손에 돌봄을 받을 때 미안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같은 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것은 미안함 보다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존재 의미를 재규정하고, 환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출산 전 자녀를 돌보는 것을 답답하고 힘든 노동으로만 생각했다면,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그 관점에 변화가 생긴다. 엄마를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엄마에게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는 자녀들을 보면서, 엄마라는 존재는 단순하게 자녀를 보살피는 사람이 아닌, 자녀의 사랑과 관심을 절대적으로 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엄마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는 자녀들을 보면서 힘들게만 생각되었던 비일상적인 일상이 엄마라면 누구나 영위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학습을 통해 주체가 자신의 역할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환경을 다르게 인식하고, 이렇게 새 관점으로 인식된 환경은 모성역할을 강화하고 고착화시키는 배경이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학습의 상호의존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엄마’로서 재정립된 자신의 존재 의미를 내면화하면서 수행하는 모성역할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양육의 즐거움과 행복을 느낀다. 자녀는 엄마의 도움으로 매일매일 성장하며, 성장하는 자녀를 보면서 엄마는 즐거움과 행복함을 느끼며, 자녀를 돌보는 주체로서 엄마의 삶의 의미를 찾는다. 양육의 즐거움과 행복함을 느끼면서 새롭게 인식한 환경은 개별적 주체인 ‘나’를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정서적 안녕을 위해 ‘엄마’인 자신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환경이다. 초기 양육기에는 자신이 사회에서 소외되었다는 생각에 혼란을 느꼈다면 자녀의 안녕을 ‘엄마’의 역할과 결부하면서 엄마들은 모성 이데올로기를 더욱더 내면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자녀가 보여주는 사랑과 관심으로 엄마들은 자신의 존재이유를 ‘자녀 돌봄’이라는 모성역할로 확장시킨다. 자녀 양육을 위한 보조적이고 주변적인 존재로서의 삶의 형태가 자신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좋은 엄마’의 덕목을 갖춰 모성역할을 수행할 때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며 모성역할을 자신의 존재이유로 확고히 한다. 성취감과 만족감은 ‘엄마’의 존재 의미를 내면화하는 강화기제로 작용하고 학습자들은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엄마’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서 학습양상을 포착할 수 있다. 먼저, 익숙하지 않은 자녀의 행동양식을 이해하는 학습이 일어난다. 자녀의 행동양식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그런 행동이면에 숨겨져 있는 엄마에게 보내는 사랑과 관심의 신호를 읽어낸다. 사랑과 관심의 신호를 읽어내면서 ‘엄마’들은 자신이 자녀에 의해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거나, 사랑을 줘야 함을 깨닫는다. 이 깨달음은 ‘엄마’의 존재적 의미를 재구성하는 틀이 된다. 재구성된 ‘엄마’의 의미는 급격하게 변한 일상생활의 맥락을 이해하는 관점으로 작용한다. 자녀의 성장을 위해 ‘엄마’는 대체될 수 없는 존재이며, 자녀의 건인적인 발달은 ‘엄마’ 노력의 결과라는 의미를 구성한다. 이런 의미관점에서 자신의 욕구와 자아성취를 희생해야 하는 상황을 인식할 때, 그런 상황을 불만족스럽고 희생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아성취를 유보하고 모성역할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체적인 삶을 구성한다.

엄마들이 형성한 정체성은 자녀 성장의 전반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한국의 가족주위가 결합된 모성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측면으로 형성된다. 중산층인 연구 참여자들은 경쟁적으로 자녀 교육에 집중하기 때문에 형성되는 ‘전업 어머니’ 정체성(박혜경, 2009)⁷⁾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교육관에 의해서 자녀교육 경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도에 따라 하위 정체성을 형성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엄마로서의 정체성은 초기 양육기와 중·후기 양육기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초기 양육기에는 자녀의 육체적 성장과 기본적인 예의범절과 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훈육자’ 정체성과 ‘돌봄이’ 정체성을 형성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만 2살을 전후로 하여 자녀 훈육을 실시했는데 이것은 자녀의 행동에 일종의 경계를 설정하여 상황에 적절한 행동과 적절하지 않은 행동 그리고 기본예의범절을 가르치

7) 중산층 기혼여성 23인을 심층면접 조사한 박혜경의 연구에서 자녀교육 경쟁에 어머니들이 참여하면서 미시적으로 어머니 삶의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지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좋은 어머니는 전업 어머니이면서 자녀 교육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전업 어머니’ 정체성을 형성함을 밝혔다.

기 위함이다.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공교육을 시작하면서 엄마들은 ‘교육 기획자’ 정체성을 형성한다. ‘교육 기획자’ 정체성은 엄마들이 자신의 공교육 과정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주입식 교육방식의 폐해와 비실효성을 인식하며 형성된다. 자녀들의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관련 서적을 읽고 대화법을 시도하며 자녀의 사고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자녀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여러 주제들을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주말마다 체험학습을 다니기도 한다. 자녀들이 공교육 과정을 시작하면서 엄마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기획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엄마로서 해야 하는 역할로 받아들인다. 사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경쟁적인 교육체제에서 유아기부터 2-3년 후의 자녀 교육을 미리 기획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자녀를 사립 초등학교에 보낼 것인지 공립 초등학교에 보낼 것인지 계획하고 실천하며, 좋은 친구들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이사를 하면서까지 자녀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학교 선정에 대한 고민이 끝난 후에 엄마들은 사교육을 기획하는 모습을 보인다. 먼저 자녀에게 부족한 과목이 무엇인지 평균 몇 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지 엄마들만의 기준을 설정한다. 그 기준에 미달한 과목들 위주로 학원에 보낼 것인지 과외를 할 것인지 결정한다. 결정한 과목들의 학원비와 학원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을 조사한 후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맞으면서 자녀의 부족한 학업능력을 채워 줄 수 있는 학원을 찾아 보낸다. 또한 방학마다 있는 학원의 특강 시간표를 맞춰가며 아이의 스케줄을 계획하고, 그 스케줄에 맞춰 엄마의 하루 일과도 정해진다. 이런 사교육을 기획하는 이유는 자녀를 ‘인서울’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목적 때문이다. 자녀의 직업에 대해서도 엄마들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엄마의 생활이 자녀중심으로 구성되면서까지 뒷바라지를 해왔기 때문에 엄마들은 자녀의 직업에 대한 특정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자신의 생활을 일정 부분 희생한 대가를 자녀의 안정적 삶의 보장을 통해서 보상

받고 싶어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녀들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녀의 행복이나 전인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춘 엄마들은 ‘안내자’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들은 부모에게서 진로나 미래계획에 관해 어떤 조언이나 지지를 경험해 본 적 없이 혼자서 정보를 탐색하며 진로를 선택하고 변경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험으로 자신의 직업경력에 만족하지 못하며, 부모나 인생 선배들의 조언이 필요했음을 자녀를 키우면서 깨달은 엄마들이 주로 ‘안내자’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안내자’ 정체성을 형성한 엄마들은 자녀의 성장을 기획하기 보다는 자녀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때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생 경로 전반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생애주기마다 경험하게 될 인생 문제들에 대해 조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교육 기획자’ 정체성을 형성한 엄마들은 자녀의 성공이 엄마의 뒷바라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안내자’ 정체성을 형성한 엄마들은 자녀의 성공보다는 자녀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엄마의 정체성은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엄마가 수행해야 하는 모성역할과 자녀교육을 계획하고 개입하고자 하는 정도에 따라 다른 정체성을 형성함을 알 수 있다.

2. 모성이테올로기를 강화한 ‘좋은 엄마 상’

‘엄마’들이 ‘좋은 엄마 상’을 수립하는 과정은 두 가지 과정이 통합되어 나타난다. 첫 번째 과정은 훈육을 하면서 엄마답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런 모습을 고치기 위해 자아성찰을 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과정은 자녀를 키우면서 연상되는 ‘엄마’ 자신의 성장과정 경험을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결합하여 재구성하며, 현재 자신의 모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어머니의 양육방식은 모방하여 자신의 모성역할에 적용하는 과정이다. 반면에 자신의 현재

모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어머니의 양육방식은 폐기하여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양육방식을 새롭게 확립한다. 이런 과정은 ‘엄마’들이 자신을 객관화하여 반성하거나,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행동양식을 이해하는 과정,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대상화하여 관찰, 반추, 평가하는 과정들이 통합되어 있다.

내재되어 있던 분노와 엄마답지 않은 인간적인 모습을 훈육을 통해 발견하면서 ‘엄마’들은 자신의 성향과 인간성을 성찰한다. 이때, 자신을 객관화하여 반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가 대상화하는 ‘엄마’의 모습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면, 감정에 치우쳐 훈육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객관화하면서 분노의 근원은 무엇인지 자신의 성격은 어떤지 성찰하게 된다. 또한 화를 내는 ‘엄마’의 모습을 자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녀의 관점에서 자신을 대상화하여 이해하면서 부족한 ‘엄마’의 자질이 무엇인지 발견한다.

자녀를 키우면서 엄마들은 자신의 성장과정을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된다. 성장과정 경험을 재구성하면서 어머니의 양육방식을 반추하기도 한다. 어머니의 양육방식을 반추할 때 엄마들은 현재 자신의 모습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모방하여 자신의 양육방식으로 흡수한다.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배제하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양육방식을 정립하여 자녀 양육에 적용하려고 한다. 자신의 성장과정 경험을 재구성하여 ‘좋은 엄마’가 갖춰야 할 덕목을 발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엄마들은 ‘딸’의 관점에서 경험을 재조명하기도 하고, 그 경험을 현재 ‘엄마’의 관점에서 반성하고 평가하여, 자신이 수행하는 모성역할에 적용하기도 한다.

자신의 성장과정의 경험을 재구성할 때는 ‘딸’의 관점에서 좋았던 기억과 부정적인 기억을 선별한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성의 원인을 추적하면서 어머니의 양육방식에서 원인을 발견하게 된다. 원인이 된 어머니의 양육방식을 반성할 때 엄마들은 ‘딸’의 관점이 아닌 ‘엄마’의 관점에서 반성하고 평가해, ‘좋은 엄마’의 덕목을 발견하기도 하고, ‘나쁜 엄마’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최현선은 자율적으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겼던 어머니의 양육방식을 과거 ‘딸’의 관점에서는 좋았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어머니의 간섭 없이 스스로 알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자유로운 생활을 했다고 기억을 한다. 하지만 어머니의 자율적인 양육방식으로 인해 진로 선택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이나 조언이 부족했음을 ‘엄마’가 되어 깨닫는다. ‘엄마’가 된 최현선은 어머니의 자율적인 양육방식을 일종의 ‘방치’로 재조명하면서, 자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엄마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 엄마’라고 규정한다. 현재 자신의 모습에 영향을 준 어머니의 양육방식을 ‘딸’의 관점과 ‘엄마’의 관점으로 재조명하여, 반성하고 평가하면서 ‘좋은 엄마 상’을 수립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의 성장과정의 경험을 재구성하면서 스스로 수행하는 모성역할에 재구성된 경험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좋은 엄마 상’은 모성 이데올로기를 자녀 교육 중심으로, 역순환적으로 내면화한 양상을 보인다. 연구 참여자들은 고학력의 여성들로서 결혼과 출산 후에도 전문적인 직업인으로 양육과 가사를 남편과 분담하고, 자신의 생활을 주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이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연구 참여자들은 출산 후 반강제적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면서 전업주부가 된다. 이들이 전업주부의 생활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자녀 양육을 안전하게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여의치 않았다. 두 번째는 자녀의 안위와 올바른 성장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영역의 연구결과들이 보여주는 자녀중심적인 애착육아론에 대한 믿음이다. 세 번째는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가중되는 노동의 부담감이며, 네 번째는 외벌이로도 가정경제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중산층의 계층 유지나 계층 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자녀 교육을 성공적으로 기획하기 위해서다.

이런 이유들로 자신의 경력개발을 포기하고 전업주부 또는 ‘전업 어머니’의 삶을 선택한 엄마들은 미혼 시절에 예상했던 결혼생활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신의 생활을 기획하고 있었다. 종교적 가치관

을 교육받은 3명의 연구 참여자들을 제외하고는 출산 후에도 직장생활을 병행할 계획을 세웠고, 가사 역시 남편과 분담할 것이라 예상했다. 결혼 전 이들에게 육아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남편과 함께 어려움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은 엄마들로 하여금 일종의 선택을 하게끔 강요하였고, 엄마들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업 어머니’의 생활을 선택한다.

연구 참여자들이 형성한 ‘좋은 엄마’는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수용적인 태도의 훈육을 하고, 자녀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좋은 엄마’는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우관계를 잘 알고 있으며, 아이의 학업을 ‘뒷바라지’ 하는 사람이다. 또한 자녀에게 조언자가 될 수 있도록 사회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틀을 깨고’ 자녀 교육을 위해 스스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좋은 엄마’ 상은 자녀와 엄마와의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김세서리아, 2009)를 전제하고 있으며, 자녀 생활의 구석구석을 잘 관리하면서도,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자녀에게 인정받아 소통할 수 있는 모습으로 정립되었다.

한국의 가족주의와 모성이데올로기가 결합되어 발생한 ‘슈퍼맘’은 가족을 위해 존재하는 엄마, 자녀의 교육을 잘 기획하여 자녀가 성공하고, 결국에는 가족의 계층상승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는 엄마의 모습을 표상화 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사회적으로 직업적인 능력까지 인정받는 엄마의 모습이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중산층 엄마들은 이런 ‘슈퍼맘’의 모습을 표면적으로는 거부하고 있지만 자녀교육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는 ‘슈퍼맘’이 형성했을 법한 ‘좋은 엄마’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는 힘들지만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는 봉사의 형태, 직업의 형태, 취미활동의 형태로 사회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갖고자 하는 욕망을 보인다. 따라서 중산층 경력단절 엄마들은 모성역할을 학습하면서 모성 이데올로기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좋은 엄마’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자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가족 안에 머물면서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성공을 위해 자신의 욕구 희생을 감당하고, 집안을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보다는 남편과 자녀의 욕구를 우선하는 전형적이면서도 전통적인 모성의 모습을 현대적이며 신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중산층 경력단절 엄마들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중산층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평생교육의 방향성

모성역할 수행과 자아성취는 대립의 관계로 지속되지 않는다. 엄마들은 모성 역학을 학습하면서 동시에 자녀와의 분리를 준비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자아성취를 도모한다. 삶에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려고 할 때, 어떤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또는 어떤 변화가 생겨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개인의 삶에서 무엇인가 부족하고 결핍이 발생했을 때 성인학습자들은 학습을 한다(Mackeracher, 2004: 131-133). 여성이 출산한 후 엄마가 되면서 모성역할에 대한 정보의 부족, 변한 삶에 대한 불확실성, 자신의 존재 부정과 같은 문제에 직면한다. 이런 문제들은 ‘나’의 안위와 모성역할 수행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되며,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여성은 ‘엄마’이면서 동시에 성인여성 학습자가 된다.

엄마들은 모성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자아성취’를 준비한다. 모성역할의 이런 측면을 나윤경(2007)은 자녀사교육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엄마들의 삶의 시기는 자녀양육에서 자유로워질 미래의 평생학습을 준비하는 시기로 이해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엄마들이 모성역할을 학습하고 수행하면서 자녀 양육에서 독립할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엄마’로 사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자신을 위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취미활동이나 자기계발 또는 사회활동을 하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오롯이 ‘자신’을 위한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엄마’ 학습자는 관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의 맥락을 초월하여 ‘나’만을 위한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욕망을 보여준다. 모성역할 학습을 통해서 엄마들은 관계 중심으로 ‘엄마’로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재정립하지만, ‘역할’로 자신을 규정하는 맥락에서 탈출하여 본연의 ‘나’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내면에 흔들림 없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태까지 논의되었던 여성학습자들은 ‘관계적’으로 ‘상황 중심적’으로 맥락을 이해하고 지식을 생산하기 때문에 ‘나’의 욕구를 희생하고 그림으로 인해 성인 남성 학습자들과 다르게 내면의 갈등을 끊임없이 경험한다(Merriam, Caffarella, & Baumgartner, 2007). 본 연구의 시작도 이런 갈등 경험에서 출발하였다. 모성역할을 학습하는 초기 단계에서 엄마들은 이런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자신의 삶에 불만족스러워한다. 하지만 자녀와 상호작용을 하고, 모성의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하면서 엄마로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재정립하고, 그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모성역할을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내면화한다. 본 연구에서 엄마들은 모성역할을 하면서 갈등을 경험하지만 인간의 본성인 본질적인 ‘나’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는 희생하지 않는다. ‘모성역할’ 수행을 위해 ‘자아성취’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모성역할과 병치적으로 위치시켜 ‘자아성취’를 하고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자아성취 욕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경력단절⁸⁾을 경험한 중산층의 엄마들은 자녀가 성장 한 후 평생교육에 참여할 학습자가 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산층 경력단절 전업 어머니를 위한 평생교육의 논의는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 끝낸 후에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향으로 논의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그런 관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제공되고 있으며, 여성 학습자들의 문화 예술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가장 높은 것, 그리고 35세에

8) 2014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15세에서 54세 사이의 기혼여성들 중 20%가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이들은 초고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58.6%, 그리고 연령대로는 30세에서 39세 사이가 55.4%로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서 44세 사이의 여성들의 평생교육 참여도가 가장 낮은 것에서 자녀 양육에서 자유로운 여성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용호, 허선주, 2013). 2012년도 평생학습참여율을 살펴보면 여성 학습자가 39.4%로 남성 학습자 31.8%로 보다 더 많은 수가 참여하고 있다. 여성 학습자들의 평생학습 참여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스포츠 교육이 21.5%로 가장 많고, 두 번째로 직업능력향상핵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양상을 보인다. 2012년 국가 평생교육통계 조사 보고서를 보면 여성관련 시설에서 제공하는 1541개 교육 프로그램 중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은 1063개로 69%를 차지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310개로 20%,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3개로 거의 0%수준이다. 하지만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관한 것 보다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기반을 둔 교육 프로그램이며, 이런 교육 내용은 저임금과 낮은 신분으로 여성을 가두어 놓는다(나윤경, 2007).

본 연구에서 중산층 경력단절 ‘전업 어머니’들은 모성역할 학습을 통해서 모성이데올로기를 역순환적으로 내면화하면서 엄마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엄마들은 자아성취 욕구를 사회에서 인정받는 모성역할을 통해 충족시키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욕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라지지 않고 자아성취를 하면서 양육과 함께 병행하며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탐색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평생교육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고학력의 직업역량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육아휴직 기간이 직무교육을 받는 기간이 되고, 평생교육을 통해 직업 역량을 개발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현재 기업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의 출산·육아휴직 제도(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브리프 7월호, 2015)를 두고 있지만 엄마들은 이 기간 동안 ‘집안’에서 육아와 가사만 책임지면서 자신의 전문영

역에서는 점차 도태 된다. 출산 휴직 후 바로 육아휴직을 연계해서 사용하는 엄마들이 직장으로 복귀해 6개월 이상 지속 근무하는 비율이 출산 휴직 후 바로 복귀하는 엄마들보다 낮고, 평균임금이 낮은 엄마들이 오히려 육아 휴직을 더 오랫동안 사용함을 통계수치가 보여 준다(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브리프 7월호, 2015). 따라서 엄마들이 이 기간 동안 평생교육을 통해 직업역량을 개발하게 된다면, 직장으로 복귀해 근속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며, 경력단절의 비율은 감소할 것이다. 엄마들은 육아와 함께 자아성취를 할 수 있게 됨으로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전업 어머니’의 정체성을 형성하여 자녀교육에 자신을 투사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모성역할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엄마들이 이 기간에 직업역량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자녀를 돌봐주는 시스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이 문제를 전적으로 국가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런 엄마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의 니즈(needs)를 충족시켜 교육의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좀 더 발전적으로 논의를 하자면, 여성관련시설 평생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의 하나인 보육교사 양성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보육교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160시간의 현장실습을 해야 하는데, 자격증을 갖춘 실무 책임자들과 실습자들을 팀으로 구성하여, 교육시간동안 학습자들의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보육교사 양성 프로그램 학습자들과 평생교육 기관 그리고 엄마 학습자들에게 일거양득(一舉兩得)이 될 것이다. 연구자는 평생교육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국가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직업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학력 여성인력을 개발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분절적인 여성의 생애

주기의 특징으로 발생하는 성불평등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여성관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시민참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여 엄마들이 자신의 시민성을 회복하면서 사적인 공간에서 탈출하여 공적인 공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평생교육을 논할 수 있다. 여성주의 학습(feminist pedagogy)은 ‘여성의 경험, 문화, 사고를 교육의 중심부에 놓고 불평등을 양성했던 주변성과 타자성을 바탕으로 중심부를 재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송현주, 2002).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여성주의 학자들은 여성들의 사적인 담론을 공적인 영역으로 가져와 여성들의 다양한 삶의 경험과 생각을 서로 공유하고 토의 할 수 있는 여성성인교육의 장을 만들어야 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성들은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하고, ‘여성의 힘 갖추기(empowerment)’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곽삼근, 2007; 나윤경, 2000; 송현주, 2002; Gouthro, 2005). 그리고 이런 사적인 담론의 공적화는 학교 밖의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평생교육을 통해 가능해질 수 있다.

엄마들은 모성역할을 학습하면서 모성이데올로기를 강화하여 내면화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확대된 모성역할 수행에 집중한다. 엄마들의 이런 태도는 공(公)과 사(私)의 이분법적인 삶의 양식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통적 성 역할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데 일조하는 것이다. 모성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엄마들의 분열적인 갈등의 경험과 분절적인 삶의 형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참여를 격려해야 한다. 평생학습을 통해서 엄마들이 모성역할에 잠식되지 않고, 모성역할을 수행하는 자신의 삶의 양식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기 성찰의 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주의 학습에서 논의되고 있는 타자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안과 밖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천적인 시민활동을 조직하거나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삶을 구조화하는 사회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것의 변화를 엄마들 스스로

이끌어낼 수 있는 서로를 배려하는 가정문화 만들기, 남편의 의식전환 운동, 기업들에게 배려문화 전파하기와 같은 시민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 그 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엄마들이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모성을 경험하는 엄마들의 심리적인 혼란을 경감시키며, 엄마들이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배려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다.

우선 이런 시민활동을 조직하거나 실천하기 전에 엄마들에게 비판적 성인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활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비판적 성인교육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의식화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의 변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식화 교육은 사회·문화적 현실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고 그것을 성찰함으로 사회 변혁을 꾀하는 것이다(Freire, 1974).’ 따라서 모성역할에 잠식되어 무의식적으로 모성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고 있는 중산층 경력단절 여성들의 평생교육은 엄마들이 처한 사회와 문화에 대해 깊이 있고 성찰적인 토론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이 심화 발전하여 엄마들 스스로 시민활동이나 시민운동을 조직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이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VII. 요약 및 결론

1. 요약

여성들은 임신사실을 발견하면서 ‘엄마’로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임신 기간 동안 입덧과 신체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엄마’가 되고 있음을 깨닫는다. 이 기간에는 엄마들이 두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추며 학습을 한다. 첫 번째는 임신으로 인한 신체의 변화를 알기 위한 학습을 하고 두 번째는 태중에 있는 태아의 발달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학습을 한다. 엄마들은 출산을 하고 신생아를 돌보면서 모유수유와 수면부족과 같은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한다. 신생아를 돌보는 비일상적인 활동으로 구성되는 자신의 일상생활이 불만족스러우면서도 ‘엄마’들은 점진적으로 ‘모성애’를 느낀다. 자녀가 보육기관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나만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며 취미활동을 하고,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또는 직장으로 복귀도 한다. 전업주부와 다르게 사회생활을 하는 엄마들은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끼기도 한다.

중기 양육기부터 훈육을 하면서 자신도 알지 못했던 분노와 화가 표출되고, 엄마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낀다. 훈육을 통해 예상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들은 성격이나 습관을 반성하고 ‘좋은 엄마’의 덕목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엄마들은 자녀 양육을 위해 자신의 행동을 객관화하면서, 습관과 성품을 바꾸려고 노력한다. 이런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생각해주고, 사랑을 표현하는 자녀를 보면서 엄마들은 즐거움과 행복감도 느낀다.

자녀가 성장하여 공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자녀의 학업과 학교생활이 엄마 생활의 중심이 된다. 학업성취도의 일정 부분을 엄마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사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한다. 왕따와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자녀의 교우관계와 학교생활에 큰 관심을 갖는다.

위에서 기술한 것 같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엄마 되기’ 과정을 모성역할 학습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탐구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학습의 관점으로 이해하고자 한 것은 ‘모성’이 여성에게 내재되어 있는 본성이 아니라 엄마의 삶의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구성되는 일종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학습은 학습자 삶의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의 구성 및 재구성과정이기 때문에 엄마들의 삶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모성’과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생애사 연구를 하였다.

연구자는 지인들 중에서 라포가 이미 형성되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별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총 8명으로 3살 이상의 자녀를 둔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의 초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중산층 주부들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직장을 다니다가 첫째나 둘째의 출산으로 휴직 중이거나, 퇴사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여성들은 출산 후 신생아를 돌보는 비일상적인 활동들로 구성된 일상을 경험하고, 개별적 주체인 ‘나’는 배려 받지 못하며, 모성역할만 강요되는 분열적인 상황을 경험한다. 이런 경험은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모성애’가 발견되고, 자녀가 엄마에게 보여주는 사랑과 관심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엄마들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재규정한다. 분열적인 상황에서의 자아 성찰과 엄마로서 재규정된 존재의 의미가 결합하여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삶의 방향을 재정비한다.

이렇게 형성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여, 자녀 교육을 숙고하면서 자신의 성장과정 경험을 재구성한다. 또한,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삶의 장면에서 ‘엄마’의 성장과정 경험을 연상한다. 연상된 기억을 현재 ‘엄마’의 모습에 비추어 재구조화하면서 주 양육자였던 어머니의 양육방식을 성찰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 자녀가 살게 될 미래 사회에 대해

서,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할 인재에 대해서 고민한다. ‘엄마’의 성장과정 경험의 재구성, 어머니의 양육방식의 성찰, 미래 사회와 그 사회의 인재상, ‘나’라는 인간의 이해가 통합되어서 ‘좋은 엄마 상’을 수립하게 된다.

2. 결론

연구 참여자들은 ‘엄마 되기’ 과정을 통해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좋은 엄마 상’을 수립하였다. 출산 후 신생아를 돌보면서 급격하게 바뀐 일상생활로 혼란을 경험한다. 육체적인 한계 상황과 정신적, 감정적 스트레스로 힘든 자신과 변함없는 일상을 영위하는 남편과의 간극을 깨닫고, ‘왜 나만?’이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또한, 개별적 주체인 ‘나’는 배려 받지 못하고 엄마 역할만 강요받는 존재부정의 경험을 한다. 이런 존재부정의 경험은 모종의 학습을 추동하는 동인이 된다(양은아, 2009). 혼란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또는 엄마들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든다. 하지만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낼지라도 자녀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으로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양가감정’을 느끼면서 그것의 원인을 찾기 위해 자신의 성장과정 경험을 되돌아보게 된다.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자녀의 행동양식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고, 이 경험들의 구조화로 자녀행동에 대한 지식이 축적된다. 이 지식의 재구성을 통해 엄마의 존재의미를 규정하며, 엄마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된다. 초기 양육기에는 엄마가 됨으로 겪는 삶의 맥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학습을 하고 그 결과 엄마라는 새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중기 양육기에 들어서면서, 자녀와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자녀를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입학시키면서, 자녀 교육에 대해 고민을 한다. 또, 이 시기는 자녀의 훈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와 맞물린다. 훈육을 하면서 엄마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고, 죄책감이 들면서 자아성찰을 하게 된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본인의 성장과정 경험이

연상되는 에피소드를 경험한다. 연상된 자신의 성장과정 경험을 반추하며, 엄마들은 자신의 양육방식과 어머니의 양육방식을 비교해 보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의 성장과정 경험을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결합하여 재구성하면서, 자신의 삶을 재조명하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경험들을 선별하여 재구성한다. 이때 선별되는 경험은 현재 ‘나’를 형성하는데 모종의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되는 경험들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경험과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경험으로 선별된 경험을 구분한 후, 그런 경험의 원인을 어머니의 양육방식에서 발견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방식을 성찰하고, 모방할 것과 폐기할 것 그리고 보완이 필요한 양육방식으로 구분하면서 본인이 수행할 모성역할을 규정한다. 또한, 전인적인 인간상을 성찰하고, 자녀가 앞으로 살게 될 미래 사회를 예측하면서 자녀에게 필요한 역량을 발견한다. 엄마가 재규정한 모성역할과 자녀에게 필요한 역량을 통합하여, 엄마들은 ‘좋은 엄마 상’을 수립한다.

두 번째 엄마들은 전통적인 성 역할을 요구받으면서 가족과의 갈등을 경험하고, 훈육을 하면서 자녀와 갈등도 경험한다. 개별적 주체인 ‘나’보다 ‘역할’이 우선시 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모성 이데올로기와 갈등도 겪는다. 마지막으로 양육을 하면서 느끼는 ‘양가감정’으로 내적 갈등도 경험한다. 남편과는 다르게 엄마가 됨으로 자신의 일상이 비일상적인 활동들로 구성되고, 돌봄 노동이 엄마만의 책임이 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분업적인 성 역할을 원하는 남편과 갈등을 겪기도 하고, 출산 후에도 사회생활을 계속하기 원하는 가족들과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런 갈등의 변인은 엄마 자신과 가족구성원의 전통적이고, 분업적인 성역할의 내면화 정도이다. 전통적인 성 역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엄마들에게서는 이런 갈등의 폭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독박육아’를 경험했던 엄마들은 돌봄 노동이 가장 우선시 되고, ‘나’의 존재론적인 욕구가 희생되는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불만족스러워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통적인 성 역할의 내면화 정도가 낮을지라도

베이비시터, 시어머니,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존재론적인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었던 엄마들은 ‘독박육아’를 하는 엄마들 보다 갈등의 폭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성이데올로기가 비정상적으로 확장돼 자녀 교육은 엄마 책임이며, 자녀의 성공은 모성역할 실천의 결과라는 사회적 통념과의 갈등을 엄마들은 경험한다. 여기에 더해 사회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집안 살림과 자녀 교육도 잘 하는 ‘슈퍼맘 이데올로기’와의 갈등도 겪는다. ‘슈퍼맘 이데올로기’와의 갈등은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경험하는데, 사회가 엄마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 갈등을 해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자아성찰과 성장과정 경험의 재구성을 통해 ‘좋은 엄마’가 갖춰야 할 덕목을 정립하지만 그것이 사회의 성공지향적인 교육관과 대립할 때도 갈등을 경험하였다.

이런 갈등상황은 모성역할 학습의 맥락이 되고, 학습동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초기 양육단계에서 나타나는 이데올로기와의 갈등, 가족과의 갈등은 엄마 정체성 확립의 환경적 맥락으로 작용한다. 갈등상황에 처하면서 엄마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 고민을 한다. 자녀의 행동양식에 관한 경험이 쌓이고 그 경험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엄마’라는 존재의 의미가 자녀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발견하게 되고, ‘엄마’라는 존재의 의미를 재정립한다.

자녀들이 공교육을 받을 만큼 성장한 엄마들은 모성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모성역할을 실천하면서 다른 유형의 갈등을 경험한다. 자녀 교육이 엄마 삶의 중심이 되면서 엄마들은 자녀 사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학교생활과 교우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또한,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겪는다. ‘자녀와의 갈등’, ‘가족과의 갈등’, ‘사회·문화적 전제’와의 갈등은 ‘나’를 성찰하고 인간을 성찰하는 동기가 된다. 이런 성찰학습을 통해 엄마들은 ‘좋은 엄마’가 갖춰야 할 덕목을 정립한다. 갈등은 모성역할학습에서 학습의 동기가 되면서 동시에 학습 상황으로 작용하고, 그 학습의 결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좋은 엄마 상’을 수립하게

된다.

모성역할 학습과정의 변증법적인 특성은 자녀의 성장에 따라 요구되는 모성역할이 달라지는 것에 기인한다. 초기 양육기에 요구되는 모성역할은 자녀의 신체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것이지만 자녀들이 성장하여 십대가 되면 신체적인 측면의 도움보다는 자녀의 교육, 인성, 정서 발달과 같은 측면에서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엄마들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모성역할을 계속적으로 학습하게 되고, 학습한 내용을 자녀 양육에 적용하면서 엄마 스스로가 규정하는 모성역할은 변하게 된다. 새롭게 규정된 모성역할을 수행하면서 엄마들의 모성 경험은 계속적으로 축적되고, 다음 단계의 모성역할을 규정하는 삶의 맥락이 된다. 자녀의 성장단계에 맞게 모성역할을 새롭게 규정하고, 그것을 자녀 양육에 적용하면서 엄마로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며, 그렇게 새롭게 축적된 경험들은 다시 새로운 모성역할을 규정하는 배경이 되는 변증법적인 특성을 모성역할 학습과정에서 포착할 수 있다. 즉, 자녀의 성장으로 인해 요구되는 ‘모성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엄마’들은 끊임없이 학습을 하게 되고, 학습의 결과로 규정되는 ‘엄마’의 존재의미 또한 ‘모성역할’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모성역할 학습의 이런 변증법적인 특성은 엄마들이 경험하는 갈등의 변화의 맥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엄마들이 모성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갈등의 양상은 변하는데 초기에는 급격한 생활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정체성 혼란, 사회적으로 규정된 모성역할 적용, 출산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에 의한 갈등을 경험한다. 엄마들은 중·후기 양육기로 접어들면서 ‘전업 어머니’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녀의 성장 발달에 맞는 하위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모성역할을 수행한다. 학령기에 접어든 자녀를 지원하는 모성역할을 수행하면서 엄마들은 자신의 자녀 교육관과 사회적으로 담론화된 교육관과의 갈등, 개인의 삶과 엄마로서의 삶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경험한다. 이러 갈등을 경험하면서 엄마들은 개인의 생활과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

려고 노력을 하지만 대부분 자녀 교육을 위한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선택을 하면서 모성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갈등은 이분법적이면서 성 불평등적인 차별에 대한 인식 없이 한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엄마들은 성장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모성 이데올로기를 내면화 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고, 사회가 엄마로서의 생활과 역할을 모성이데올로기로 경계 짓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여성주의적 성찰의 부재는 모성역할을 학습하면서 오히려 모성 이데올로기를 역순환적으로 내면화하여, ‘자녀교육’이라는 모토아래 일정기간 자신의 삶을 ‘집안’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모순적인 선택을 하면서도 그것의 모순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산층 경력단절 엄마들은 모성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집안’의 일과 ‘집밖’의 일의 구분을 성차별적인 행위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사노동은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 할 수 있고, 아내가 바쁜 남편을 대신해 가족을 위해 해야 되는 일로 인식할 뿐이다. ‘집밖’의 일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남편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아내는 그것을 남편에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더하여, 자녀 교육은 엄마인 아내의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엄마의 책임이며, 이것에 간섭하는 남편, 아빠들은 엄마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녀의 교육이 기획대로 실천되지 않을 때 엄마들은 책임을 추궁 받으며, 자녀 양육보다 자신의 자아성취를 위한 선택을 할 때 비난의 눈초리를 받고, 엄마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모성역할이 내포하고 있는 모성 이데올로기가 발현되는 것이다.

또한, 엄마들이 모성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고 있음을 깨닫더라도 개인이 사회적인 시스템과 통념에 맞서는 선택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여성주의 입장에서 여성들이 자신이 수행하는

모성역할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시민 정신을 함양하고, 여성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적 지지기반을 제공하고, 엄마들의 사적인 경험을 공론화함으로써 한 사람이 아닌 다수의 힘이 결집하여 사회 문화적인 통념에 맞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출산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엄마들이 주 연구 참여자였다는데 한계점이 있다. 출산 후에도 지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엄마들은 육아와 함께 자아성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맥락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여성이 경험하는 모성역할 학습으로 그 내용을 확장시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 중 두 명을 제외하고는 종교 활동으로 인해 자아성취에 익숙하다. 자신을 성찰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엄마들은 본 연구에서 논의한 경험학습과 성찰학습의 이중적 구조를 경험하지 못 할 수도 있다. 8명의 연구 참여자 중 2명은 종교적인 가치관에 따라 전업주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을 내조하는 삶이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해 ‘전통적인 성 역할’ 또는 ‘전업주부’로 사는 것에 대한 불만은 크지 않았다. 또 다른 연구 참여자는 출산 전까지 직업적인 면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에 ‘자아성취’와 역할 간의 대립양상은 보이지 않았다.

이런 한계점을 발견함에 따라 연구자는 본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엄마’라는 사회적인 역할은 자녀의 성장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자녀의 성장단계에 따라 엄마들이 규정하는 모성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성향의 차이로 엄마들이 경험하는 갈등에 대한 이해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엄마들의 성향과 정체성 확립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학습자 연구는 남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Merriam, Caffarella, & Baumgartner, 2007, Mackeracher, 2004) 남성 학습자와 구별되는 여성 학습자의 특성을 모성 발달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의 의의는 중산층 경력단절 여성의 모성 정체성을 밝혀 모성 이데올로기를 역순환적으로 내면화하여 상위 범주로 ‘전업 어머니’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녀의 성장단계에 따라 하위범주의 정체성을 형성함을 밝힌것에 있다. 그리고 모성역할을 학습하면서 경험하는 갈등의 양상을 밝힘으로 전업주부 어머니들을 위한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대중(2009). “평생학습 연구방법으로 학습생애사의 의의와 가능성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15(1), pp. 201-223.
- 김규옥(2006). 여성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비교 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세서리아(2009). “한국 가족에서 모성과 여성의 일에 대한 철학적 고찰”. 한국여성철학. 12(1), pp. 31-58.
- 김인지, 이숙현(2005).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모성 이데올로기와 부모역할 만족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3). pp.1-25.
- 김중서, 김신일, 한승희, 강대중(2009). 평생교육개론. 교육문화사.
- 김지혜(1995). “모성이데올로기의 수용과 거부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김진영(2003). “모성의 의미를 통해 본 사회적 양육의 가능성”. 유아교육연구. 23(3), pp. 197-218.
- 김현우(1997). “모성에 관한 이론적 탐구”.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44(1), pp. 231-247.
- 김혜경(2001). “모성신화의 강고함과 모성경계의 허술함”. 가족과 문화. 13(1), pp. 157-162.
- 곽삼근(2008). 여성주의 교육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권용혁(2013). “한국의 가족주의에 대한 사회철학적 성찰”. 사회와 철학. 25, pp. 203-232.
- 나윤경(2014). “모성적 생산성과 여성평생교육: 사회적 모성에 대한 인문학적 상상”. 평생교육학연구. 20(1), pp. 169-189
- _____ (2007). “여성주의 시작으로 분석한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 프

- 로그램”. 평생교육학연구, 13(1), pp. 133-159.
- 나윤경, 태희원, 장인자(2007). “자녀 사교육을 통한 모성 구성과정”.
평생교육학연구. 13(4), pp. 55-87.
- 나임윤경(2003). 여성교육과 실천. 학영사.
- 노영주(1996). “여성의 경험으로서의 어머니됨”.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창간호, pp. 35-55.
- _____(1999). “여성의 관점에서 본 초기 모성경험”.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pp. 166-182
- 박용호, 허선주(2013). 성인학습자 대학 평생학습 수요 실태 조사 분
석. 평생교육진흥원
- 박은혜(2014). “한국 기독교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이해”. 기독교교육정
보. 43(1), pp. 99-124.
- 박혜경(2009). “한국 중산층의 자녀교육 경쟁과 ‘전업 어머니’ 정체성”.
한국여성학, 25(3), pp. 5-33.
- 백소영(2009). 엄마되기, 아프거나 미치거나. 대한기독교서회
- 손연아, 손은령(2013). “한 엄마의 가정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교육
연구논총, 34(1), pp. 249-268.
- 송미영, 유영만(2008). “자아창조와 공적연대를 지향하는 폐기학습 모
델에 관한 연구”.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1(3), pp. 29-56.
- 송현주(1999). “여성주의 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모성을 중심
으로”.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2(4), pp. 77-98.
- _____(2002).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의 페미니스트 페даго지: 그 가
능성을 찾아서”.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 Adult & Continuing Education, 5(3), pp. 1-19.
- 신경아(1997). 한국 여성의 모성 갈등과 재구성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미식(2005). “평생교육의 초기 이념을 살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이론으로서 여성주의 교육이론”. 평생교육학연구. 11(2), pp. 93-116.
- 양은아(2009). 성인 인문학습과정에 나타난 삶과 학습의 선순화적 경험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연효숙(2001). “한국 근(현대) 여성의 갈등 경험과 여성 주체성의 미학”. 한국여성철학. 1(1), pp. 35-158.
- 윤택림(1996). “모성이데올로기”. 한국여성학. 12(2), pp. 79-117.
- _____ (2013).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아르케.
- 이연정(1995). “여성의 시각에서 본 모성론”. 여성과 사회. 6(1), pp. 160-183.
- 이정자(2000). “모성역할에 관한 개념분석”. 혜천대학 논문집. 26(1), pp. 405-424.
- 이재경(2004). “노동자계급 여성의 어머니 노릇(mothering)의 구성과 갈등: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2(1), pp. 82-117.
- 임혜영, 이혁구(2014). “양육 결정 미혼모의 초기 모성 경험에 관한 연구-해석학적 근거이론 방법”. 사회복지연구. 45(3), pp. 35-69.
- 전우영(2013). 나를 움직이는 무의식 프레이밍. 21세기북스
- 정민승(2005). “여성학습자의 존재론적 인식특성”. 여성평생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여성평생교육회 편.
- 정우열(2015). 엄마만 느끼는 육아감정. 팬덤북스.

- 정희진(2005).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 조용환(2006).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교육과학사.
- 천연숙, 마정미(2013).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서 본 이 시대 ‘엄마’의 모습”. 한국광고홍보학보. 15(2), pp.140-175.
- 최성묵(1998). “헤겔의 관찰하는 이성에 관한 현상학적 고찰”. 헤겔연구 4. 지식산업사
- 최순남(1992). “성격의 사회학습이론에 관한 연구”. 한신논문집. 9(1), pp. 323-346.
- 최은아(2014). 성인여성의 모성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인식전환 단계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한승희(1999). “학습생태학적 입장에서 바라본 성인 학습”. 평생교육학 연구. 5(1), pp. 223-244.
- _____ (2005). 포스트모던 시대의 평생교육학. 집문당.
- _____ (2006). 평생교육론. 학지사.
- 한지원(2005). “기혼여성노동자의 어머니노릇(mothering) 변형 과정”. 여성학논집. 22(2), pp. 71-106.
- 홍석준, 성정현(2011). “말레이시아 조기유학생 어머니들의 자녀교육 및 “어머니 노릇”에 대한 인식과 의미”. 동남아시아연구. 21(1), pp. 1-48.
- 홍용희(2013). “자기의식과 서정적 동일성-임영조 론”. 국제비교한국학회. 21(3), pp. 405-430.
- 홍지안(2014). “한국모성담론의 역사성”. 현상과 인식, 38(1/2), pp. 205-228.
- Badinter, E.(1980). 심성은 역(2009). (L')amour en plus: histoire de l'amour maternel. 만들어진 모성. 동녘.

- Beck-Gernsheim, Elisabeth. (2006). 이재원 역(2014). Die Kinderfrage heute. 모성애의 발명. 알마
- Belenky, M.T., Clinchy, B.M.T, Goldberger, N.R. and Tarule, J.M. (1986). Women's Ways of knowing: The Development of Self, Voice, and Mind. New York: Basic Books.
- Creswell. J. W.(1997). 조홍식 외 역(200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학지사.
- EBS 마더쇼크 제작팀(2012). 마더쇼크, 중앙북스.
- Freire, P.(1970). 남경태 역(2002). Pedagogy of the Oppressed, 30th Anniversary Edition. 30주년 기념판 페다고지. 그린비.
- _____ (1974). 채광석 역(2007). Education for Critical Consciousness. 교육과 의식화. 도서출판 중원문화.
- Gilligan, C. (1979). "Woman's place in the man's life cycle". Harvard Educational Review. 49(4), pp. 431 - 446.
- _____ (1993).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Reissued Eds). Harvard University Press.
- Gouthro, P. A.(2005). "A Critical feminist analysis of the homeplace as learning site: expanding the discourse of lifelong learning to consider adult women learners".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24(1), pp.5-19.
- Harms. R. W.(Eds.)(2004). Mayo Clinic Guide to a Healthy Pregnancy. Collins Living.

- Hoare. C.(Eds.).(2006). Handbook of Adult Development And Learning. Oxford University Press.
- Knowles. M., Holton III. E. F., & Swanson. R. A.(2005). The Adult Learner(6th ed.). Butterworth-Heinemann
- Lee, Jae-In(2008). “Changes in Mothering of Korean Women: Based on narrative interview data”, Development and Society, 37(2), pp. 141-167.
- MacKeracher, D.(2004). Making sense of adult learning.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Merriam, S. B.(1998). 허미화 역.(1994).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Revised and Expanded from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질적 사례연구법. 양서원.
- Merriam, S. B., Caffarella. R. S., & Baumgartner. L. M.(2007). Learning in Adulthood. Jossey-Bass.
- Sears. M., Sears. W., & Pantley. E.(2002). 노혜숙 역.(2010). The Successful Child What Parents Can Do to Help Kids Turn Out Well.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우는 애착육아. 푸른육아.
- Tisdell. E. J.(1998). “Poststructural feminist pedagogy: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feminist emancipatory adult learning theory and practice”. Adult Education Quarterly. 48(3), pp. 139-156.
- Warner, J.(2005). 임경현 역(2005). Perfect Madness: Motherhood in the Age of Anxiety. 엄마는 미친것이다. 프리즘하우스.

<기타자료>

개념 없는 엄마 <http://www.fnnews.com/news/201508301403155180>

고용동향브리프 2015년 7월호, 한국고용정보원

<http://www.keis.or.kr/user/extra/main/711/publication/publicationList/jsp/LayOutPage.do?categoryIdx=126&pubIdx=944&spage=>

[1](#)

A Study on the Learning to Attain a Mothering-Role for Career discontinued Middle-Class Women

Chung, Ji Yun

Lifelong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ecoming a mother’ is the process of attaining a new identity as a socially constructed entity through a certain learning process and not the result of revelation of innate motherhood through childbirth. This study has researched from the perspective of lifelong learning the process of how, through resolving different levels of conflict when performing their mothering-role, mothers form their identities, reconstruct their reasons for self-existence and establish their ideal mothering role model.

The researcher has set the study questions below.

First, what are women’s experiences as a ‘mother’ after childbirth? Which experiences do they choose to embody in order to perform mothering-role among those experiences?

Second, to perform mothering-role, what conflicts do ‘mothers’

face and how do these conflicts manifest? How these conflicts have been changed in the process of mothering-role learning?

Third, how can these changes of conflicts be understood in the perspective of feminism?

After childbirth, 'mothers' experience radical changes in their daily lives. All-day-long breast feeding, sleep deprivation from night time feeding, soothing crying babies and putting them to sleep is laborious and causes physical fatigue. Mothers often experience depression caused by hormonal changes and irregular changes in their daily routines and activities. As traditional gender roles are implicitly forced upon them, mothers experience conflicts with their husbands, mothers-in-law, and their own mothers. Mothers stress out in unfair situations where only they are responsible for rearing babies and where the mothering-role takes priority over themselves. When mothers realize their anger and rage from stress, they also experience remorse. After childbirth, mothers experience individual self-negation as those non-daily activities become their daily routine. This experience of individual self-negation motivates mothers to learn, and mothers do learn in order to find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individual self-negation.

As mothers do self-examination in order to resolve confusion occurred by radical changes to their situation, they realize that they need to change their character or habits. As time goes by, mothers obtain new meaning of 'mother' as they bond with their

children and motherhood is manifested. As they perform unfamiliar mothering-role, they feel the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and children become their other self and flesh. They feel happy and joy because of the affection, love and attention expressed by their children with whom they communicate. As they communicate with their children, mothers construct their new identity, 'full-time mother', by accepting peripheral and supportive mothering-role.

Conflict occurs when mothers are demanded to perform traditional mothering-role and wife-role by their husbands, mothers-in-law, or their own mothers based on ideologies of motherhood and familism in Korean society. Mothers struggle to balance between works and life for social success that is expected by their family members even though they want to be a stay-at-home mother. They conflict with abnormally expanded concept of 'super-mom ideology' because mothers have to be fully responsible for education of their children due to neoliberalism, familism, and meritocracy of Korean society. To resolve those conflicts, they look for the causes through self-examination as they face their angry reaction toward conflicts. They reconstruct and evaluate their experiences and combine them with growth process with their own mothers' child rearing method and attitude. Through this process, mothers find in-depth understanding of themselves, which becomes ground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a 'good mother'. They do learn to resolve conflicts which they face as they perform mothering-role. As the result of learning,

they develop subcategories of 'full-time mother' identity, which are 'discipliner' identity, 'child-rearer' identity, 'education planner' identity, and 'guide' identity.

They find out 'the image of good mother' through discerning of growth experiences and modern society as they build up a new identity. The image of good mother whom they found out seems to internalize motherhood ideology inversely. The good mother whom they image have intimate relationship with children and know children's daily activity. And they have to give advice on career course, keeping a certain distance and take children to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to experience different things. And they also plans private extra curriculums to manage their children's school grades. They also embrace naturally child-centered life style and accept motherhood ideology self-contradictorily in that they give up their career just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and development and postpone achieving their life-goal.

The traits of mother-role learning is multi-leveled. Mothers remember their own growth experience naturally. By reconstructing these memories, mothers examine their own mother's mothering method and attitude. They unlearn them or apply their own mother's mothering method to theirs. Therefore, mothering-role learning has the aspects of experiential learning, self-examine learning, imitative learning and unlearning.

Lastly, 'mothering-role' learning has dialectical traits. As children

grow up, the mothering-role also changes. For infants and toddlers, mothers concentrate on physical growth and development, but for adolescents, they take a role as a mentor to guide life course or carrier and a comforter for emotional well-being. Mothers have to learn new mothering-roles and execute them as their children grow. Those mothering-roles performed beforehand becomes grounds for learning of a new mothering-role and learning resource. Therefore, the process of 'becoming a mother' shows recursive and dialectic aspect of learning which triggers mothering-role learning with accumulations of mothering-role experiences.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shows that middle-class mothers who experienced career discontinuity build up their identity through mothering-role learning, and the identity has been changed dialectically to children's developmental stage. And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y internalize inversely motherhood ideology as they develop their identities. Applying these finding, this study discusses the direction of lifelong education for middle-class mothers who experienced career discontinuity in the perspective of feminism.

Keywords : motherhood, mothering-role, identity, feminism, feminism pedagogy, child rearing, mothering-role learning, becoming a mother.

Student Number : 2006-21703